

시로 읽는 성보순례
철감선사가 살아 있다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감선사탑
통일신라시대 ▶2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6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00 호 2012년 8월 8일 수요일


게을러 헛되이 살면
미래 세상에도 또한 헛되어
열반을 얻지 못한다.
「정법염처경 제43권」

# 평생교육 추진하니 사찰이 지역 속으로

## 조계사 평생교육원 · 종로구 '마을 공동체' 업무 협약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설립 사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평생교육원이 가져오는 효과 중 하나여서 더욱 주목된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원장 화림)은 7월 27일 종로 1,2,3,4가 동사무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과 종로구가 협의한 마을 공동체 추진 방향은 세대통합형 복지공동체. 마을 어르신들과 청장년, 여성,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를 위해 조계사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에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계사 평생교육원장 화림 스님은 "평생교육원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전에는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을 관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조계사가 먼저 지역민들에게 다가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설립도 준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계사 평생교육원이 추진했던 마을 공동체 실무 과정 1기 수강생들과 종로 지역법회, 대한불교청년회 회원 등이 함께 하는 이들은 '조계사 연꽃마을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조계사 인근에 상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지역사회의 일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기획이사는 "종로에서 조계사 가지는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한

**조계사 중심 공동체 위한**
**'연꽃 마을팀' 도 자체 조직**
**마음연구소 등 부설기관**
**공모사업 잇달아 수주**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먼저 직장인들을 위한 명상 카페를 먼저 계획이며, 서울시 지원센터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조계사를 시대의 트랜드인 '마음 치유'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불교가 가진 '마음치유'로 특화되는 여러 가지 지자체 공모 사업들 유치하고 있어서다.

실제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지난 7월 학교 폭력 피 · 가해청소년들을 위한 동기강화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2박 3일, 4박 5일 간의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노출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마음챙김 명상부터 전래놀이, 역할극, 특강 등 다양한 커리큘럼들로 구성돼 있다.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의 부설로 설립된 국제마음건강센터가 추진하는 여성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40대,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 역시 마음챙김 명상과 동기 강화 코칭, 사찰음식을 통한 건강한 밥상 차리기까지 불교를 바탕으로 한 심신건강 회복이 주된 테마다.

이태호 기획이사는 "불교는 현대인이 직면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나 여러 교육들은 모두 '마음 치유'를 바탕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회향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불교를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인터뷰 3면**

# 4대종교 반대에도 김신 대법관 임명

## 국회 1일 임명 동의… 찬성 162명, 반대 107명

종교편향 문제로 대법관 자질 논란이 불거졌던 김신 대법관 후보의 임명 동의가 가결됐다.

국회는 8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신,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임 대법관들 퇴임 후 22일 만이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270명의 의원이 참가했다. 투표 결과 고영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고,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이 찬성, 94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김신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상당 수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민주통합당은 김신 ·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과 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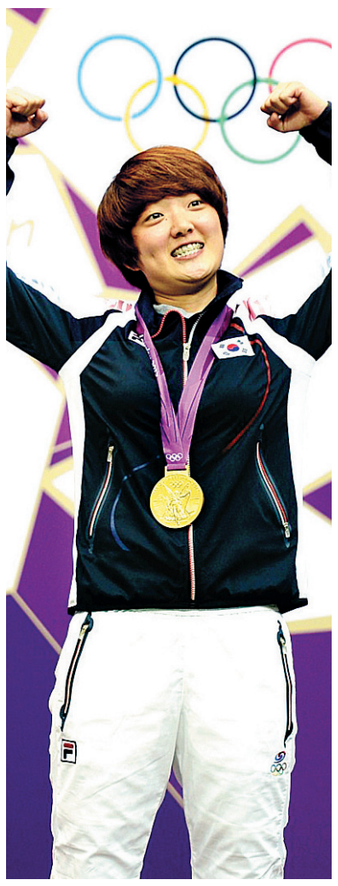
이에 앞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으로 구성된 '헌법파괴 김신 대법관 임명저지 4대종교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임명동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특정종교 입장 속에서 사법행위를 자행한 인사, 온갖 비리의혹이 있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부적격 인사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현 정권의 아집과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으로 국회 임명 동의를 진행하려는 여 · 야 시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과거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여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자랑스러운 불자 선수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쾌조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불자 선수들. 사격의 진종오〈사진 왼쪽〉, 김장미〈사진 맨 오른쪽〉 선수와 여자 양궁의 최현주〈두번째 사진 왼쪽〉와 기보배〈두번째 사진 가운데〉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보배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 불자 선수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은 오심 판정으로 얼룩진 런던올림픽에서 유일한 위안이 돼주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체육회

# 불자선수들 '金·金·金' 금밭 일궜네

## 2012 런던 올림픽 사격 진종오, 김장미 · 양궁 여자 단체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의 '금빛' 선전이 눈부시다.

8월 2일 현재 한국의 7개 금메달 중 4개를 모두 불자 선수들이 이끌어냈다.

첫 시작은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KT) 선수였다. 천태종 신도인 진종오 선수는 7월 28일 오후 영국 런던 그리니치파크의 왕립 포병대 기지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100.2점을 기록해 총 688.2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불자 최현주(창원시청)와 기보배(광주광역시청) 선수가 포진한 여자 양궁 대표팀은 7월 30일 영국 런던 로즈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단체전에서 숙적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보배 선수는 8월 2일 열린 개인전에서도 금빛 과녁을 명중해 올림픽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여자 사격의 신성, 불자 김장미(부산시청) 선수는 한국에게 다섯 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다. 김장미 선수는 8일 1일 오후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 사격경기장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사격여자 25m 권총 결선에서 합계 792.4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른 불자 선수들의 선전도 눈길을 끌고 있다. 불자 김법민이 소속된 남자 양궁 대표팀은 멕시코를 224대 219로 꺾어 동메달을 따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불자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천태종 춘천 삼운사(주지 도웅)는 7월 29일 진종오 선수 2관왕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김주일 · 신중일 기자**

# 中, 한국 빼고 티베트 여행금지 해제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티베트 여행 금지 조치를 풀면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관광청(西藏旅遊局 · TBB)은 6월 20일부터 외국인 여행 금지를 풀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한국과 영국 · 노르웨이 ·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묶어놨다.

티베트관광청은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6월 12일~15일 여수에서 열린 '세계 불교도 우의회(WFB)' 한국대회에서 우의회 정식 지부로 등록돼 있는 티베트 대표단이 참가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미국 콜럼비아대 티베트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바넷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불교포럼에 티베트 승려들을 초청한 일'을 한국인의 티베트 여행 금지 사유로 지목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 900호 INDEX


종단 2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성료

시방세계 5
이나은 기자의 단기출가 체험기



복지 7
불교계 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함께가요 강의실 8
김희옥 동국대 총장 특강



여름특집 12
여행작가 추천 여름사찰 6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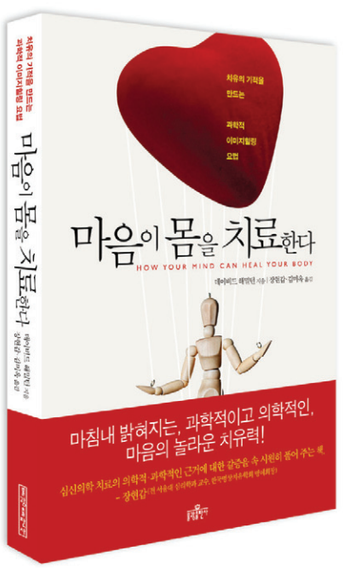


HOW YOUR MIND CAN HEAL YOUR BODY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제 당신도 느껴 보라!

치유의 기적을
만드는
과학적
이미지힐링
요법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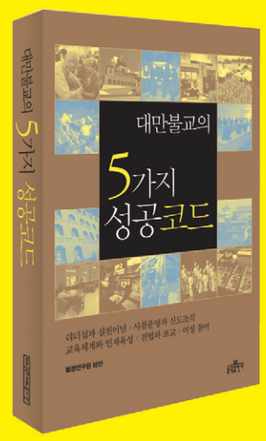

생화학 박사이자 전 제약 회사 연구원이 밝히는
강력한 마음의 치유력!

심신의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책은 이미지힐링과 믿음, 긍정적 사고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저자는 혁명적인 '양자장 치유법'을 언급하면서 상상력과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방어 기제와 치유 시스템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지음
장현갑·김미옥 옮김
372면 | 값 17,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만불교의
현황과 성공비결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세계 대승불교권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대만불교
전문 학자들의 현지 조사와 최신 자료에 근거한 대만불교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분석

- 지도자의 리더십과 '인간불교'의 실천이념
- 투명한 사찰 운영과 체계적인 신도조직
- 현대적인 교육체계와 적극적인 인재 육성
- 활발한 전법과 도심포교 •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불광연구원 편찬
456면 | 값 23,000원

##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감선사탑



### 철감선사가 살아 있다

강 경 호

통일신라 적
불심 깊은 사람, 철감선사 박도윤이
아직도 증조산에 살아 있다
경전 같은 집 한 채가 되어
쌍봉사 뒷결에서 법문을 외우고 있다
선사가 외우는 법구경이거나 천수경이
바람이었다가 햇빛이었다가
때로는 달빛이었다가, 눈비였다가
밤마다 어둠이었다가
오늘은 내게 멋쩍은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데
일제 때 사리장치를 훔쳐가기 위해
어느 몸쓸 놈이 철감선사를 쓰러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 선사,
머리의 옥개석 몇 조각 도둑에게 줘버렸지만
떡 주무르듯 빚은 신라 최고의 걸작이 눈부시다,
눈부시다, 세월이 지날수록 상처투성이지만
그 상처에 배인 1200년 전 선사의 뜨거운 마음
얼음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강경호** 시인은…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함부로 성호를 긋다〉와 평론집〈휴머니짐 구현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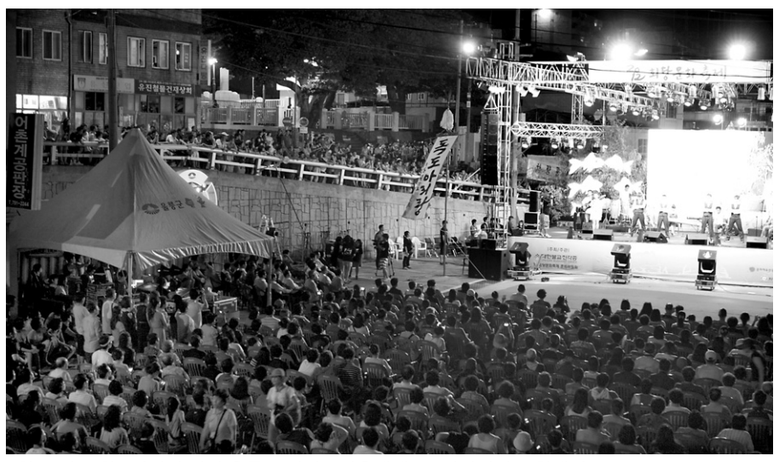
# 울릉도 달군 회당문화축제

## 8월 1일까지 종조탄생 1백주년 기념행사 다채

8월 1일 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 인기 밴드 노브레인의 터질듯한 선창에 1천여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 치며 가볍게 몸을 흔든다. 진각종이 매년 7월말~8월초에 마련하는 '2012 회당문화축제' 중 '독도 아리랑 콘서트' 현장이다.

이 축제는 진각종이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2001년부터 첫 선을 보인이래 올해 12회를 맞고 있다.

**독도 콘서트 1천여명 관람**
**풍등띄우기, 풍물공연 등 풍성**



7월 30일~8월 1일까지 열린 울릉도 회당문화축제에는 1천여명이 동참했다.

올해 축제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일원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펼쳐졌다.

7월 31일 도동항 특설무대서 열린 전야제와 울릉도 주재 군장병 및 전의경을 초청해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린 동해지킴이위문콘서트로 이번 축제는 시작됐다. 이어 본 공연은 8월 1일 저동 특설무대에서 열린 독도아리랑콘서트다. 독도아리랑콘서트는 서예가 권상호씨가 라이브퍼포먼스로 '진호국가'와 '독도아리랑' 번을 쓰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군부대와 울릉군청년단, 울릉태권도협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며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인 만큼 평화 통일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나라를 보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압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진각종의 진호국가불사 정신은 바로 창종조의 큰 뜻이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도에 이렇게 한국령이라는 글씨가 있고 태극기가 휘날리는데도 일본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동도 쪽에 50년도 넘은 포(浦)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면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역시 행사 마지막날 열린 '독도 아리랑 콘서트'였다.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무대로 문을 연 이날 공연에서는 퓨전 국악 그룹 '프로젝트 락(樂)', 비보잉팀 '플라잉 코리안', 바리톤 유훈석 등이 개성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공연의 대미는 노브레인이 장식했다. 히트곡 '미친 듯 놀자'를 부르며 등장한 노브레인은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편곡으로 '팡팡팡' '섬마을 선생님'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울릉주민 김정숙씨(45)는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섬이라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을 자주 보기 힘든 곳"이라며 "모처럼 많은 관객들하고 흥겹게 춤을 추며 노래를 들으니 더위가 싹 가셔진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즐거워 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국악관현악 · 대중음악 · 풍물공연 · 팝오케스트라 등의 공연과 독도사진전 · 독도사랑캠페인 · 풍등띄우기 · 불꽃놀이, 체험프로그램 등이 펼쳐졌다. **김주일 기자**

#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결국 법정으로

## 서초구 '市 공사중단 감사' 불복… 주민들 행정소송

서울 서초구가 서초동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해 일부 공사 중단을 요구한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불복,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초구는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2일 밝혔다. 공사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서울시의 훈계 요구에 대해서도 "향후 예상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구는 공고문에서 "현재 지하 부분 골조공사가 80% 진행된 상태이므로 처분 상대방(사랑의교회)이 입을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와 행정청의 처분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감사를 청구했던 주민들은 이에 따라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소송은 지자체가 감사 결과에 불복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주민들은 다만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 뒤로 소 제기를 미룬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 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부 장관이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의 명령에도 구가 불복하면 곧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1일 사랑의교회에 대한 구의 도로점용허가는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어 배상이나 재설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용인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신중일 기자**

# 현대적 청규 제정 시작부터 '흔들'

## 1차 회의서 위원장선출 의견 차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 중 현대적 청규 제정을 담당할 위원들이 위촉됐다. 하지만 위원장 선출은 논란 끝에 선출하지 못했다.

조계종 청규제정위원회는 7월 30일 비공개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청규위원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종회의원 주경스님, 결사본부 사무총장 원명스님, 선원수좌회 복지분과위원장 강설스님, 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문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스님, 비구니회 운영위 수석부위원장 계호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일진스님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청규제정 방향 설정, 운영방향 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선출에서 위원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간 이견에 대해 결사추진본부 관계자는 "내부회의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 "비구니 참종권 확대, 아직은 시기상조"

## 본사주지協, 22차 회의서

현재 산중총회에서 비구니 참종권은 말사 주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를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교구본사주지협)는 7월 27일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제22차 회의를 갖고 '산중총회법', '교구종회법' 개정안 등 종단 현안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본사 주지 선출을 선거를 통하지 않고 산중고유의 방식, 또는 추대 방식으로 '산중총회법'이 개정된다면 굳이 구성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며, 현행 말사 주지인 비구니가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무원에서는 재무부장 일감스님이 참석해 원로회의 결과 및 중앙종회 의장단 간담회 의견을 전달했으며,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처장 원명스님이 선거법 개정 및 청규제정과 관련한 하반기 계획을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중의학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특차모집**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40명 | • 최종학력증명-1부<br>• 최종성적증명-1부<br>• 입학신청서-1부<br>• 여권용사진-10매 |
| 석사과정 | 3년 | 1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남경대학 | 4년 | 40명 | |
| 남경부속 중 · 고등학 교 | 각 3년 | 4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수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직업의사(국제중의사) 자격 취득자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활동 가능

**3. 지원자격**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주지스님 추천자
▶ 합격자 전원 중국대학에서 수업 남경중의학대학 전원기숙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제외 : 색명, 색약, 유전(전염병)

**※모집기간 : 2012년도 8월 28일까지**

**5. 문의처**

☎ 전화 : 011-472-2782(직통)
☎ 팩스 : 02)511-2028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校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學大學)

# “생활 속 행복, 평생교육서 찾아요”

## 평생교육을 만드는 사람

### 이태호 조계사 평생교육원 기획이사



**사찰 內 평생교육원 건립**
**사회기여 · 불법홍보에 일조**
**9월부터 교육과정 본격화**
**전문 지도자, 힐링캠프 개설**

“이제는 ‘국민 총 행복지수’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단순한 재산이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 더 가치는 갖는 것입니다. ‘국민 행복’의 측정은 국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의 활력으로 이뤄지는 데, ‘도시마을 공동체’ 설립은 행복 지수를 높여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을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일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기획이사〈사진〉는 사찰 평생교육원이 지역사회의 활력과 공동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사찰 평생교육원 설립은 미룰 수 없는 숙제라는 것이다.

평생교육원의 최대 이점은 공인된 사회교육기관이라는 데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기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학점은행도 운영할 수 있다. 사찰이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가는 데 최적의 기관이라는 게 이 기획이사의 설명이다. 또한 사찰의 문턱을 낮춰 친숙하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사찰 평생교육원이 가진 장점이다.

하지만 우후죽순적인 설립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 기획이사는 지적했다. 평생교육시장에서 이웃종교와 시민단체보다 인프라가 떨어지는 불교계는 무엇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획이사는 조계사 평생대학원을 ‘마음 치유’, ‘마인드 케어’를 주제로 삼았다. 최근 부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마을공동체 사업과 학교폭력 노출 청소년, 여성 정신건강 프로그램들 역시 불교가 가지는 ‘마음 치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시마을공동체의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조계사 평생교육원은 ‘수행’을 제안했습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수행을 통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 기획이사는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교육과정들을 개설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전문 지도사 과정이다. 계획하고 있는 지도사 과정 중 마인드케어 지도사와 스트레스 관리사 과정이 가장 먼저 신설된다. 마인드케어 지도사는 마음의 관리 기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스트레스 관리사는 마음뿐만 아니라 운동, 음식을 통해 케어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이 기획이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공사 노조와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스트레스 힐링 캠프도 계획돼 있다. 향후 이런 캠프를 계층별, 주제별로 확대시킨다는 게 이 기획이사의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획이사는 전국 주요사찰에 특화된 평생교육원이 생겼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분명, 평생교육은 시대의 흐름이고 현대인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마음 산업’의 규모가 10조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구요. 정부는 평생교육을 종교기관에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불교계에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국 주요 사찰에 특화된 평생교육원이 설립되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제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치악산서 발원하는 정토세상**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 제15차 염불정진대회가 7월28~30일 치악산 자연학습원에서 열렸다. 치악산 강원도 자연학습원을 비롯해 구룡사 등에서 열린 이날 염불정진대회는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상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염불행자들이 동참했다.
첫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나무아미타불 1만독 정근, 행선염불, 촛불의식, 호마천도의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다도 공연을 비롯해 바라춤, 사물영남 농악, 찬불가 공연, 천고 · 천수북과 회향 대동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치악산 전나무 숲 명상수행도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 “BBS 민영미디어렙 선정은 종교편향”

## 대불청, 방통위 미디어렙 분류 선정 기준 해명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렙 분류 선정 기준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8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방통위의 미디어렙 법안은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공영 미디어렙인 새로운 코바코에는 민영적 성격의 매체사를 그대로 두고, 공영적 성격의 일부 종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렙에 연계시키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은 ‘특정 의도성’을 가지고 ‘행정 편의주의’를 빙자한 불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렙법은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기본 취지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코바코가 출범했다.

대불청은 “올해 제정된 미디어렙 법에 개신교와 가톨릭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허가하고 불교방송과 원불교 방송은 민영방송으로 연계시키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심지어 부산영어방송, 광주 영어방송까지도 공영 미디어렙을 허가해 주었는데 불교와 원불교 방송은 공영 미디어렙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방송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편성의 60% 이상을 선교나 포교 방송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며 “방송위가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미디어렙 선정 분류 시행 기준을 정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삼척원전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 불교생명윤리協, 삼척원전 건설 반대 성명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불교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박광서)는 7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삼척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핵발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항구적이라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류와 뭇 생명을 근원적으로 파괴한다”며 “강원도 삼척 근덕 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한반도의 마지막 청정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건설 강행의 과정에서 드러난 관제적 성격의 선전선동과 폭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삼척 원전 반대와 함께 △‘탈핵’, ‘대안에너지 정책’으로의 정책 전환 △ 청정 생태지역 강원도의 보존 △민주질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만행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 삼척대학교 교수 107명도 7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 도심에서 만나는 ‘깨달음 징검다리’

## 본각선교원, 9월 7일부터 주말단기출가 운영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신행 프로그램이 문을 연다. 본각선교원(원장 고준환 · 사진)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이용한 단기출가 ‘깨달음 징검다리’ 과정을 9월부터 신설 ·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7일과 9월 21일 두 차례 걸쳐 진행되는 ‘깨달음 징검다리’ 과정은 불교입문, 걷기 명상, 참선, 법화경 · 금강경 경전 강의, 현대과학철학, 불교와 무한수학, 시각선법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교수진으로는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본각선교원장 · 사진), 김원수 홍익대 교수(바른법연구원장), 임종록 한양대 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고준환 본각선교원장은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깨달음은 어떤 것인지 전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9월은 1,3주 두 차례 진행하지만 향후 매주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각선교원은 상설 석가대학원도 9월 1일부터 개강한다. 과목은 ‘금강경과 법화경’, ‘천문지리(풍수)’ 등이며, 김원수 교수와 고준환 원장, 김문응 한국자연지리학회장 등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마음과 수학’, ‘불교와 예술’, ‘유마경과 승만경’, ‘유불선과 한시’, ‘불교의학’ 등의 강좌도 수강생 신청 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깨달음 징검다리’의 참가비용은 10만원이며 석가대학원은 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당 5만원이다. 문의 (02)762-4848

신중일 기자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 일 주 문



### 자원봉사 참선요가 교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월 1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선요가 교실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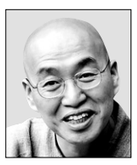
### 가족공감 캠프, 산사의 아침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8월 13~15일 마곡사 경내에서 '가족공감캠프-산사의 아침, 그리고 미소'를 개최한다. (041)841-6226



### 산사의 싱글파티 템플스테이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8월 14~15일 흥국사에서 '산사의 싱글파티 만남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2)723-5101



### 가을 불교대 신입생 모집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9월 30일까지 불교대학 1년 과정 가을 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2)587-8990



### 자비명상 강좌 과정 신설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자비명상 강좌를 진행한다.



###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40명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비는 6만원이다. (02)388-7999



### 직할교구신도회 2대 회장

조계사 지승동 신도회장은 7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직할교구신도회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 설동근 총장 황조근정 훈장



설동근 동명대 총장은 7월 18일 교육정책과 현장 교육 등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설동근 동명대 총장은 제12~14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 제2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1일 부산 동명대 총장에 취임했다. 설 총장은 교과부 등에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마이스터고 정착 및 특성화고 활성화, 5세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교육 정책, 학원법 개정을 통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을 주도했다. 설 총장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 "부처님 가피 세상에 회향하고파"

## 허유지 작가 사경전 수익금 전액 동국대에 희사해 화제



하루 13시간 사경 작업

도서기금 6700여 만원 전달

10월 뉴욕에서 회원전 예정

"저에게 사경은 기도나 다름없어요. 한 자 한 자 쓰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작업도 고행이나 다름없죠. 이런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기도를 마친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작품을 세상에 회향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취원 허유지(翠苑 許洧誌) 작가〈사진〉가 자신의 사경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7월 26일 동국대 도서발전기금으로 희사했다. 허 씨는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개인전 수익금 675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관세음보살보문품(절첩본) 작품 1점을 동국대에 기부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그는 ▷감지금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백지묵서 금강반야바라밀경 ▷홍지은니 관세음보살상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등 부처님과 선사들의 말씀을 다양한 불보살상과 문양들로 펼친 30여점의 사경작품을 전시했다. 그녀의 작품은 전시 기간 동안 전 작품 모두가 판매되며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초반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결국 전시 작품 모두가 판매되었고 집에 두었던 작품까지도 내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작품 모두가 제 손을 떠났어요. 이제 또 새롭게 할 일이 주어진 셈이에요"

그는 사경을 통해 불심을 키우고 이를 세상에 회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허 씨는 이번 기부의 취지를 이렇게 전한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틈틈이 사경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작품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통해 기부하자고 결심하게 됐죠. 또한 이번에 기증한 관세음보살보문첩은 많은 이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동국대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25도씨 이상의 기온에서만 가능하다는 금니 사경 작업을 하며 한여름을 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사경은 매일매일 새롭게 부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금니 작업은 더운 날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름 내내 이 작업에 매달리고 있죠.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완성돼 있어요. 그때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 가 없어요. 늘 이렇게 부처님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원 허유지 선생은 서예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비롯해 경인미술대전 등에서 수차례 수상했다. 특히 약 7년 전부터 대한민국 전통사경 기능전승자 외길 김경호 선생으로부터 사경을 지도받은 이후 하루 13시간씩 사경수행에 매진해 왔고 제5회 서예문화대전 사경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0월경 미국 뉴욕에서 사경연구회 회원전을 앞두고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 신촌 봉원사 수능 100일 기도 입재



태고종 신촌 봉원사(주지 일운)는 7월 31일 대웅전에서 신도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능 1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지 일운 스님은 "수험생 자녀들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마지막 남은 기간 시험공부에 진력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큰 발원을 하자"며 "자녀분들도 어머님들의 지극한 모정불심에 감화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완규조사 탄신 117주년 봉찬대제

백용성조사탄생성지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8월 1일 용성 스님의 수법제자 동헌 완규조사 탄생 제 117회를 맞아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법사단, 고문진, 회장단, 화주진, 서울, 부산, 대구, 경주 등지의 대표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동헌 완규조사를 추모하는 봉찬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체영가를 천도하는 산상기도를 했다. **김주일 기자**

## "1948년 인연이 2012년에도"

### 거북이마라톤 여는 서울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



2012년 런던올림픽 마라톤 선전을 기원하는 마라톤 대회가 지역불교계 주도로 열려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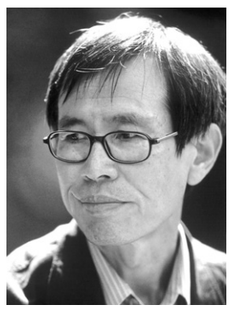
서울 개운사(주지 범해 · 사진)는 8월 12일 성북구육상연합회와 공동으로 '2012 성북구민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실시한다.

이날 대회는 1948년 런던올림픽 마라톤 선수단이 개운사에서 합숙 입소식을 가진 인연에 의한 것. 마라톤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북이 마라톤 대회로 병행 운영된다. 개운사와 성북구사암연합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연례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는 개운사 경내 운동장을 출발해 안암역을 거쳐 아리랑고개를 반환하는 5km 코스와 성북공원, 성가정입양원을 돌아오는 10km 코스로 진행된다.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은 "1948년 런던올림픽 출전 마라톤 선수들이 개운사에서 합숙을 했던 인연으로 성북구민들과 런던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게 됐다"며 "선수들이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히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27회 만해문학상 이시영 시인

### 11월 21일 프레스센터서 시상식



제27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이시영 시인〈사진〉이 선정됐다. 만해문학상을 주관하는 창작과 비평사는 제27회 만해문학상 수상작에 이시영 시인의 시집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를 선정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현실에 맞서 시대의 진실을 세심히 드러내는 동시에 밀도 높은 서정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시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만해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1월 2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 시영 시인은 1949년 전남 구례 출생으로 서라벌예대 문창과와 고려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월간문학〉 제3회 신인작품 공모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정지용 문학상, 동서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지훈상, 백석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만월〉 〈바람 속으로〉 〈길은 멀다 친구여〉 〈무늬〉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곧 수풀은 베어지리라〉가 있다. **정혜숙 기자**

## 국회직원신도회 8월 정기법회

### 조계종 기획실장 능도 스님 법사 초청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손충덕)는 8월 1일 오전 국회 정각선원에서 조계종 기획실장 능도스님을 초청법사로 8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국회 직원불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능도스님은 "불자로서 생활 속에서 항상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불교와 사찰이 노년층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 실천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2년 9월 4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 혜심 진각국사 추모제 및 학술대회

사단법인 생활불교협의회는 우리 고장 화순을 빛낸 고려후기 조계종 제2세 국사이신 혜심 진각국사 열반 767주기를 맞이하여 제6회 추모제 및 학술대회를 봉행합니다.

◐ 일 시 : 2012년 8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전남 화순 군민회관

◐ 행사내용

1부 : 진각국사 추모제 – 시간 : 오전 11시
– 집전 : 영산기능전수자 거산스님, 법장스님
점심 공양 및 음악회 – 시간 : 정오

2부 : 학술세미나_진각국사의 생애와 사상 – 시간 : 오후 1시
▲발표자 – 이희재 교수(광주대학교) : 진각국사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치
– 최성렬 교수(조선대학교) : 진각국사의 간화선
– 정상기 교수(호남대학교) : 진각국사의 선시
▲토론자 – 원응 큰스님(백양사 장로)
현불 큰스님(생활불교협의회 총재)

◐ 주 최 : 사단법인 생활불교협의회
◐ 후 원 : 화순군, 화순군 의회, 디지탈 화순

문 의 : 010-3693-5543



봉녕사 경내 탑 주변에 앉아 포교국장 의천 스님과 명상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의천 스님은 죽비소리를 내며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라는 화두를 참가자들에게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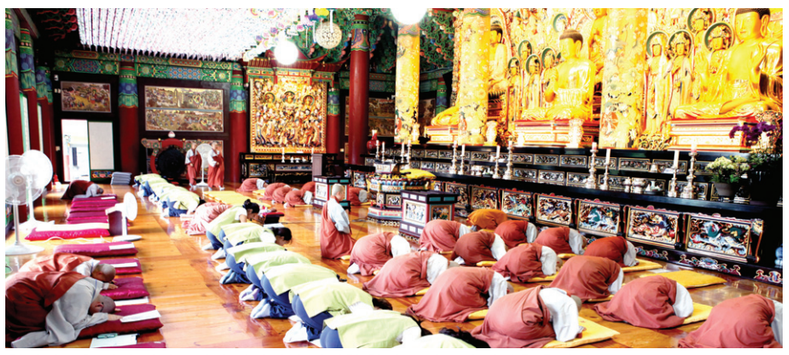
참가자들이 맨발로 걷기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발우공양 오게송을 읊고 있는 모습



지옥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종의식 체험모습



참가자들은 매일 새벽 · 저녁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과 예불을 올렸다.

# 청정한 스님의 삶 통해 '소욕지족' 알았어요

## 봉녕사, 재가여성 '단기 출가' 템플스테이 체험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이 껍데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말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스님들께 감사드린다."(최재은 · 21세)

"평소 비구니 스님들의 삶은 지루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왜 존경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이윤선 · 27세)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 좋았다.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임명숙 · 58세)

7월 31일 오전,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 우화궁 법당에서 눈물과 웃음이 터져나온다. 20~60대로 구성된 20명의 여성불자들이 4박 5일간 단기출가를 하면서 느낀 소감들을 나누고 있다.

최초 비구니 율원으로 비구니 계율의 상징이 된 수원 봉녕사가 여성 재가자를 대상으로 7월 27~31일 단기출가학교를 연 것. 이곳에 기자도 함께 참여해 비구니 스님의 삶을 체험했다.

### 속세와 연(緣)을 끊다

7월 27일 첫날, 20~60대 여성들이 하나 둘 씩 모였다. 혼자 온 대학생, 휴가를 내서 온 직장인, 엄마와 함께 온 딸, 마산 · 부산에서 온 사람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4박 5일간 우리를 이끌어줄 봉녕사 포교국장 의천 스님, 도생 · 법성 스님이 나눠준 법복과 고무신을 신고 우화궁 법당에 올라가 입재식을 가졌다.

주지 자연 스님은 입재식에서 "4박 5일간 단기출가를 통해 왜 삼보를 존경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지 스님들의 삶을 통해 배우길 바란다"며 "봉녕사 승가대학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과 새벽예불도 드리고 법공양도 들으며 출가의 삶을 천천히 따라하면서 신심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양간으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 사찰음식연구소를 운영하는 사찰이어서인지 저녁공양은 사찰식 떡볶이, 튀김만두, 산채나물 등 다양한 메뉴로 준비돼 있었다. 맛있는 저녁공양 후 입적하신 묘엄 스님의 감각과 손길이 곳곳에 묻어난 도량의 경내를 둘러보니 마치 리조트로 휴가를 온 기분이었다. 이렇게만 4박 5일을 보낸다면 사찰에서 보내는 것도 참 괜찮겠다 싶었다.

참가자들은 이후 의천 스님에게 수계식 습의를 받은 뒤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했다. 속세와의 연(緣)을 끊고 진정한 출가자의 삶이 무엇인지 느끼기 위해서다. 곧이어 9시가 되자 모두들 우화궁 대법당에서 취침에 들었다.

### 스님들의 삶 따라해보기

새벽 3시, 사찰 내 타종소리에 도반들이 일어났다. 평소 자고 있을 시간에 눈을 뜬다는 것이 고역이었다.

학인 스님들이 조용히 줄을 지어 대웅전인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우리들도 곧 뒤따랐다. 새벽예불을 본 뒤 곧바로 팔관재계 수계식이 진행됐다. 팔관재계란 8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며, 수련회 기간 동안 언행을 삼가며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봉녕사 금강 율원장 적연 스님이 계사 스님으로 계를 내리며 "(팔관재계를 수지하면) 마음에 문이 열려 밝아지게 된다. 이것이 세간을 뛰어넘는 올바른 인연이 되는 것이므로 그 무한한 공덕은 다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60대 20명 재가여성**
**핸드폰 등 반납 5일 출가**

도반들은 만의(縵衣)를 입고 계사 스님에 따라 팔재계를 암송했다.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존중하겠습니다. 만족함을 알고 남을 위해 베풀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겠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밝은 지혜로 바른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귀금속장신구를 하거나 화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거나 호화로운 방석과 침상을 쓰지 않겠습니다. 때 아닌 오후에 먹지 않겠습니다."

4박 5일간 우리들은 귀고리 등 장신구와 시계도, 매일 하던 화장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핸드폰과 전자기기 모두 내려놓은 채 일정한 계율에 따르기를 약속했다. 이제 계를 받은 행자가 된 것이다.

잠깐의 휴식과 아침공양 후 의천 스님의 도량안내가 있었다. 이후 곧바로 적연 스님의 다도명상시간. 적연 스님은 선차음다법을 소개했다. 눈은 차의 빛깔을 보고, 코는 차의 향기를 맡으며 입으로는 차 한모금을 머금고 청량한 기운을 느끼라고 한다. 차 한잔에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적연 스님 말씀에 열심히 내 욕심들을 내려놓아본다.

곧이어 발우습의시간. 의천 스님은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낸다.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나 생각하면서 공양하길 바란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모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와준 모든 분들을 축원하면서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가자들은 직접 밥과 찬을 나누고 조심스럽게 공양을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양을 하다보니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도반도 있다.

이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의 소참 법문이 진행됐다.

도일 스님은 "현대인들이 괴로운 이유가 남들과 비교해서다. 불교의 소욕지족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행복의 원천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공이다. 팔관재계는 나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자기발견 시간, 나와 내 주변인과의 고민과 갈등을 의천 스님이 짝지어준 도반과 이야기를 나눴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경청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다.

청소운력 및 세면 후 도반들과 학인 스님의 법고 · 대종의식을 지켜봤다.

"법고는 날짐승을 제도하고 대종은 지옥중생을 제도하고 목어는 바다 속 중생을 제도합니다." 의천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다시 새벽 때처럼 학인 스님들이 줄지어 대적광전으로 저녁예불을 드리러 올라간다. 우리도 따라갔다. 예불 뒤 경전독송과 포행 · 명상 · 불교요가가 이어졌다.

**8가지 팔관재계 수지 행자**
**"모든 생명 보살피고 존중"**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오후불식의 법을 따르니 배가 고프고 머리가 띵해진다.

### 스님의 삶과 출가인식 바뀌어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 전날처럼 새벽예불을 올렸다. 이후 대법당으로 돌아와 108염주를 조성했다.

내가 만든 염주를 목에 걸고 도량 바깥으로 걷기명상을 떠났다.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오로지 내 마음, 이 순간에만 집중한다. 이후 봉녕사 학장 도혜 스님의 강의가 진행됐다. 스님의 출가 인연담을 들었다. 9세에 동진출가한 스님은 행자생활이 힘든 줄 모르고 아무 의심도 없이 무조건 믿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다고 한다.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사량을 짓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나아가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해봤다.

다담과 자유명상 후 마하연 사찰음식문화원 원장 우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가 진행됐다. 가지열무김치, 애호박두부양념찜, 깻잎감자전을 시연해 보였다.

"사찰음식은 수행식 · 감사식 · 평등식"이라고 강조한 우관 스님은 "장은 담근지 3년이 지나 사용하고 효소는 발효 후 5년이 지나야 쓸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두고 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효소를 담그며 배웠다"며 사찰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사브리나코치 강의, 자현 스님의 사찰문화 강의 등을 듣고 마지막날 계를 반납하는 환계식을 가졌다.

이후 회향식에서 자연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출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수지한 팔재계를 통해 자기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향날이 되자 참가자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감돌았다. 계율지키기와 발우공양, 묵언과 명상수행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었던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졌다.

4박5일이라는 시간동안 이들의 마음에는 불교에 대한 희망, 스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나를 찾고자 하는 발심의 씨앗이 새겨졌다. **수원 봉녕사=이나은 기자**

사진제공=봉녕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ƒ×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ƒ×27cm
④ 약쑥초 밀대 4.7ƒ×25cm
⑤ 약쑥초 1호 5.9ƒ×18cm
⑥ 약쑥초 2호 5.9ƒ×14cm
⑦ 약쑥초 3호 4.7ƒ×13cm
⑧ 약쑥초 4호 4.7ƒ×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ƒ×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ƒ×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ƒ×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ƒ×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ƒ×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ƒ×27cm
④ 밀납초 밀대 4.7ƒ×25cm
⑤ 밀납초 1호 5.9ƒ×18cm
⑥ 밀납초 2호 5.9ƒ×14cm
⑦ 밀납초 3호 4.7ƒ×13cm
⑧ 밀납초 4호 4.7ƒ×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ƒ×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ƒ×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ƒ×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ƒ×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청소년 불자 특강으로 세상과 소통해

### 청소년위한 여름강좌 풍성
### 정체성 · 진로 탐색 기회 가져


최근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과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강좌가 늘고있다. 사진은 목동청소년수련관이 바리스타 직업교육과 특강을 실시한 모습이다. 수련관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자료제공=목동청소년수련관)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밀린 공부를 보충하거나 다음 학기 교과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험생들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한 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최근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다양한 특별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진로교육과 체험교실이 늘어나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계 위탁시설인 수련관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직업 소개 및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진로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관장 공재만)은 서울시지원으로 지난 7월 14일~8월 4일 매주 토요일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로개발 특강을 실시했다.

공무원, 증권, 사회단체, 가방 디자이너, PD, 제약회사, 대기업 임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직업인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직업 소개와 각 분야 전망, 직장문화, 입사준비 등에 대해 강연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고, 능력을 갖췄는지 자가진단의 기회로 삼고 장래의 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로청소년수련관 측은 "학업 외에 자신의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멘토를 학생들이 원하는 것 같다"며 "과거에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흥미, 직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민지(18) 양은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해 사회에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역시 '전문가와의 만남' 진로특강을 개설했다. 중 · 고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9월 8일 오후2시 '항공승무원'과 첫 만남을 갖게 된다. 또 11월 17일에는 보건분야 전문인과의 만남이 진행된다.

대구달서구 청소년지원센터(소장 서영우)는 9월 8일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강사로 나서 '우주인 고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8월 6~7일 중 · 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전공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미래를 향한 두드림, 꿈을

**인문소양 함양 및 가치관 정립**
**미래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름방학 맞아 특강 참여 높아져**

위한 Do Dream'을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각 전공 교수들과 선배가 멘토로 참여했다. 또한 영화 '블라인드'의 안상훈 감독, 김태원 Google 차장 등이 특별 명사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진로에 대한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이밖에 불교를 통한 인문학강좌도 진행돼 눈길을 끈다. 춘천시립도서관은 8월 30일까지 '청평사와 강원지역의 불교문화'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도서관 내 2층 회의실에서 강연을 갖는다. 이번 인문학 강좌 강사는 강원대 사학과에 출강하는 홍석익 강사가 나선다.

홍 강사는 ▷불교미술을 말하다 ▷청평사가 갖는 불교문화와 그 특징 ▷도내 불교문화와 그 특징 ▷역사학과 구비문학의 출동, 어떻게 풀 것인가 ▷강원지역의 태실(胎室)과 부도(浮屠)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강연한다.

또 청소년의 인문학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끼고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한 교육공동체나다는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권력'이란 주제로 여름특강에 나섰다. 연세대 자치도서관 위당관에서 8월 10일까지 실시되는 강좌는 서양사, 철학, 인문학 등을 통해 우리시대 권력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제13회 한국잼버리 불교관 운영

### 포교원 한국잼버리 불교연맹 참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강원도 고성에서 8월 2~8일 6박 7일간 열린 '제13회 한국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해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90주년을 맞아 '숲을 따라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한국잼버리 대회에는 미국, 홍콩, 태국, 대만, 일본 등 약 50여 개국의 어린이 · 청소년들 1만여 명이 참가해 ▷글로벌 리더십 양성 ▷개척과 협동정신 배양 ▷한류문화의 이미지 창출 등 청소년들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잼버리 대회에 불교연맹으로 참가한 포교원은 약 25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불교관 및 전시관 등을 상시 운영하고 불교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단주만들기, 인경, 목탁습의, 사경, 108배, 연꽃컵등 만들기, 찬불가 배우기 등 다양한 불교활동이 마련됐다.

포교원 전법지원팀 측은 "이번 잼버리를 통해 어린이 · 청소년들이 불교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불교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포교 활성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아줌마들 남편 기살리기 운동 나서

### 불교여성개발원 아줌마들 위한 인문학 교육 진행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남녀 역 평등현상으로 발생하는 가족문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아줌마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남편 기 살리기 홍보대사 교육'을 주제로 ▷결혼 大 사기극 ▷나는 누구 ▷참만남 카드놀이 ▷가족갈등극복 사례 ▷NLP 대화법 ▷보통 남자의 직장생활 ▷가정경제이해 ▷가족주식회사 ▷남편 기살리기 실천교육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한다.

강연에는 김용숙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표, 설기문 심리학 박사, 윤영민 종로구청 평생교육과 과장, 황영옥 (주)토닌 대표, 유은희 어가행렬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8월 29일~10월 17일 매주 수요일 오후2~5시 총7회에 걸쳐 진행되며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나부터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는 생각으로 가정해체 예방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여성불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불교여성개발원 2013년 1월 5일부터 8일간 인도 바이샬리에서 열리는 제13차 샤캬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를 앞두고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22-2101

이은정 기자

## "청소년 고민상담 절에서 해결하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을 도와주는 불교명상캠프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는 지난 7월 27~29일 '제10차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명상캠프는 사춘기 시절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우관계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을 불교적 상담과 명상을 통해 치유 · 극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첫날 개회에 이어 ▷명상과 호흡법, 오감명상, 수식관, 걷기 명상 등 불교 명상체험 ▷마음작동 모델 설명, 감정 · 생각 · 갈망 탐색하기, 최근 불편한 경험 탐색 등이 진행됐다.

이어 마지막으로 관찰된 고민의 치유를 위한 ▷소멸(영상관법), 역할극, 세계 속으로, 나의 장점 확인하기,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등이 실시됐다.

지오 스님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생활과 학교폭력에 대해 분노와 감정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싶다"며 "향후 부모와 학교 교사들이 같이 참여해야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참가한 청소년에게는 캠프에 참가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한 스트레스 검사가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김철민(가명 · 19) 군은 "역할극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고민들


무안 봉불사 청소년 명상캠프 모습

듣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며 "앞으로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가면 여러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교우관계를 넓혀가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제13회 산사에서 만나는 수행 · 상담 워크숍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이 8월 25~26일 서울 마포 성림사에서 '제13회 산사에서 만나는 수행과 상담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첫째 날인 25일에는 입재식에 이어 김준형 비커밍연구소 소장의 '자아실현과 통합의 길'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 불교상담심리사 미니포럼에는 ▷조계사상담심리 혜타 스님 ▷자살예방센터 광용 스님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26일에는 면접상담, 사이버상담사례 등이 발표된다. 참가는 불교상담심리사 및 일반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02)737-7378

이은정 기자

## 동화사 법화산림 대법회 봉행

대구 동화사(주지 )가 8월 22~31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매일 오후 2시 '동화사 법화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승가대학장 무비 스님 ▷중앙종회의원 청원 스님 ▷통도사 강주 역임 우진 스님 ▷조계종 고시원장 지안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선지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역임 수진 스님 ▷자성과쇄 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용선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 ▷자비선사 회주 지운 스님 이 법사로 나선다.

이은정 기자

## 비로선원 유식학 강좌 개설

중관사상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대표적 사상인 유식학 강좌가 마련됐다.

서울 목동 비로선원(주지 광명)은 초보불자들이 유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8월 28일~12월 18일 매주 화요일마다 주간과 야간반으로 나눠 유식학 강좌를 진행한다.

주간반은 오후 2~4시, 야간반은 오후 7~9시이다. 강의는 주지 광명 스님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참가비는 13만8000원이며,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경우 50%할인 받을 수 있다. (02)2646-9441

이은정 기자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 도 모 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탁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각자님 환영합니다.

일월조계종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종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종비 없습니다.
■ 출가 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 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

공고
사)한국불교조계종
제8대 총무원장
입후보 등록 및 선거관리위원 소집

■ 일 시 : 2012년 8월 13일 (월) 15시
■ 장 소 :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백봉사)
■ 문 의 : 대표전화 1577-1016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선거관리위원장 능혜 합장

# 폭염에 지친 어르신 '무더위 쉼터' 찾으세요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시, 도가 나섰다.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이 쉴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한 것.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9월 30일 까지 운영된다.

전국에는 3만7218곳의 무더위 쉼터가 있다. 가까운 무더위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 등 각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을 돕는 재난도우미도 추가 확보됐다. 전국 6만9247명의 도우미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노인돌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폭염이 예상될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과 동행해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경기도는 폭염대책 전담팀을 운영해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 특수구급대 운영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대처에 나선다.

불교계 복지관도 폭염에 대비한 사업을 진행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지역 내 독거노인 6874명에 대한

**복지관, 경로당 등 쉼터로 운영**
**전국 3만 7218곳 9월 30일까지**
**불교계 복지관도 폭염대비**
**보호자 선정 등 지원사업 다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폭염대비 특별보호대상자 517명을 선정했다.

복지관은 광진구청과 함께 대상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돌보미와 재가관리사 등 총 64명을 폭염재난도우미로 지정, 폭염 특보 발령 시 수시로 독거노인들을 방문, 건강상태 확인 및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전하고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취약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새봄 성북 하온(夏溫)하우스'를 진행한다.

복지관은 10월 31일까지 여름기간 동안 모기장설치, 전자파리채 배부, 방역약품 살포 등 질병예방사업을 실시하며 배수로정비, 침수피해 가정지원, 차광막설치 등 폭우폭염 지원사업도 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 · 경기를 비롯한 대구 · 부산 등 불교계 복지시설 등도 '무더위쉼터'로 선정돼 시원한 안식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측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자치구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냉방기를 미리 가동해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입구에는 간판을 부착하여 누구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9월 30일 까지 운영된다. 더위를 피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쉬고 있는 어르신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무더위 건강보호 9개 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한다. 운동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한다. 수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염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도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이 좋다.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한다.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한다.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해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한다.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를 이용한다.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한다.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적응시간을 확보한다. 또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끼면 즉시 휴식한다.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핀다. 노인과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있으면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는다.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한다.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춘다. 시원한 물을 섭취토록 한다.(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승마스쿨'

## '말'과 교감통해 안정감 OK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장애청소년의 신체적 · 심리적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승마교실 '승마스쿨'을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매주 금요일 마다 진행하고 있다.

재활승마(therapeutic riding)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을 매개로 한 동물치료인 재활승마는 신체회복반응 향상, 평형감각 유지, 심폐기능과 근력강화 효과가 있다. 또한 심리적인 효과로 주의집중력을 높이고 동물과 교감을 함으로써 장애아동 청소년의 재활치료에 효과가 있음은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장애청소년의 신체적 · 심리적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승마교실 '승마스쿨'을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매주 금요일 마다 진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한국마사회(KRA) 수원지점(지점장 길영필)으로부터 체험비 전액을 후원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한 복지관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개별 아동에게 필요한 발달과제에 알맞게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감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말과의 교감활동은 아이들의 따뜻한 친구가, 아동들의 다양한 표현을 받아주는 상담자가 돼주고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며 동반자가 돼주고 있어 인기가 많다.

집중력이 저하된 아동에게는 실습위주의 학습으로 집중력 향상을 도울 수 있다. 또 말을 탈 때 기다리는 시간 등을 조절해 인내심을 가르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잘 훈련된 승용마를 아이들이 사용할 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나이와 레벨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면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

수안 스님은 "실제로 아이들은 약 10회기의 승마체험 후에 자존감 및 자신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장애청소년들에게는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수원 KRA PLAZA는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보다 질 좋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여러 대상층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31) 201-8311 이나은 기자

## 사지마비 · 뇌출혈로 쓰러져

### 생명나눔 8월 치료비지원 선정환자



사지마비 · 뇌출혈 진단을 받은 성 원씨는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

성 원(48세 · 남) 씨는 대학 졸업 후 20년간 인쇄 · 광고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들과 딸,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성 원 씨는 뇌출혈로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절망스러웠던 성원씨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우울증 까지 얻게 됐다.

남편의 발병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재활을 돕는 부인은 전과 다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진 남편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많이 울었다.

그러나 대학생 딸과 함께 적극 간병하자 남편의 닫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성원씨는 재활치료사들과도 친해질 정도로 밝은 성격을 되찾았다. 가족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며 치료 의지를 불태운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악화된 경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전직장에서 4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성원씨가 1년 가까이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모아 놓은 통장잔고도 텅 비었다. 자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도 1200만 원이 넘는다. 친정 부모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재활의지가 높아서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더디지만 나아질 수 있다 한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 1억여 원 난치병 어린이 지원

### 조계종 복지재단 3000배 철야정진 기금전달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각 지역 사찰에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연한 1억여 원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했다. 사회복지재단은 7월 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2회 국내 · 외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 기금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약 1억997만원이 전달됐으며, 기금은 34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쓰일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중증 구순구개열과 청각장장애를 앓고 있는 전민성(1) 군이 대표로 참여했다. 전 군은 이미 4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도 수차례의 수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전 군의 아버지 또한 청각장애인이며, 필리핀 출신 어머니는 안과질환을 앓고 있어 이들 가족은 다문화 기초수급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3000배 철야정진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 작지만 환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하루빨리 건강이 완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동참이 이어져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베트남 세종학당 기공식

**12월 12일 낮 12시**

베트남에 한국형 복지교육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국제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오는 12월 12일 낮 12시(현지시간)에 세종학당 기공식 갖는다.

국제연꽃마을은 "국제연꽃마을 대표단은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 측 한국형사회복지시설 건립위원회(위원장 탐키 시장)와 협의하고 세종학당 기공식을 갖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7월 22~26일 베트남 탐키시청 회의실에서 탐키 시장과 부위원장 등 현지 대표단과 함께 국제연꽃마을 베트남 현지 활동승인과 NGO 법인 설립 등 국제관례상 필요한 행정적인 상호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나은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br>※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 14주 과정<br>토요일 반 |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봉은사 특별강연
김희옥 동국대 총장

# 불교의 '공동체 평화' 추구는 곧 준법 정신

1968년 동국대에 전체 수석 입학한 경북 청도의 한 청년 꿈은 법조인으로 활동한 뒤 모교에 돌아와 불자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1972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30년 넘는 법조인 생활 이후 그 청년은 교단에서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가 바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다.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는 7월 29일 법왕루에서 김희옥 동국대 총장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무비, 고우, 진화, 도일 스님을 모시고 선교율법회를 진행하는 봉은사는 5주차 달에 한번씩 사회 저명 재가불자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마지막 일요 강연에는 봉은사 신도회장 김종빈 前 검찰총장이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봉은사 신도인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나의 불교 생활과 불교적 가치 구현'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무부 차관 등 법조계 생활 동안 겪었던 사연들과 그 과정에서 삶의 원동력이 됐던 불교와의 인연을 전했다.

정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 29일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의 불교생활과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경청했다.



**김희옥 총장**은 … 1948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68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전체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72년 동국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재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지검, 대구지검, 서울지법, 수원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생활을 거치고 2005년 9월 법무부 차관,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다. 2011년 2월부터 동국대 제17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 1968년 뚝섬 봉은사와의 첫 만남

저의 불교생활에 비추어 '나의 불교생활과 불교적 가치 구현'이란 주제는 다소 거창하다고 생각드네요. 먼저 개인적인 신행생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경북 청도서 나고 자라며 부모님을 따라 운문사, 대비사 등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습니다.

봉은사와 인연은 196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국대 수석 입학 이후 서울대 서돈각 박사님과 함께 봉은사를 찾았습니다. 당시 봉은사에는 법정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동국대에 톱으로 들어온 학생'이라는 제 소개를 들으시고는 '톱은 나무를 잘 썰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허 스님 '금강경' 법문에 감동**
**절에서 고시 준비하며 수행**
**삶의 굴곡마다 스님들 조언**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으로 공직생활하는 동안 강남지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봉은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사찰에서 사법시험도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다시 손자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살인 손자를 데리고 오니 절분위기를 무서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처음 절에 오면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 데리고 오면서 절 분위기에 습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탄허 스님 강연 듣고 불교서적 탐독

본격적인 불교와의 인연은 동국대에 입학 한 이후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 별은 왜 반짝이는가' 등 철학적 고민을 할 나이에 접한 불교는 일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됐습니다.

동국대에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1968년 월정사 탄허 스님이 동국대에서 30일동안 〈금강경〉을 주제로 법회를 했습니다. 탄허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의 전신인 대학선원 선원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아시다 시피 탄허 스님은 매 법회 때마다 강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당시 저는 탄허 스님의 강연을 듣고 '아! 이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님의 강연으로 인해 본격적인 불교공부에 나섰습니다. 당시 청담 스님의 삼보법회를 비롯해 갑사 등을 다니며 수련대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다니며 쌓은 사상편력은 제가 부처님 연기 사상을 확실히 믿고 이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법 시험을 준비하며 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양주 회암사, 청계산 청계사, 해인사 홍제암 등을 다니며 고시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절에서는 예불 참여하고 참선도 해야 공부를 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수행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더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시험 합격 이후 한 잡지사에서 합격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정진에 들며 한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서 일어나지 않으니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각오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격기에 썼습니다.

그 이후 공직생활을 하며 수시로 절을 찾고 여러 스님들께 삶의 굴곡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통영 검찰청에 있을때는 용화사 일각 스님이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근일 스님, 회암 스님 등에게 화두를 받고 수선안거에 들기도 했습니다.

또 막스 밀러라는 19세기 철학자이며, 인도사상가의 '하나의 종교만을 알면 어느 종교도 모르는 것이다'는 말에 자극받아 대학 시절 성경, 코란 등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 불교 가치 사회 구현에 불자들 나서자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에 구현되는 것은 모든 불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불교가 사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자들의 바램을 넘어 사회의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가신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고행과 쾌락을 피해야 합니다.

**삼보 귀의 · 연기법 믿고 따르는**
**불자적 삶은 헌법가치 실현**
**사회갈등 치유에 불자 나서자**

다.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들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연기법에 대한 철제한 믿음에서 모든 행이 시작돼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목표는 고통 해결입니다. 모든 것이 고의 해결이 목적입니다. 불자는 존재론에서는 연기법을 철저히 신뢰하고 고를 소멸시키기 위해 일대중대사로 노력하는 사람,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행방법은 참선, 기도, 사회봉사 등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불교의 생활화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충돌입니다. 무인도에 홀로 사는 로빈슨 크루소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며 그 존재에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다행히 사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칙인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법으로부터 인정받는 종교의 자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 포교와 교육 등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현대사회의 자유주의는 근대에 들어서며 종교의 자유가 획득됨으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언론의 자유 등이 종교 자유에 이어 뒤따라 온 것입니다. 법제도에 의해 존중받는 종교의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공통적으로 추구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 진선미 등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준법정신의 발현입니다. 그 정신 아래서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자유, 종교평화 등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회 평등을 실현하고 계급사회를 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동체 안의 평화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현대사회의 사회규범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헌법정신입니다.

헌법가치는 우리 사회의 공동가치를 높이며 개개인의 가치를 살리고 있습니다. 불자로서의 삶이 곧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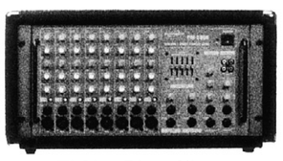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갈등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사회 불만족도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들지만 개개인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집단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사회갈등을 수습해가는 것이 불자들이 나서야 할 길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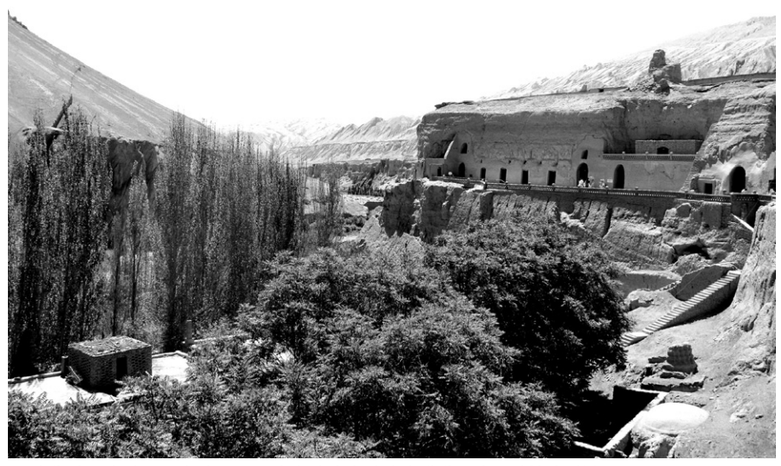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중앙아시아 불교 현장 탐사 활발

### 고려대 한국사硏 7월 섬서사범대와 실크로드 조사
### 금강대 불문硏 8월 HK사업 일환 돈황석굴 조사
### 동국대 불문硏 중점 연구지원 사업서 교류과정 조명


고려대 한국사 연구소의 실크로드 현지 탐사가 시작된 베재클리프 사원의 천불동

1000년 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구법을 위해 험난한 길을 걸었던 한국의 스님들이 있었다. 이들의 품에는 단지 불경뿐만이 아닌 한국의 문화가 있었다. 이들이 걸은 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 동서통상로(東西通商路)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불교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소장 정태헌)는 7월 30일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실크로드 현지조사를 완료했다.

고려대 조사단은 중국 우루무치 투루판의 베제클리프 천불동을 시작으로 교하고성 인근 아얼호 천불동, 슨금구석굴, 토욕구석굴, 바이시하얼 천불동 등을 정밀 조사하고, 특별 허가 지역인 잉판의 누란고성과 미란고성에 대한 전면 현지조사를 최초로 병행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사막에 묻힌 라와크 불교사원 유적지를 답사하고 서역 남로의 요충지였던 호탄 지역을 탐사했다. 공동 연구기관인 섬서사범대학에서 공동 연찬을 통해 조사 분석을 진행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올해 3월 시작한 연구사업은 현지조사 외에 문헌조사도 병행된다. 법현의 〈법현전(法顯傳)〉, 현장(玄奘) 〈대당서역기〉, 혜초 〈왕오천축국전〉 의 번역 오류 검토작업이 진행된다. 한국사연구소는 10월 12~14일 학술세미나를 통해 중간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는 12월 진행된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정산 스님(경국사 주지)은 "우즈베키스탄 함자대학, 중국 서북민족연구소, 실크로드연구소, 북경대 종교연구소 등과 교류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9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도 2011년부터 우즈베키스탄학술원 예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카라테파 유적 발굴 조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석굴, 지상 건물지, 탑으로 이뤄진 초기 불교사원의 가람 구조가 발표돼 학계를 놀라게 했다. 카라테파 유적은 인도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한국으로 이어진 전파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카라테파 조사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남부에서 분포현황을 조사하며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크로드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불교계에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중국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소와 교류협정을 맺고 실크로드 지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를 주제로 한 HK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이 연구에서 불교문화연구소는 16박 17일 동안 실크로드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금강대는 8월 중 2차 실크로드 현지조사를 돈황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도 200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일환으로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연구' 2012년부터 3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단계 '아시아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에서는 동북아 외 다른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불교문화가 연구 조사됐으며 제3단계 '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와 한국불교의 현대적 모색'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불교문화 교류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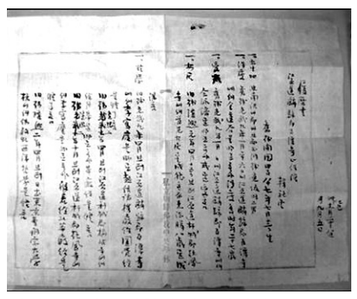
한지연 금강대 HK교수는 "실크로드 지역은 불교의 동방 전래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와 문화의 해외 전파 또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국내서는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라며 실크로드 지역 연구를 통해 역사, 철학, 문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만해 스님 명진학교 단기과 졸업 의혹

### 한상길 교수, 불교평론 학술세미나서 친필이력서 공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7월 27일 만해학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이동인과 만해: 근대불교의 개화(開化)와 유신(維新)'에서 연구논문에서 만해의 친필이력서를 소개했다. 만해의 친필이력서는 2009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으나 연구논문을 통해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해 스님의 중앙학림 친필이력서

한 교수는 "이력서를 살펴보면 1918년 12월 사립조선불교 중앙학림(동국대의 전신) 강사에 임용되며 제출한 이력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력서에는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주승(住僧)' 등 만해 스님의 이름과 생일, 출생지, 득도, 수계(受戒), 안거(安居), 수학(修學), 경력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한 교수는 이날 학회에서 "기존 학계에는 만해가 1906년 초에 근대학문을 배우고자 신식학교인 명진학교의 보조과 단기과정을 졸업했다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만해가 직접 작성한 친필 이력서에는 명진학교 입학 경력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명진학교 입학이 사실이라면 중앙학림의 전신이 명진학교였으므로 중앙학림에 강사로 부임하기 위한 이력서에 그 입학 경력을 적는 게 상식일 텐데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 연구논문에서 조선 말기 승려 이동인과 만해의 삶과 사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근대의 격동기에 등장한 두 사람은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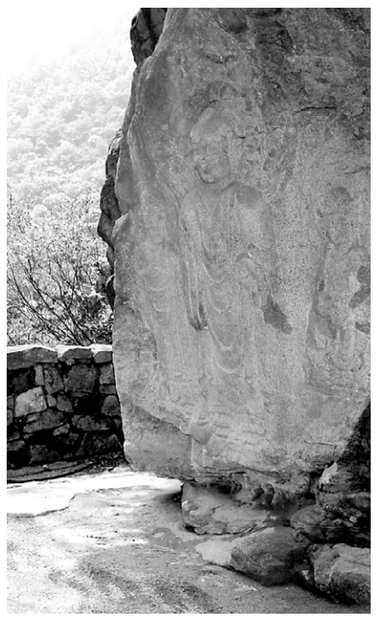
## 문화재 누림 32선 중 불교문화재 13곳

### 문화재청, 가족 수학여행지 추천 공개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최근 교과서 속의 문화재와 역사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문화재 누림 가족 수학여행지 32선'을 선정 · 발표했다.

가족과 함께 전국 시도별 주요 문화재를 여행할 수 있는 일정으로, 강화의 '단군왕검에서 근대 유적까지 역사가 숨 쉬는 섬 여행' 등 문화유산 해설사 등 70여 명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추천한 32곳이 소개됐다.

이중 불교관련 문화유산은 △강화 전등사-광성보 △여주 신륵사-세종영릉 △평창 월정사-상원사 △충주 덕주사 마애불-미륵리 사지 석불 △부여 정림사지-고란사 △서산 개심사-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부안 내소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 △영주 부석사 △경주 석굴암-불국사-감은사지 △부산 태종대-범어사 등 13곳이 이름을 올렸다.


개심사와 함께 추천받은 서산마애여래삼존불

문화재청은 "이번 선정한 가족 수학여행지 32선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문화재 누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정지 32곳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문화유산을 만나는 9가지 특별한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 삶과 죽음 통해 생명 공존 탐구

### 제1회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 8월 11일 '삶, 죽음, 공존' 주제로
### 노르웨이 · 대만 등 5개국 학자 발표
### 제35기 호스피스교육 수료식도 열려

"21세기 우리는 스스로 죽고 죽이고 나만 살면 된다는 초 이기주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명 경시풍조를 세계 5개국 석학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인간과 뭇 생명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이사장 능행)은 8월 11일 12시 서울대 수의과대학 스코필드 강당에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및 생명포럼을 개최한다.

'삶, 죽음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제1섹션 '삶, 죽음' △제2섹션 '공존을 위하여' △제3섹션 종합토론 △특별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섹션에서는 존 두얼리 캐나다 칼튼대 교수, 장익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치앙흉 싸이 대만 나우아대 교수가 발표한다.

제2섹션에서는 헤이드 레간저 크록스태드 노르웨이 오솔로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잡 코즈함사담 인도 즈나나디파 디드야피스 대 총장, 아키라 고토 일본 난잔대 교수가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재영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위덕대 불교대학원, 정토마을 자재병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별행사로 한국불교호스피스 협회의 제35기 불교전문호스피스교육 수료식도 봉행된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이사장 능행스님은 "5개국 석학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생명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외규장각 의궤 대구박물관 전시

외규장각 의궤가 대구 지역에 선보인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은 9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외규장각 의궤와 조선왕실 혼례이야기'를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 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를 통해 왕실 혼례 행렬의 전체모습을 재현했다.

전시는 1부 '외규장각 의궤', 2부 '조선왕실 혼례이야기'로 나눠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왕실 행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일요일 수첩만들기, 부채만들기, 일월오봉병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노덕현 기자



# 11개 종교 스카우트 지도자 한자리에

## 제4차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엄 개최
## 25개국서 종교 지도자 300여 명 참가

25개국 11개 종교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카우트 활동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월 1~5일 익산 원광대 일대에서는 제4차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엄이 '가족과 종교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스카우트 활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계스카우트 행사 중 하나인 이번 행사에는 불교, 원불교, 가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유태교, 그리스정교, 말일성도교, 바하이교, 시크교, 대한민국 민족종교 등 25개국 11개 종교 지도자 및 스카우트 지도자 297명이 참가했다.

8월 1일 원광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항복 세계스카우트연맹 의장,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정세현 원광대 총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전북에는 73곳의 종교 성지가 있을 정도로 다양성이 공존·융합해온 종교화합의 상징적인 도시다"며 "올 11월 전북에서 열릴 '2012 세계종교순례대회' 참석을 비롯해 '2014 한국잼버리대회'와 '2023 세계잼버리대회' 전북 유치에도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포지엄 기간에는 세미나, 워크숍, 각 종교성지탐방, 스카우트 모범 사례발표 등을 통해 스카우트 활동이 각 종교의 이념과 어떻게 접목·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종교가 주는 심리적 안정을 토대로 청소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결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원광대 숭산기념관 앞에서 이뤄진 종교박람회에는 12개 종교관이 마련돼 행사 참가자들이 각 종교를 체험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줬다. 또 행사기간 동안에는 다도와 선(禪에) 대한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이밖에 청소년 종교캠프는 심포지엄에 동반한 청소년들과 한국의 대원들을 위해 4박5일 동안 여수엑스포 견학 및 선체험관 등에 참여해 한국의 문화와 멋을 체험하고 상호 교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5일간 이어진 행사기간 동안 김제 금산사, 전주 전동성당, 익산 신광교회 등 각 종교 성지탐방과 전주 한옥마을도 방문했다.

김덕영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 나라의 종교사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스카우트에서 종교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8월 1일 제4차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엄이 원광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25개국 11개 종교 스카우트 지도자들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엄은 3년마다 개최되며 2003년 가톨릭 주관으로 스페인에서 처음 열렸고, 2회는 불교 주관으로 대만, 3회는 이슬람교 주관으로 우간다에서 각각 치러진 바 있다.

스카우트는 166개국 3600만명의 회원을 가진 청소년 국제기구로 유엔의 자문기관, 세계은행 및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의 자문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청소년들의 심성과 영적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행사를 주관한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은 4년마다 세계잼버리 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원불교 종교관을 운영하는 등 원불교의 포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교는 6월 스카우트연맹을 창단해 불교의 세계화 등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어린이 전용 수행 공간 마련 하고파"

## 광주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
## 30년 넘게 어린이포교 매진

1980년대 광주지역에서 어린이법회가 열린 사찰은 23군데였다. 현재 광주에서 어린법회가 진행되는 곳은 2~3군데에 불과하다. 1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에서 불과 2~3개 사찰만이 어린이 포교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어린이는 나라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기둥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입니다. 때문에 어린이 포교는 불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사진〉은 "이는 광주만이 아닌 한국불교 미래의 어두운 자화상"이라며 포교의 당위성에 대해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다양한 여름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나무숲(이하 '나무숲')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생태학교와 청소년 지리산 마음캠프, 자연따라 마음따라이다.

나무숲 대표를 맡고 있는 무등 스님은 천룡사에서 7월 31일~8월 2일까지 어린이 불교학교를 진행했다. 무등 스님의 어린이 포교는 지난 1980년대 초에 시작됐다. 당시 광주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와의 인연으로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왔다.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있었다. 지도교사들의 모임을 갖고, 자체적인 연수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연꽃동네'라는 교재를 광주지구 자체적으로 만들어 어린이 법회 교사들과 공유한 것이다."

그 후 무등 스님의 어린이 포교 인연은 전국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소임을 맡으면서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당시 어린이 법회는 워낙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여름불교학교에는 당시 군법당이었던 무각사에서 500~6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기도 했다. 10년 가까이 시민회관에서 각 사찰 어린이 법회에서 마련한 장기자랑 잔치인 '어린이 연꽃잔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불무회'를 조직해 매월 정기모임과 함께 활발한 교류활동도 진행했다."



하지만 2012년 광주 어린이 포교는 이전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몇 군데 불교단체와 사찰에서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불교학교가 개설되는 것이 전부이다. 무등 스님은 "위기가 기회인 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어린이 법회를 만들고 포교활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사 확보와 재정확보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몇 개의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가 개설되면 자연히 지도교사들의 교류확대와 정보공유가 뒤따르고 다양한 협력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어린이법회의 성공은 곧 청소년, 대학, 청년부로 이어져 선 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무등 스님은 여름이면 어린이 행사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지경이다. 그런 스님에게 바람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 마련이다.

스님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불교 수행를 하고 다른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인간적인 교류와 사회성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주시,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나서

## 전통사찰 표지판 31일까지 정비
## 관광객의 눈높이 맞게 제작돼

전주시에 소재한 문화재 안내판과 전통사찰 표지판이 8월 31일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전주시(시장 송하진) 측은 "전통사찰을 비롯한 문화재 안내판이 각양각색이며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색상으로 제작돼 있는 것이 많아 문화재의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몇몇 안내판에는 오탈자와 훼손된 곳이 많다"며 "관광객의 시선과 높이에 맞추어 정확하면서도 쉽고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고산성 방향의 전통사찰 및 방향표시 안내판은 노후 된 곳이 많아 전면 정비에 나설 방침이며, 진입 골목마다 설치한 개별 안내판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다.

김신 문화경제국장은 "안내판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정비될 예정이다. 이번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계기로 전주시가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문화재는 국가지정 14곳, 도지정 34곳, 전통사찰 11곳 등 60여 개소의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이중 문화재가 위치한 장소 안내 표지판 및 문화재의 정보전달을 위한 설명 안내판 등 70여 개가 설치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 서겠다

## 혜심 진각 국사 열반 767주기 추모제 및 학술대회

조계종 제2세 국사인 진각국사 추모제가 전남 화순에서 개최된다. (사)생활불교협의회(회장 대현)는 8월 13일 화순군민회관에서 '혜심 진각 국사 열반 767주기 추모제 및 학술대회'를 연다.

진각 국사 탄생지이기도 한 화순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추모제(영산기능전수자 거산 스님, 법장 스님)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학술대회에는 ▷진각 국사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치(이희재 광주대 교수) ▷진각 국사의 간화선(최성렬 조선대 교수) ▷진각 국사의 선시(정상기 호남대 교수)등의 주제발표와 원응 스님(백양사), 현불 스님(생활불교협의회 총재)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 준비위원 대현 스님은 "진각 국사는 화순을 대표하는 가장 큰 어른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는데 미흡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대중화 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혜심 진각 국사는 고려 중기의 국사로 지눌 스님의 제자로 수선사 제2세가 돼 지눌 스님의 뒤를 이어 간화선(看話禪)을 크게 떨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북 카페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기"

##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아름향 book-cafe' 개관

"이제 북 카페로 오세요. 이곳은 좋은 책과 마음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지난 7월 26일 복지관 1층에 송광나눔드리작은도서관 '아름향 book-cafe'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고 스님, 도제 스님,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동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본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도서와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민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여가생활 형성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한 북카페는 광주시 지원금 1700만원으로 총면적 76.72㎡에 열람도서를 비치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 부산불聯, 행정·재정 투명화 앞장선다

## 재무행정 · 사업조직국 2국 체제, 사무총장 부회장 겸임

"행정과 사업 이원화를 통해 포교활성화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며 공개입찰제도와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불교계의 재정, 행정투명화를 이끌겠습니다."

사회의 종교계에 대한 행정, 재정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불심수도 부산에서 재무행정 투명화 등 변화의 바람이 드세다.

부산시불교연합회는 7월 27일 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제11대 집행부 출범에 따른 변화와 향후 부산불교발전 비전에 대한 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불교연합회는 기존 1국 체제의 사무국을 2국 체제로 개편하는 등 부산불교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시불교연합회는 향후 기존 1국 체제의 사무국 조직을 재무행정국과 사업조직국의 2국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무국 총책임자인 사무총장도 부회장 겸임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또 봉축기간에 일시 운영돼 온 봉축기획단이 상설기구로 전환된다.

먼저 부산시불교연합회는 종무행정지원센터를 개소해 회원사찰의 종무행정 지원과 회원사찰 배가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부산불교 원로위원회와 부산불교최고지도자 회의를 신설해 지역불교 현안에 종단을 초월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지역 행사에서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과 재무상황 공개도 진행한다.

부산시불교연합회의 이러한 변화는 부산지역에서 최근 교세를 넓히고 있는 기독교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불교연합회는 YMCA와 YWCA의 사업을 연구하

**종무행정 지원센터 개소**
**행사업체 공개입찰 도입**
**기부금 현금영수증 발급**
**수행 맞춤형 특별강좌 개설**

는 한편 이들의 사업이 불교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로 했다.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부산시불교연합회 사무실에 기자실을 운영해 언론 소통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 기존 포교프로그램과 함께 수행자를 위한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훼불과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불교사랑 119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조직 구성에는 기획위원장에 심산 스님, 교학위원장에 성암사 주지 응현 스님, 포교위원장에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문화예술위원장에 삼광사 대명 스님, 복지위원장에 운수사 주지 유정 스님, 언론대외협력위원장에 해광사 주지 혜성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규정위원장은 범석심인당 효원 정사가 맡는다. 위원장 7직 모두 도심포교도량 주지 스님이다.

박용하 사무국장은 "향후 승가와 재가가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부산불교 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어린이 여름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입재식에서 다섯가지 은혜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다.

##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우리'

### 제34회 청도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는 7월 27일 청도 운문사 만세루에서 제34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입재식을 개최했다.

'항상 마음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큰 은혜' 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 어린이 250명이 참석해 나라, 부모, 스승, 친구, 시주의 은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섭존자', '목련존자' '아난존자' 등 6개 반으로 나뉜 학생들은 아침예불, 108배, 발우공양 등 불교 의식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체험했다.

특히 학인 스님들은 '우리는 꽃이다' 등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율동을 선보여 작은 감동을 선사했다. 또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학생회에서 특별히 마련한 '부처님의 일대기' 공연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행사 인사말에서 "부처님 품안에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에서는 학인 스님 전원이 동참했으며 여름불교학교 출신 55명이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운문사에는 여름불교학교의 인연으로 5명이 출가하기도 했다. 운문사는 1개월 전부터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2박 3일 동안 운문사의 일체 일정이 여기에 맞춰질 정도로 여름불교학교 행사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총괄한 능현 스님은 "운문사 어린이여름불교학교는 아이들이 사찰에서 자연학습과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불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구서 전국 찬불가 대회 열린다

대구에서 전국 규모의 찬불가 경연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보현사 신용협동조합과 한국불교음악인협회는 찬불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10월 21일 대구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가족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독창과 가족중창, 중창 등 세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대상팀에게 상장과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총 1400여 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회 조직위는 8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9월부터 지역별 예선을 치를 계획이다.

한편 전국 찬불가 경연대회는 9월 15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광주지역은 9월 22일 광주 무각사에서 예선이 치러진다. 서울에선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예선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10월 6~7일 대전 동학사문화원서 예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은적사 여름숲속학교 개최

대구 은적사(주지 허주)는 7월 28일 비슬산 여름캠프 '은적사 여름 숲속학교' 입재식을 개최했다.

은적사 숲속학교에는 53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80여 명이 참가해 발우공양, 새벽예불을 비롯한 참선 및 포행 힐링캠프 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날 은적사 주지 허주 스님은 인사말에서 "각자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동료의식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신흥사 불교교양대학 수계법회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7월 30일 속초포교당 원각사에서 '신흥사 불교교양대학 수계법회' 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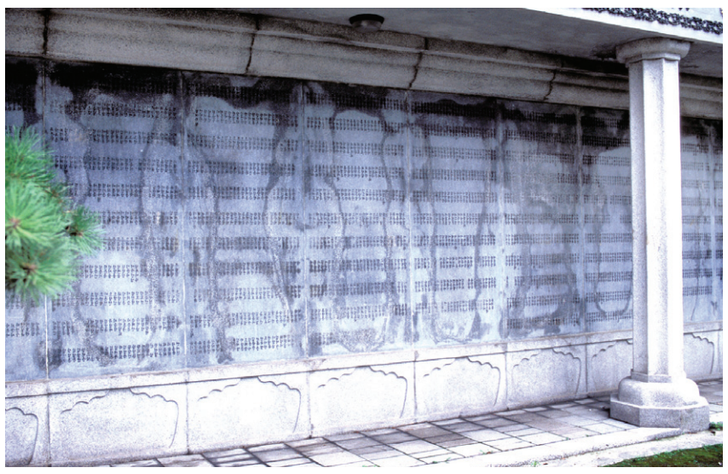
불교교양대학 수료식을 겸해 열린 이날 법회는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이 수계사로 나서 130명의 불교교양대학 수료생들에게 오계를 전했다.

법회에는 지난 4개월 동안 개근한 19명의 재학생에게 108염주가 기념으로 전달됐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수계식 법문에서 "수계의 공덕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곁으로 가는 훌륭한 배에 오른 만큼 더욱 정진해 무상대도를 이루시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벽면을 빼곡히 채운 보시자의 이름과 금액. 보시흔적을 자랑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을 기본 미덕으로 하는 풍토가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사진은 서울 ㅂ사찰 벽면에 적힌 보시자 명단.

## 복 빌고 상 내는 보시

보시의 본뜻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널리 베푼다' 라는 의미이나, 일반적으로는 사찰에서 행하는 불사에 신도들이 재물을 내놓는 일로 이해한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기본 조건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르치셨다. 보상을 바라면 그것은 이미 보시를 행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오염되어 본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속인들에게 있어서 보시는 자신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원인으로 전락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지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보시가 다른 이들에게 아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된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보시행을 실천해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신라시대에 살았던 김대성도 그중 한 사람이다.

김대성은 종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살았지만 탁발을 온 스님에게 땅을 보시한 후, 좋은 집안에 다시 태어나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는다. 보시의 힘이 발휘된 아름다운 사연이다.

불교는 보시를 기본적 에너지로 삼아서 발전한다. 그것은 불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건물 상량문이나 불상의 복장, 탑에 모셔진 발원문을 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불사를 성취하게 된 보시 인연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 보시의 흔적이 품위 있게 간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신사를 보면, 줄지어 세워놓은 석등이나 담장을 두른 석주 하나에도 시주한 사람의 이름 혹은 보시금의 액수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기가 보시한 흔적을 드러내 놓고 자랑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기본 미덕인 것처럼 여겨진다.

최근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범종 겉면에 빼곡히 적어놓은 시주자의 이름, 탑의 기단부 상대중석이나 석등의 간주석에까지

**불구에 새겨진 시주자 이름**
**무주상 보시 제대로 알자**

새겨놓은 시주자 이름을 보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석수조에도 그것을 만든 시주자의 이름을 크게 새겨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주상보시의 정신은 보시한 사람의 이름을 구태여 드러내지 않아도 그 보시의 아름다운 인연이 복전을 일구는 힘으로 연결된다는 연기법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 불자들은 그러한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른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불사를 주관하시는 스님들이 무주상보시의 참뜻을 손수 실천하고 신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때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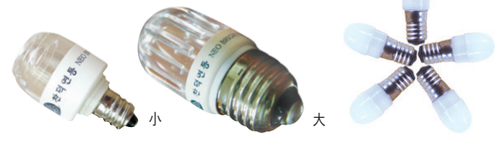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너도나도 산과 바다로 피서지 선택에 여념이 없다.
차량들과 사람들로 빽빽이 들어찬 도심을 떠나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싶지만
전국의 유명 피서지도 복잡하긴 매한가지다.
휴가지 찾기가 고민이라면 한적한 사찰에서
休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권할만 하다.
매년 이맘때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집필에 여념이 없는
불교계 여행 작가들이 추천하는 사찰을 찾아보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화순 쌍봉사



"화순 쌍봉사는 1974년 소설을 쓰기 위해 처음 찾은 사찰입니다. 인적이 드물어 조용한 사색이 필요하다면 이 곳을 찾곤 합니다. 절 분위기가 마치 바람조차 쉬어가는 티베트 고원의 사찰들과 같습니다."

순천 송광사(松廣寺) 말사인 화순 쌍봉사 계열의 사찰이지만 당시 사세가 번창했던 구산선문의 사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쌍봉사를 창건한 도윤(道允) 스님이 사자산문의 기초를 닦아 영월 법흥사가 이를 계승해 구산선문을 이루었다.

쌍봉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화순에서도 오지에 속한다. 주변에 숙박할 만한 곳이 드물 정도다.

찾아가는 길

화순읍에서 능주방면으로 이양으로 간 후 금릉리 삼거리에서 보성 복내 방면으로 가는 818번 지방도를 따라가면 쌍봉사가 나온다. 다른길로는 이양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가면 매정1구 삼거리 방면에서 좌회선 후 직진하면 된다.

**"조용한 사찰에서 차분히 앉아 차 한잔 하심이 어떨런지요"**



〈행복한 선여행〉
정찬주 작가

## 봉화 청량사



"청량사 주변 명일천에서는 지금 이맘때면 은어가 잡힙니다. 그만큼 물이 깨끗한 곳입니다. 주변에는 연꽃 잎처럼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청량산은 12개의 봉우리의 층암절벽이 펼쳐지는 등 자연경관이 뛰어납니다."

봉화 연화봉 기슭 한 가운데 연꽃처럼 둘러쳐진 꽃술 자리에 자리 잡은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송광사 16국사의 끝 스님인 법장 고봉선사(1351-1426)에 의해 중창된 천년 고찰이다. 창건 당시 승당등 33개의 부속 건물을 갖추었던 대사찰로 봉우리마다 자리잡은 암자 에서는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청량산을 가득메웠다고 한다.

찾아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영주IC에서 봉화방면으로 향한 뒤 봉화삼거리에서 다시 영양 봉성 방향으로 우회전 후 11km 가량 명호강 강길을 따라 가면 청량사 이정표가 나온다.

**"가족과 함께 물놀이, 트레킹도 하고 사찰도 참배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여행 42〉
유철상 작가

## 진도 쌍계사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찰입니다. 아울러 신라 고찰의 역사성도 잘 간직한 명찰이죠. 산사의 고즈넉함과 생동감 넘치는 바닷가의 멋과 맛이 조화돼 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사찰입니다."

대흥사 말사로 신라 문성왕 19년(857년)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쌍계사는 절 양편으로 계곡이 흐른다해 쌍계사라 불린다.

쌍계사가 위치한 진산은 진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산의 난대림은 쌍계사천년상록수림대로 천연기념물 107호로 지정돼있다. 양 계곡 물이 모이는 사천저수지는 진도에서 최초 수원지로 방생지이기도 하다.

찾아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IC에서 77번 국도로 진도에 도착하면 쌍계사 이정표가 나온다. 부산 방면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IC에서 나와 2번 국도로 강진방면 다시 18번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

**"바다와 산의 정취와 어우러진 절의 참 맛을 느낄수 있죠"**



〈우리절을 찾아서〉
신대현 작가

## 곡성 관음사



"곡성 관음사는 심청이 설화가 얽혀있는 사찰입니다. 사찰 앞에 작지만 깨긋한 개울이 흘러 물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고향집 같은 편안함, 또 맑고 향기로운 차 한잔이 떠오르는 사찰입니다."

곡성 검장산(劍藏山)계곡에 위치한 관음사는 화엄사 말사로 관음도량이다. 사하촌 이름도 관음마을로 내륙 관음사 중 대표적인 관음사찰이다. '곡성 관음사는 항상 연락부절(連絡不絶, 왕래가 잦아서 끊이지 않음)이다' 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왕래하였다고 전해진다.

관음사는 〈심청전〉의 원류로 추정되는 원홍장 설화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찾아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옥과IC에서 화순 동북 방면 15번 국도를 따라가면 효공원이 나온다. 심청이의 효심을 알리기 위한 공원인데 이 공원 왼편으로 203번 지방도를 따라 5km 성덕산 방면으로 들어가면 된다.

## 고창 문수사



"고창 문수사는 작은 절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찰입니다. 특히 문수사 옆 신기계곡은 물놀이도 함께 할 수 있으며 트래킹 데크가 만들어져 있어 가족, 또는 연인들이 산행을 하기에도 좋은 사찰입니다."

고창 선운사 말사인 문수사는 의자왕 4년(644년) 신라 자장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귀국하는 길에 고창 지역을 지나다 당나라에서 수행하였던 청량산과 같은 느낌을 받아 이곳 석굴에서 7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기도 중 땅 속에서 문수보살이 나오는 꿈을 꾸어 그곳을 파보니 커다란 문수보살입상이 나와 절을 세우고 문수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고창IC에서 21번 국도를 따라 영광방향으로 내려가면 고수면 소재지가 나온다. 그 곳에서 문수사 이정표를 따라 가면 조산 저수지가 나오며 조금 더 지나면 문수사가 나온다.

## 가평 현등사



"가평은 교통을 비롯해 관광 편의시설이 잘 돼있는 곳입니다. 운학산은 경기 금강산으로 불릴 정도로 산세가 좋습니다. 근심이 없다는 무우폭포와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머물렀다는 사적 등에서 불교문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말사인 현등사는 신라 법흥왕 때 인도승 마라가미(摩羅訶彌)가 신라에 와 그를 위해 절을 창건하고 산 이름을 운악산이라 한 데서 유래한다. 이후 고려 효공왕 2년(898년) 고려가 개성에 도읍을 정할 것을 미리 한 도선 대사가 동쪽이 허해 보진할 땅을 찾다 운악산 옛 절터를 보고 중창했다고 전해진다. 조선 중기 서경덕(徐敬德)의 부도 등이 있다.

찾아가는 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톨게이트에서 퇴계원 방면 국도에서 서파 교차로까지 직진 후 현리 방향으로 우회전 8km 진행하면 현등사 이정표가 나온다.


#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와 교육 ㊦

# 이웃과 자연 서로 의존… 미래성찰 교육

### 자연과 이웃을 위한 성찰적 인간형

생태주의 교육은 경쟁을 강조하면서 학벌과 학력을 쌓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에 반대한다. 더불어 협동하며, 자신의 지식과 정보, 능력을 남을 위해 이용하도록 하고, 이웃과 자연, 미래세대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인간,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며 모두 서로 의존하며 산다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 그에 기반한 행동과 삶을 살도록 전인 교육을 하는 것이 생태주의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최근 군산 동국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주지 종걸 스님과 대화 하다가 스님이 거창고등학교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창고는 세계적인 지휘자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보낸 학교로 유명하다. 대안교육을 주창해 온 전교조운동의 주요핵심 임원 대다수가 이 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이야기다.

거창고는 1953년에 설립된 개신교학교이다. 즉 미션 스쿨인 셈이다. 미국서 유학하고 돌아온 전영창 선생이 큰 뜻을 품고 가난한 시골학교를 오늘의 명문사립학교로 올라서게 만들었다. 물론 여기서 명문사립이라는 뜻은 한 학년에 120명 중 1/4이 서울의 명문대를 가는 학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2012년 현재 200여개가 운영중인 대안학교의 역사속에 홍성 풀무학교, 영산성지학교와 더불어 맨 앞을 장식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교훈 이외에 매일 아침에 외우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학교를 더 유명하게 만든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훈' 이다.

### 거창고 직업선택 10훈이란?

10훈의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학벌사회를 역행하는 지침이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잘 쓰이도록 하라는 말이다.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 째는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다. 이는 경쟁서 이기고 계층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위로만 출세하려는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다. 어느 곳에서든 새 영역을 개척하고 시대를 여는 모험을 서슴치 말라고 한다.

다섯째는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고 한다. 이 사회의 유행과 흐름을 쫓지 않고 사람이 없는 새로운 영역을 위해 투신하라고 한다. 여섯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 일곱째는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 여덟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다.

그런데 정말 기가막한 것은 다음이다. 아홉째로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다. 이 교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고 마무리한다. 강력한 교훈이다.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벤쳐(Venture 모험)를 원하지만 부모나 배우자들은 그저 순탄히 남이 가는 보장된 길로 가길 원한다. 그러니 부모나 배우자들이 원하는 삶은 사회에서 바라는 삶이 아니다. 따라서 모험적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나 가족들이다. 이 교훈은 그러한 강력한 반대를 거침없이 뚫고 자신만의 길로 자신있게 가라고 한다.

**현재 한국 대안학교 200여 개**
**거창고, 대표적 대안학교**
**'거창고 직업선택 10훈' 유명**
**학교출신들 사회곳곳서 두각**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교훈이다. 이 교훈을 매일 낭송하는 학교다보니 이 학교 출신들이 사회곳곳서 활약과 두각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학교가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개신교인 '고신' 파지만 오히려 가장 열려있는 학교여서 이 학교출신 중에 종걸 스님외에도 출가하신 분이 꽤 여럿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 학교에서는 출가한 스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요청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 홈스쿨링, 방과후학교… 다양한 대안교육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이미 200여 곳이 넘는다. 초기 부적응학생을 위한 학교라는 인식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입학을 위해 3:1 또는 4:1의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대안학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2012년 하노버 교육박람회에 참가한 발도르프 학교 코너에서 학생들이 수공예 실습을 해보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수공예와 예술활동을 중시하는 세계 유수의 대안학교다.



영국의 대안학교 '섬머힐 스쿨' 전경. 일본 역시 이들의 교육 취지를 받아들여 '기노쿠니 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놀이와 창조, 체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준다.

이 대안교육의 전례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A.S 닐이 설립한 영국의 '섬머힐' 학교가 있고, 일본서 섬머힐 학교의 취지를 이어 받아 설립된 '기노쿠니 학교' 가 있다. 이들은 놀이와 창조, 그리고 체험을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학교이다.

그리고 또 유명한 대안학교로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해 시작된 '발도로프학교' 가 있다. 슈타이너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신적 변화과정에 맞춰 고유성과 개성에 따라 교육하고, 수공예와 예술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좋은 자연과 환경과의 접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방과 본보기를 통해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유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은 학교교육 밖에서 실험되는 학교를 소개한 것이지만, 이외에 학교자체를 거부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안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학교' 라는 인식을 벗어나려는 것이다. 실제 현재와 같은 공교육, 학교교육 이전에 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시해왔다. 이것을 근대적인 학교가 떠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보다 훨씬 오래된 교육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월에 창간된 대안교육잡지 '민들레' 를 중심으로 '홈스쿨링' 은 크게 확대되는 중이다. 최근 미국에는 속세에 물들지 않는 기독교육을 위해 홈스쿨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 역시 종교적 이유나 조기영재교육의 일환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영국 '섬머힐' , 일본 '기노쿠니' 등**
**놀이 · 창조 중심 대안학교 인기**
**가정 · 공동체교육 홈스쿨링 관심**
**지역기반 평생교육 활성화 필요**

이외에 방과후대안학교의 모델이 있다. 또한 제도권 학교자체를 대안적으로 변환시키는 혁신학교로 최근에 유명한 성남 남한산초등학교를 비롯해, 고양시 덕양중학교를 필두로 경기도만도 71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진보적 교육감이 선출되 곳을 중심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 23곳, 광주 4곳, 강원 9곳, 전북 20곳, 전남 30곳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의 폐해를 극복하며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시도이지만, 그것이 결국 학벌과 학력사회를 극복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은 또 다른 형태의 대안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육아는 2010년 현재 전국에 약 61개가 있고, 51개의 방화후교실등이 있다.

이외에도 새로게 시도되는 교육으로써 '산촌유학' 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산촌이나 농촌에 아이들을 보내 그곳의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방과후에는 오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도 있고, 농가에서 홈스테이 행태로 머무르면서 방과후, 토, 일요일 모여서 진행하는 교육도 있다. 도시에서 자연을 잊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연속에서 체험과 경험을 위해, 제도의 학교교육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촌유학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경쟁의 교육서 인간에 대한 교육으로

이제 모든 대안적 교육은 곧 지역의 일꾼 지역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과거 풀무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20-40%를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 학교는 지역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지키며 지역을 가꾸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의 반영이다. 물론 아직 한국에서는 현실성이 적지만,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 지역학교일때는 커리큘럼도 지역의 역사, 지역의 지리, 지역의 전설과 인물탐방 등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깊이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의 환경조건속에 배우지 못할 곳은 없다.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한 평생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실제 최근에 곳곳에 많은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훈에는 세상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하고, 세상의 이익을 쫓지 말고 오히려 거슬러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사서 고생하는 길, 주변이 반대하는 길에도 의심없이 가라고 가르치는 학교이다. 창조적 소수의 개척, 봉사, 희생정신이 깃들어 있다. 생태교육은 환경교육이 아니다.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생태교육인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 · 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 “내 죽음은 전생 업보…더 이상 윤회 없네”

## ② 신통제일 목건련目犍連

〈하〉전법과 열반

신통제일 목건련은 전형적 행동형 수행승이었다. 그는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승가를 수호하며 교단을 정비하는 등의 역할을 해낸다. 이 과정에서 그의 신통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불교는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 호법 신장으로 교단 정비

녹자모 강당 포살 현장에서 목건련은 청정하지 못한 대중을 골라내 호법신장의 역할을 한다.

동원림 녹자모 강당에서 포살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동참한 비구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이가 있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 가운데 계목을 설한다면 이 사람은 일주일 후에 머리가 깨질 것이 분명했다. 밤이 되어 초경이 될 때까지도 부처님은 계목을 설할 것을 허하지 않았다. 시자였던 아난존자가 나섰다. “비구들이 계목을 암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은 계속 침묵하셨다. 아무리 지나도 부처님의 침묵은 계속 되었다. 아난존자가 세 번째 청을 올리자 결국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다. “회중이 청정하지 않다”

이 말씀 한 마디에 목건련은 그의 신통력으로 승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승가 가운데 계를 지키지 않고, 나쁜 성품을 지니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비밀리에 행하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고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탐욕의 마음이 흐르고, 청정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어나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도반이여, 일어나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대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비구들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침묵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구에도 그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침묵하고만 있었다. 목건련은 결국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아 바깥으로 끌어내고 문 빗장을 잠궈버렸다. 그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 제가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회중은 청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계목 암송을 허락해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이 포살을 준수하고 계목을 암송하라. 오늘부터 나는 계목을 암송하지 않을 것이다. 여래가 청정하지 못한 회중에서 계목을 암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법과 율에 대해 비유의 법을 설하신다. “큰 바다는 점차 기울어지고 점차 비탈지고 점차 경사지지, 갑작스럽게 절벽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바다의 첫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법과 율에는 순차적인 공부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 닦음이 있다.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음이 없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첫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 천상에서의 전법

부처님은 상황에 따라 초월적 능력으로 먼 거리에서 제자들을 도왔다. 목건련 역시 부처님의 신통을 통해 수행의 난관을 극복하기도 했다. 〈쌍윳다니가야〉 목건련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가 명상 중에 아직 제거되지 않는 미세한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셨다고 한다. 부처님은 신통의 힘을 통해 지혜 곧 바른 앎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한다.

“목건련이여! 첫 번째 선정을 게을리 하지 말라. 첫 번째 선정을 마음에 확립하라. 첫 번째 선정에 마음을 통일하라. 첫 번째 선정에 마음을 집중하라” 목건련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선정에 들어 ▷무한의식의 세계 ▷아무 것도 없는 세계의 마음 확립 ▷지각하는 것도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삼매에 도달했다. 목건련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스승의 도움으로 광대한 초월적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목건련은 천상세계를 방문해 신들에게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참 모임에 귀의할 것을 설한다. 한 때 목건련은 싸밧티 시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있었다. 그때 팔을 굽혔다 펴는 잠깐 사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신들의 제왕 제석천은 오백 명의 천상인들과 함께 목건련을 맞았다. 목건련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다.

“신들의 제왕이여,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참 모임에 귀의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뭇삶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목건련은 부처님에 대한 귀의를 이렇게 표현한다. “신들의 제왕이여. 부처님은 참으로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길들이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존귀한 님**
**불법은 삶에 유익한 가르침**
**승단은 가장 훌륭한 복 밭”**
**이교도에 전법…이교도가 살해**




그림 · 김흥인

이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세상의 존귀한 님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어 그는 승가의 귀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훌륭하고 정직하게 현명하게 실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참모임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복밭입니다”

### 열반, 교단 최초의 순교자

신통력으로 여러 세계를 방문한 목건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교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악처에 태어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의 이런 믿음이 전법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교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되고 이교도의 신도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 중 육사외도의 한 사람이며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니간타 문하의 고행자들이 목건련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니간타 고행자들은 라자가하 근처 잘라실라 마을에 거주하는 자객들을 매수하여 목건련의 살해를 사주했다. 자객들은 목건련이 머무는 수도원을 포위하고 두 번이나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신통력으로 이를 막아낸다. 하지만 끝내 그도 그들의 압박을 당해내지 못했고 심한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의 폭력을 당하게 된다.

목건련이 누구던가? 수미산을 강낭콩처럼 으깨버릴 수 있고, 지구를 손가락으로 돗자리처럼 둘둘 감을 수도 있고, 지구를 옹기장이의 물레바퀴처럼 돌릴 수도 있는 신통제일 아니던가? 오만한 제석천에게 무상함을 일깨워주고자 신통력으로 궁전을 흔들어대기도 했던 그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교도에게 살해를 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죽음을 앞둔 목건련은 죽마고우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게 내 전생에 지은 과보 때문이네. 전생에 부모님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야. 모든 게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

전생에 그는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듣고 눈먼 부모를 수레에 태워 숲속으로 데리고 가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이 악업으로 그는 무수한 세월동안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깊이 참회해 전생부터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했지만 그 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태어날 때마다 처참한 죽음을 당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죽음으로 더 이상 과거의 업장에 끄달리지 않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뜻이기도 했다. 부처님은 무수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함부로 신통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샤카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목건련이 신통력을 써서라도 샤카국을 지키고자 제안했지만 부처님은 이를 거부하셨다. “샤카국 사람들이 쌓은 업의 과보를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신통력이라도 업으로 인한 과보는 지울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잡아함경〉 포살경에는 사리불과 목건련, 두 제자를 잃은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전해진다. “내가 대중을 관찰해보니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것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성문(聲門)들 중에 오직 이 두 사람만이 능히 잘 설법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변설(辨說)하기를 만족스럽게 행했었다. 재물에는 돈재물과 법재물 두 가지가 있다. 돈 재물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했었고 법재물은 사리불과 목건련으로부터 구했었지만, 여래는 이미 세간의 재물과 법의 재물에서 떠났구나. 그렇다고 너희들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떠났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이어 부처님은 두 사람의 죽음을 나무에 빗대어 설하신다. “비유하면 큰 나무의 뿌리 · 줄기 · 가지 · 잎 · 꽃 · 열매가 무성한 데서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는 것과 같고, 보배산에서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여래의 대중 가운데서 사리불과 목건련이라는 두 대성문(大聲聞)이 먼저 열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생긴 법 · 일어난 법 · 지어진 법 · 만든 법 · 무너지는 법으로서 어떻게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하여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이제 자기(自)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상수 제자 둘을 잃은 부처님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춘다의 공양을 받고 식중독으로 열반에 이르시게 된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독을 없애고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죄의식을 가질 춘다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춘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응당 그대의 마지막 보시 공덕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어 듣는 이로 하여금 오랫동안 안락을 얻게 하라”

결국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불치병을 신통력으로 치유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비록 병에 걸려 죽음을 맞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죽음과 병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생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신 것이다. 목건련 역시 최선을 다해 부처님의 제자로 살았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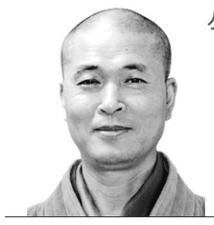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법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감 찰 부 장** 서암 (부산 만덕 약수사)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내려 놓아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용마루와 대들보와 서까래와 기둥이야."

학승이 말했다. "학인은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두공(斗拱)은 차수(叉手)하고 있지만 알지는 못해."

問 如何是萬法之源 師云 棟梁椽柱 云學人不會 師云 拱斗叉手不會

용마루와 대들보와 서까래와 기둥은 집을 짓는데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집을 대표한다. 조주 스님이 용마루와 대들보와 서까래와 기둥이 근원이라고 말한 것은 집의 중심이 이들이듯 만물도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근원이라고 비유로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만물의 중심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도(道)다. 그러면 도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만물이다. 그러므로 조주 스님이 집이 근원이라고 말한 것을 단순히 비유라고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집도 도이기 때문이다. 집은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다. 사람은 집에서 자고, 휴식하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한다. 사람은 집을 의지해서 만사를 지으므로 집은 삶의 근원이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결합체이다. 몸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쓰려면 몸을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마음이 의지하는 집이다. 집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나 몸이 없으면 마음의 존재는 없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만약 몸을 중시하고 마음을 방치한다면 도가 없다. 몸을 방치하고 마음을 중시해도 역시 도는 없다.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수행이다. 마음의 근원은 몸이고 몸의 근원은 집이다. 몸이 의지하는 집은 만물의 근원이다.

지붕을 받쳐주는 긴 가로 목을 대들보라고 한다. 이 대들보를 수직으로 받쳐 들고 있는(拱) 4각으로 된 작은 조각나무가 있는데, 마치 양 손목을 붙이고 양손으로 대들보를 받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두공(斗?)이다. 혹은 마루의 가로 목을 세로로 받쳐 들고 있는 나무를 두공이라고도 한다. 두공은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라야 진정한 선(善)이 된다. 우주 만물은 서로서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학승이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려놓아라."

問 一物不將來時如何 師云 放下著

방하착에 대한 법문이다. 이 법문은 유명한 법문이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은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다. 따라서 무념 무심(無念無心)이 진실에 합당한 마음이고 무심하면 행복에 이른다.

학인이 대무심을 얻어 한 물건도 세우지 않았을 때는 어떠하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뜬금없이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내려놓으라니,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인가?

선(禪)을 말하는데 말이나 명자(名字)를 빌려서 표현하면 즉시 틀려진다. 말이나 명자가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과 명자를 떠나서 진실 그 자체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과 맛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행동으로 보인다 하여도 틀린다. 행동 역시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행동이 진실의 뜻을 담고 있을 때는 가능하다.

한 물건도 내세우지 않는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경계가 어떠냐고 질문할 것도 없어야 한다. 한 물건도 없다면서 어찌 의심하는 그 놈은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조차도 내려놓아라. 그래야 정말 한 물건도 세우지 않는 것이니라 라는 뜻이다.

오등회원 엄양장에서도 이 대담이 나오는데 엄양장에서는 조주 선사가 내려놓으라는 대답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학인이 "나에게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하였고, 조주 선사는 이어서 "그러면 짊어지고 가거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25〉

# 무상·무아 바로보아 열반 적정에 이르는 법

삼법인 · 사법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제행무상(諸行無常) · 일체개고(一切皆苦) · 제법무아(諸法無我) · 열반적정(涅槃寂靜)의 네 항목은 초기불교시대부터 확립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 이 네 가지 항목을 묶어 사법인(四法印)이라 하고, 여기서 일체개고를 뺀 세 항목을 삼법인(三法印)이라고 부른다.

법인(法印)은 산스크리트어 다르모다나(dharmodāna)의 한역으로, 다르마(dharma)와 우다나(udāna)의 합성어를 한역한 말이다. 다르마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法), 가르침 등의 뜻이 있고, 우다나는 요목(要目), 총괄, 강요(綱要), 요약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산스크리트어 다르모다나를 '가르침의 증표'로 이해하고 '법인'으로 한역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삼법인과 사법인에 관한 각각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때 삼법인이라 하고, 어느 때 사법인이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면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불교교단은 생전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를 달리해 분열하기 시작했다. 교단의 분열이 극에 달했을 때는 약 20여 개의 부파(部派)로 나뉘어 졌으며, 이 부파를 가리켜 소승불교라고 한다. 소승불교의 각 교단은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해석했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제문분별(諸門分別)이라고 한다.

이 제문분별이 활발해지면서 교리체계도 점차 복잡해져 갔고, 이러한 시기를 불교의 아비달마(阿毘達磨; abhidharma)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다보니 아비달마시대에 삼법인 · 사법인의 범위를 놓고 여러 부파가 다소 혼재된 기술을 남김으로써 명확히 언제부터 삼법인 · 사법인의 용어가 정착됐는지 불분명하게 됐다. 또 초기 빨리어 경전에서도 삼법인 · 사법인의 명확한 구분이 기술돼 있지 않고, 아비달마시대에 기록된 산스크리트 원전이 거의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한역 논서만으로는 연구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삼법인 · 사법인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된 기록은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와 대승불교 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학자들 중에는 삼법인 · 사법인 용어의 정립은 초기불교시대에는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대승불교에 들어서서 확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제행무상 · 일체개고 · 제법무아 · 열반적정의 네 항목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삼법인을 말할 때는 일체개고가 제외되고, 사법인을 말할 때는 일체개고를 포함시키는 규정이 언제 확립됐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원시경전에는 삼법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은 없으나 삼법인과 사법인의 구분이 생긴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일체개고를 뺀 나머지 세 항목만으로 삼법을 설명한 역사적 배경에는 사성제의 '고(苦)'를 비롯해 많은 경전에서 고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이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일체개고를 법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제행무상 · 제법무아를 통해 일체개고를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법인은 오온(五蘊) 등의 제법 속에서 '무상 · 고 · 무아'의 세 요소를 바르게 보고, 이러한 유위법(有爲法)의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적멸열반(寂滅涅槃)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근거해 일체개고를 포함시켜 이상 네 개로 사법인이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어의 문제가 아닌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을 이해해 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㉚



#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쉽게 알 수 없다 〈상윳따 니까야〉

어느 때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마침 그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머리를 특이하게 땋아서 묶은 고행자들, 하늘을 옷으로 삼은 나체수행자들, 한 벌 옷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방랑수행자들 ---. 그들은 한결같이 더부룩한 겨드랑이 털에, 긴 손톱에, 긴 몸의 털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과연 윤리적 덕목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을까? 마음 속으로 청정할까?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을까? 늘 궁금해 진다. 빠세나디왕 역시 나와 같았다. 그들이 다 지나가자, 참았던 의문들을 풀어놓는다. "부처님, 저들은 아라한들입니까? 또는 아라한의 길에 들어선 이들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한 눈에 파악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다", 아니면 "아니다"를 일도양단(一刀兩斷) 대답해 주실 것이다. 빠세나디 왕은 기대를 하면서 여쭈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부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으신다.

"대왕님, 세속에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계행을 지니고 있는지는 함께 살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청정한 지는 함께 대화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불굴의 정신이 있는지는 역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있는지는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는 알 수 없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깊어야 알 수 있지 주의가 깊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혜로워야 알 수 있지 우둔하면 알 수 없습니다."

요컨대 높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서도 그들의 외양만 보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살아보면서 오래 겪어보아야 감히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입장이다. 물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시를 통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쉽게 알 수 없고 / 잠깐 슬쩍 보아서는 또한 믿을 수가 없네"라고 하셨다. 겉모습만으로 수행자라 자칭하는 사람들, 성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말라는 뜻이 그 원래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는 겉모양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외관주의(lookism)에 대한 경계(警戒)로도 해석해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의 크기다. 일본에 가본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은 주택가에 세워둔 자동차의 크기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중에서도 중형차는 드물다. 아무리 후퇴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소형차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물론 중형차를 타야 할 분도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자유다. 우리 집에는 차가 없는데, 그렇기에 질투하는 말도 아니다.




그림 · 박구원

요점은 작은 차를 타자, 큰 차를 타는 사치(?)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잘못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 뿐이다. 작은 차를 타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큰 차를 선호하는 것은 '겉모양'에 떨어지는 일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좀 푸대접을 받으면 또 어떤가? 어차피 그가 본 것은 나의 겉모양일 뿐이고, 나는 결코 그런 겉모양으로는 알 수 없다.

진짜 재미있을 것 같다. 내가 만약 큰 차를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말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그러니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자. 겉모양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에 지나지 않는다.(본문의 인용은 일아 역편,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433-434쪽.)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바쁘게 살지 말라” 요즘도 그뜻 되새겨

## 김의식 불화장

절집과 관계없는 이들도 절하면 고즈넉한 산사(山寺), 목탁소리, 풍경소리 그리고 범종소리를 떠올린다. 불자라 해도 법당 안에 들어서면 불상에 참배 할 뿐, 후불탱화나 신중탱화, 감로탱화는 무심히 스친다. 그러나 불상은 경배대상이지만, 이야기 주머니를 조곤조곤 풀어내는 탱화는 안도현 시인이 쓴 동화 〈연어〉에 나오는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를 떠올리게 한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 까만 하늘처럼 //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 무딘 땅처럼” 물이 논에 들어 벼를 빛내고 산에 들어 나무를 빛내듯이 고려시대에는 귀족, 조선시대에는 민중을 빛냈다는 탱화. 요즘에는 어떤 빛을 품고 있을까. 불화장(佛畵匠) 김의식(54)선생을 만났다.

“조계사에서 불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청학 스님이 찾아와서 제 그림을 한 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처음 오신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저희는 재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스님들은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청학 스님은 처음엔 불사를 할 절이 길상사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청학

### “길상화 보살님에게도 절하라” 제게 ‘군더더기 없어 좋다’ 하셨으나 스님이 엄한 할아버지 같았다

스님은 누가 길상사하고 인연이 될 수 있을까를 이모저모 짚어보고 나서 김의식 선생에게 인연을 맺자고 하면서도 법정 스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서, 법정 스님과 길상화 보살님이 큰마음을 내신 절이니. 사사로운 욕심은 뒤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다.

선생이 길상사 극락전 탱화를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법정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길상화 보살도 함께 뵈었다. “법정 스님이 길상화 보살님한테도 절을 하라고 그러셔서 절을 올렸더니 보살님이 ‘아이고, 내가 살다가 불모(佛母)님 절을 다 받아보네.’ 그러셨어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덕조 스님이 자기는 스님하고 긴 얘기를 나눈 적은 별로 없다면서 저한테 스님하고 무슨 얘길 나누긴 하시나보죠? 그랬는데 별 얘기 없었어요. 스님께서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으시면 저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런 정도. 제가 지은 죄가 많아 그런지 그 어른이 편하기보다는 엄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랬어요. 엄한 할아버지가 손자 앉혀 놓고 ‘너, 탱화는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런 느낌, 눈매가 날카롭고 무서웠어요. 별 말씀 없으셨지만 가슴에 가장 남는 말씀은, 바쁘게 살지 말고 쉬엄 쉬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요즘도 그 뜻을 되짚어보곤 해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다고. 제가 불교미술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나 불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숨김없이 털어놓다보니까. 말을 돌려서 하거나 꾸미지 않는 사람으로는 보셨나봅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탱화를 좋아하신 법정 스님 때문에 길상사 극락전 후불탱을 먹바탕에 금니로 조성했다는 불화장 김의식 씨.

길상사 초기, 선생이 개설한 불화반 수업 때 법정 스님이 가끔 다녀가셨다. “조심스런 말씀이지만 주지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은 고개도 넘석하지 않는데 법정 스님은 종종 들여다보셨어요. 그렇다고 티 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짝 다녀가시곤 했어요.” 어느 날 법정 스님이 선생에게 불교미술 하는 사람을 왜 금어(金魚)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선생은 태초에 인류가 생기기에 앞서, 물고기로 연원해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 불성을 일깨워 준 부처님 미소를 잘 드러내라는 뜻에서 금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라며 무척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셨는데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불모가 뭐냐고. 그래서 옛날에는 탱화나, 단청, 불상조성까지 다 하는 분들을 불모라 했습니다만, 요즘은 세분화되어 불교미술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온 힘을 다 쏟아 부처님이야기를 잘 드러내라는 뜻을 담아 그리 부르지 않나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그렇게 불리다니 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스님이 금어나 불모가 지닌 뜻을 몰랐다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주고 싶었기 때

### 금어 · 불모가 뭐냐? 물으신 뜻은 그뜻 되새겨 주시려는 방편 법문 길상사 극락전 · 지장전 탱화 조성

문이 아닐까.

고고학자 김병모는 1961년 여름, 대학생 때 시조인 수로왕릉을 방문했다가 왕릉 대문에 그려진 물고기 한 쌍을 보고 강한 호기심을 느껴, 뿌리를 찾다가 가야 · 가락국 을 가리키는 가락(karak)은 고대인도 토착어인 구(舊) 드라비다 말로 물고기를 뜻하고, 가야(kaya)는 신(新) 드라비다 말로 물고기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거듭 짚어나가 쌍어신앙이 신석기시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싹터, 사람들 삶을 보호하는 신앙으로 발전 바빌로니아 시대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로 퍼져나가는 한편 흑해를 근거지로 일어난 기마민족인 스키타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전역과 알타이 산악지대 유목민들에게 퍼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쌍어신앙은 지역 토착 신앙과 섞여 힌두교와 불교에도 스며들어 절집에서는 물고기가 석가모니를 보호하고, 몽골 사람들은 물고기가 사람들이 잘 사는지 또는 위험에 처했는지 살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호한다고 여겼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질병을 고치는 약을 생산하는 커다란 나무뿌리를 지키는 물고기 두 마리가 인류를 모든 질병에서 구해준다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쌍어는 왕릉과 부처님을 지키고, 절집 처마에 매달린 풍경으로, 목어(木魚)와 목탁(木鐸)으로 이어져 부처님을 외호하고 사부대중을 보듬는다. 그런 까닭으로 불교미술 조각과 탱화, 단청을 삼절이라 하고, 이를 모두 조성하는 장인을 금어나 불모라 하여 존중했으리라. 불교인을 불자라 하는데, 금어나 불모는 듣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호칭이다. 그래서 선생은 금어나 불모라 불리기보다 그저 불화장으로 불리기 바란다.

“법정 스님께서는 당신이 늘 탱화를 봐 오셨던 바로는 채색은 혼란스러운 감이 있으니 좀 담백하고 깔끔하게 조성할 수 없느냐고 하셨어요. 그 어른 성품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먹 바탕에 금니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셔서 극락전 후불탱은 먹 바탕에 금니로 조성했습니다.” 길상사 불사를 총괄했던 최완수 선생은 극락회상도(極樂會上圖) 조성 당시를 이렇게 돌아본다. “후불탱은 채색이 원칙이죠. 화려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법정 스님은 홍탱(紅幀)이 단순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나도 싫어하지만 법정 스님도 싫어하셨는데 사실 가장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길상사 부처님도 도면에서 복잡한 걸 다 덜어내고 조각할 때 의식선이 복잡해 보이면 또 줄이고 줄여서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요점정리를 해서 단순화시키는 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극락전 후불탱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요? 법정 스님이 홍탱을 주문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흑탱(黑幀)이야. 이상하게 법정 스님은 홍탱에 대한 애착이 있으셨어요. 지장전에서 기어이 홍탱을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아 법정 스님은 붉은 바탕에 금니 탱화를 생각했으나, 장인 의견을 받아들여 검정 바탕에 금니로 조성한 듯하다. “먹 바탕에 금니로 조성하는 탱은 흔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금니로 하면 정갈하고 힘이 있지요. 청학스님이나 법정 스님도 제 선이 참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금니로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법정 스님은 지장전, 지장시왕탱(地藏十王幀)을 조성할 때는 먹탱도 좋지만 이번에는 홍바탕에 금니로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탱화를 하는데 이 절 다르고 저 절이 다르겠습니까마는 길상사는 두고두고 고맙지요. 뜻 깊은 도량에 솜씨를 남기다니 고맙기 그지없어요.” 꾸밈이 없다.

“눈 오는 날이었어요. 지장전 불사 때문에 연락 받고 길상사에 갔어요. 길상화 보살님 공덕비에 절이라도 올리려고 눈을 치우는데 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절을 했느냐’ 고. 깜짝 놀라 뒤 돌아보니 법정 스님이 서 계셨어요. 스님을 뵈면 어려웠기에 얘기를 마치고 가야지 하고 꽁무니 뺄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저는 법정 스님 법문을 들으러 간 적도 없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여기 화실에도 스님 책이 더러 있습니다만 스님 책을 읽고 안 읽고는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과는 별개 같더라고요.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뉴스를 듣고 길상사에 갔습니다. 행지실에 누워 계신 스님을 뵙고 내려와서 길상화 보살님 공덕비 앞에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스님 책이 여러 권 있지만 읽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래서 스님이 군더더기가 없어 좋다고 하셨을까?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해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행상품

미얀마 성지순례

일 정 : 양곤 / 짜익티오 / 바간 / 헤호 7일 220만원

출발일 : 8월 20일, 9월 7일, 9월 15일 확정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35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30여년동안 외길 인생을 달려온 김의식 불화장은 평소 제자들에게 탱화를 그릴때는 항상 긴장속에서 정성을 다해 붓을 잡으라고 강조한다.

길상사 지장전은 다른 절 지장전이나 명부전에서 느끼는 어둡고 칙칙한 구석이 없다. 지장보살상 뒤로 돌아가면 위패를 모시는 금바탕에 연록색이 어우러지는 연꽃으로 조성된 부처님 세계가 있다. 은근하고 맑은 연화장 세계. "순금 바탕은 처음이었어요. 영가를 모시는 곳이어서 너무 밝고 화사해도 부담스러울 테니 은은하면서도 화사하게 회화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셨어요. 순금을 바탕에 깐다는데 부담도 가지시고. 그래서 살짝 펴서 가뿐히 바르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된 다음에 스님이 편안하고 색다른 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칙칙한 느낌이 들거나 무서워서는 안 된다는 한 생각만 가지고 그렸지요."

어릴 적 만화를 그리면서 화가를 꿈꾸던 소년 김의식.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이 힘들다고 여겼다. 중학교 졸업 무렵 '종교미술'을 배워 볼 의향이 없냐는 친구 편지를 받고 선뜻 서울행열차에 몸을 싣는다. 1975년. 광명 조인행 선생 제자로 들어가 종교미술을 만난다. 무속화를 세 해 남짓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늘 미진하고 아쉬움이 남았다. 1978년 불교미술대전에 태성불교사가 출품한 탱화를 보고 가슴 벅차올랐던 의식은 단걸음에 태성불교사 박용심 사장을 찾았다. "참 인연이 묘하더라고요. 박용심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림을 배우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도 탱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별 희한한 놈도 다 있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며 박동수 선생에게 보냈어요. 박용심 사장님은 제게 늘 '촌놈, 촌놈!' 그러셨어요. 박동수 선생 밑에서 밑그림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동수 선생은 불화가 예배 대상인 성보라는 점을 일깨워주셨어요." 2년 동안 도제 수업을 받은 의식은 군 입대로 잠시 붓을 놓는다. 1983년 제대를 하고 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불화 그리기를 놓지 않다가 동강 김익홍 선생을 만난다. "동강 선생은 불화 조성의 기초와 이론은 중시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 전통불교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스님 책을 읽거나 법문 들은 적 없어**
**1993년 전승공예부문 대통령상 수상**
**불모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아**

선생은 1990년 제1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로 대상을, 1993년 제18회 대한민국 전승공예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다. 1995년 3월 '제1회 김의식 불교미술전'을 열어 불화장 세계를 펼치며 세상을 향해 성큼 나아간다. 그리고 2005년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 탱화〉를 출간, 불교미술을 연구하는 후학들 이정표가 된다.

탱화는 작가의 창작품이기에 앞서 예배대상에 출초와 채색 끝내림에서 서로 재주는 다르지만 여럿이 마음 모아 마치 한 사람이 작업한 듯이 한결같은 흐름을 보여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를 이끄는 불모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화음을 이뤄야 한다. 중국 성지순례를 하던 선생은 베이징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석경산구 취미산 남록에 있는 법해사(法海寺)에 들렀을 때 대웅보전 안에 동, 서, 북쪽 벽을 가득 메운 돈황벽화와 쌍벽을 이룬다는 커다란 명대벽화를 보고 대뜸 "여럿이 했는데도 조화가 잘 맞았다"고 했다. 같이 간 일행 가운데 불화를 하는 동국대 교수가 "어떻게 여럿이 한 걸 아느냐?"고 되물었다. 선생은 "세필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붓 못 다룹니다.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 능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무늬는 솜씨가 조금 뒤집니다. 그리고 이를 세필한 사람은 이 새를 절대 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강한 철선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꽃을 이렇게 못합니다. 딱딱해지기 때문에"라고 했다. 나중에 안내원에게 물으니 과연 1443년 황제명을 받아 궁정화가인 왕복청, 왕서를 비롯한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화사(畵師) 열 다섯 사람이 모여 여섯 달이나 손발 맞춘 뒤에 3년 가까이 걸려 이룬 대작이라고 했다. 불화 가르치는 교수도 놀칠 만큼 호흡이 맞았다는 얘기인데, 수십 년 탱화를 해온 매서운 장인 눈매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서른 중반까지도 어디 가서 탱화 한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짓는 것 같아서. 제 아이한테도 평생하고 싶은 일,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죄짓는 기분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탱화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그리워서 그림이라 했던가?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부처님과 보살을 그려내려는 사려 깊음, 내가 어떻게 '감히'라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리라. 이 말씀 끝에 불국토를 일구는 마음으로 불국사 축대를 쌓으면서 90미터나 되는 인공석을 자연석에 얹으려고 곡선 따라 낱낱이 정으로 쪼아 정성껏 다듬어 낸 신라 장인을 떠올렸다.

쉼 없이 달려온 40년 가까운 세월, 외길을 걸으며 굽이굽이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을까. "제자들에게 그림이 싫어지면 하지마라. 웬만큼 하려거든 하지마라. 그럽니다. 저희처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을 때는 밥 먹기 위해서 그림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이 넉넉한 세상에 왜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해야 합니까? 제가 우리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말씀인데 '삶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저는 한창 때 무슨 영예를 누리겠다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둘레 사람들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탱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직업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길게 보자, 길게!' 제자들은 탱화를 할 때 제가 무섭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탱화는 정말 한 번 삐끗하면 그만입니다. 아까 카메라를 들이댈 때도 긴장을 했습니다마는 젖은 양말로 그림을 밟기만 해도 끝장입니다. 긴장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불화를 조성합니다." 과연 불모(佛母).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 바람이고파



동국대 명예교수

바람이 좋다. 삼복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바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잠깐이라도 바람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라.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고 말일이다. 시인들이 아무리 바람을 찬미한다 해도 비견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엔 감미로운 것들이 많기도 하다.

젖먹이를 품에 안고 흥얼거리는 엄마의 자장가 소리는 감미롭다. 태초에는 우람하게 존재했을 파도들의 축제가 시간이 지남에 농익어 잔잔한 밀물로 밀려오는 포말의 속삭임은 감미롭다.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나뭇잎의 숙명적인 이별을 절묘하게 만나게 하는 바람의 신비는 감미롭다.

어느 계곡을 지나다보면 풀잎 하나 미동도 하지 않는 고요가 깃들어 있다. 그 곳을 벗어나면 신천지를 만난 듯 바람이 얼굴을 테핑하고 간다. 간다는 것이 이렇게 섭섭하고 야속할 수 있을까. 탐험가에게 간다는 것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바람에게 있어 스쳐간다는 것은 필연과도 같은 것이다. 만약 바람이 나태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잠간이라도 멈춘다면 이미 바람이란 속성을 잃고 만다. 본디 바람은 멈출 수 없는 운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꽃을 만나고 나무를 만나고 강을 만나고 숲을 만난다 해도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떠나야 하는 바람이여. 위대하다는 말은 바람에게나 붙일 수 있는 소중한 말일 듯하다. 어떤 대상을 만난다 해도 집착하지 않는다.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그 가운데 무엇 하나 대상인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에 집착하지 않으니 말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이 혹하게 되고, 감미로운 선율에 귀는 금세 팔리고 만다. 코 또한 다를 바 없다. 아름다운 향기에 이내 취하고 마는 것을.

미당은 그의 작품 〈자화상〉에서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 바람은 정신세계의 강장제가 되었다. 시인의 정신세계를 튼실하게 하는 데. 존재 있는 것에만 귀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세상에 시인은 뭇 인간이 빗겨 가버린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바람을 소중히 여겼다. 육신을 발육시킨 건 자양분이었겠지만 시인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었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집 떠나는 즐거움에 취해있는 행렬을 본다. 일상을 탈출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판에 박은 일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육신과 정신의 해방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마치 검푸른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배는 자유의 상징이듯이. 틀은 인간을 도식화하고, 틀은 인간을 석고화 시키는 위험 요소가 있다.

집 떠나는 즐거움에 취한 나그네여. 어느 산야, 어느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가. 백사장을 걸을 때 발끝에서 사각거리는 어떤 저음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그리고 조약돌이 밟힐 때마다 나지막한 어떤 소리를 들어 보아야 한다.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태고의 소리다. 감미로움 속에는 고통이 스며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감미로운 것을 감미롭다고만 생각한다면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스스로 반납하는 꼴이다.

감미롭게 밟히는 조약돌은 그 고향이 산이었다. 계곡의 서릿발 같은 돌이었다. 이 계곡에서 혹은 저 숲속에서 풍상에 씻기고 부드러운 물결에 다듬어졌다. 어느 힘센 장정들의 목도에 의해 운반된 것이 아니라 침식작용이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조금씩 전진하여 나그네가 서 있는 이곳까지 온 것이다.

**미당… "나 키운건 8할이 바람"**
**바람은 소통의 대명사**
**소통없는 세상, 오해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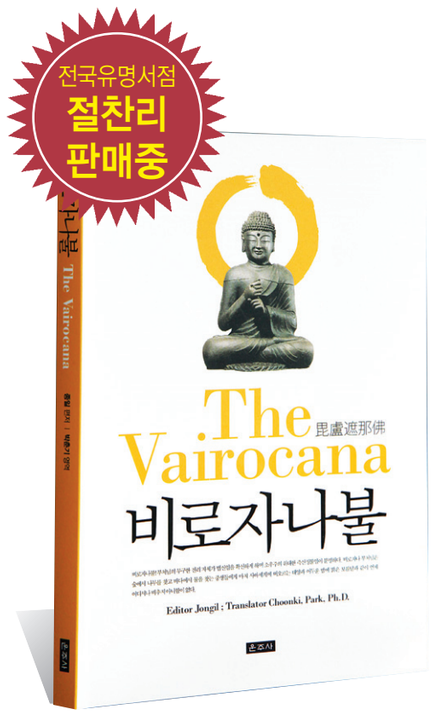
파도가 머금고 간 백사장은 정적이 남는다. 인간이 안고 있는 외로움의 봇짐들을 파도 저 멀리 실어 보냈기 때문이다. 청순함이 펼쳐진다. 마치 주단을 깔아 놓은 듯. 그곳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듯 찍혀 있는 발자국들. 자귀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발자국은 어느 청량음료 보다 가슴을 후련하게 한다. 그들만의 밀어가.

섭리의 이면이 궁금하다. 아마 진공상태가 아닐까. 일체의 색(色)과 상(相)을 초월한 세계이므로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만은 있을 것 같다. 물질도 아니요 형상도 없는 것이 바람의 속성이니 말이다.

흔적도 없다. 빛깔도 없다. 목소리도 없다. 세상에 바람보다 더 쓸쓸한 존재들이 있을까. 그저 길섶에 핀 꽃잎을 한두 번 흔들어 보기도 하고 산죽이 수런대는 모습에서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바람은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랄까. 물욕의 초탈자 바람이여. 끝없는 욕망의 항해사인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가소로운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나는 바람이 좋다. 바람이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람은 소통의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소통이 없는 세상은 오해라는 이물질을 양산한다.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보경사 031)755-3336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왕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 앨렌 섬 보호에 나선 티베트 불교계

**스코틀랜드 앨렌 섬에 화력발전소 계획…지역 불교계 등 반발**
**앨렌 섬, 199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 티베트 불교계 거점**


선상에서 바라본 '성스러운 섬(The Holy Isle)', 앨렌 섬의 전경. 이 섬은 스코틀랜드 남서부 클라이드(Clyde)만 하구에 위치해 있다.

스코틀랜드 티베트 불교계의 안식처가 되어 온 섬이 개발 소용돌이의 중심부에 놓이게 됐다.

'스코틀랜드 썬데이(Scotland on Sunday)〉 지는 7월 29일자 보도에서, "수세기 스코틀랜드 산업사 저편에 머물며 가톨릭과 불교의 안식처 수행처가 되어 온 앨렌(Arran) 섬에 자원개발 시설이 들어설 방침이 세워져, 1990년대 섬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티베트 불교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앨렌 섬은 스코틀랜드 남서부 클라이드(Clyde)만 하구에 위치해 '성스러운 섬(The Holy Isle)'으로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수림이 자생해 스코틀랜드 안팎에서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스코틀랜드 종교사적 의미도 더해진다. 13세기 건축된 교회가 현존하는 가하면, 16세기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성 모라이스(St. Molaise)의 기도처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말까지 스코틀랜드 가톨릭계의 피정처로 각광을 받았다.

현재 앨렌 섬은 스코틀랜드 티베트 불교계의 거점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는 앨렌 섬의 소유지였던 부동산 재벌 케이 모리스(Kay Morris)가 1992년 삼예 링(Samye Ling) 사원을 비롯한 티베트 불교계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이후 10㎞ 남짓한 둘레의 앨렌 섬은 라마 예쉬 린포체(Lama Yeshe Rinpoche)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불교계의 수행처로 탈바꿈하게 됐고, 섬을 비롯해 클라이드만 지역 주민들의 발심(發心)에 힘입어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불교계 성지, '성스러운 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앨렌 섬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가 섬을 중심으로 산업화 플랜트(plant) 계획을 발표, 지역 불교계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자치단체가 발표한 산업화 플랜트 계획에 따르면, 북부에너지개발업체가 클라이드만에 화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앨렌 섬의 람레쉬(Lamlash) 지역과 화이팅(Whiting) 해안 사이에 분포한 수림에서 연간 4만여 그루의 나무를 벌목, 발전소를 운영한다.

이 계획을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예쉬 스님을 중심으로 한 티베트 불교계였다.

예쉬 스님은 "섬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고요'와 '평온'이라는 앨렌 섬의 분위기가 망쳐질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처의 역할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여기에 클라이드만 지역 주민들이 가세, '앨런 섬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티베트 불교계와 보조를 맞췄다.

반면 지역 자치단체 측은 "산업화 시설이 들어서면 클라이드만 일대에서 14%의 고용 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들의 소득도 향상될 것"이라고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한편 "소음과 분진은 친환경 공법과 공정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여기에 시설 가공 시간도 단축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산업화 플랜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틱켈(Tickell) 개발위원장은 "이번 개발 계획은 티베트 불교계나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섬과 그 주변의 자원을 한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게 관련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힐 따름이다.

이에 따라 티베트 불교계는 '화력발전소 신설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이 자료를 모아 오는 8월 중 예고된 공청회에 제출, 화력발전소 백지화에 힘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산업화 플랜트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만여 명의 인근 지역 주민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예쉬 스님은 "이곳이 북유럽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라는 점을 간과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동시대 부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반대 서명 날인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스코틀랜드 각계각층에 편지를 보내 앨렌 섬의 자연 및 수행 환경을 훼손하는 자치단체의 산업화 플랜트 계획을 저지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밀교와 도상학의 전문가

**세계의 불교학자(27)**

**구드런 뷔네만** 美 위스콘신 주립대 교수



구드런 뷔네만(Gudrun Buhnemann) 美 위스콘신 주립대 교수는 불교와 힌두교 및 밀교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다. 그는 또한 인도학, 범어 언어학 및 문학, 그리고 밀교 도상학(圖像學)과 의식의 세계적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중부 고스라르시(市)에서 출생한 뷔네만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의 울프슨대를 졸업하고 1980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대에서 고전 인도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인도에서 10년 동안 연구활동을 하게 되며 인도 종교, 특히 밀교의 의식과 도상학에 관심을 갖는다.

"밀교의 전적을 연구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그러한 연구는 내게 환상적인 학문적 주제였다"고 말하는 뷔네만 교수는 1980~1982년 인도 뿌나대의 고급 범어학 연구소에서 포스트-닥터 (Post-Doctor) 연구원으로, 1982~1983년 함부르크대의 인도학과에서 연구 조교로, 1983~1989년 인도 뿌나의 반다르까르 동양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1987년부터 논문과 저서를 본격적으로 발표한 뷔네만 교수는 브하드라 만다라가 의식(儀式: ritual)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또 가네샤 신이 밀교에서 어떻게 숭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1989~1991년까지 일본 나고야대 인도철학과의 연구원으로, 1991~1992년에는 일본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다.

뷔네만 교수는 1992년, 영국 옥스퍼드의 울프슨대의 스폴딩 방문 펠로우로 잠깐 재직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의 매디슨 캠퍼스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범어와 인도불교의 전문 교수로 현재까지 위스콘신대의 아시아언어문화학과와 불교학 프로그램의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범어(梵語)를 주로 가르치는 뷔네만 교수는 범어 문헌을 범어 문학과 범어 언어학의 토대 위에서 접근한다.

범어 문헌을 번역할 때 의역보다 직역을 선호하는 뷔네만 교수는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 10여 권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과 서평을 출판했다.

독신으로 살며 연구 활동 이외에 아무런 취미가 없을 정도로 연구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뷔네만 교수는 "불교학 연구에서 종종 엉성한 판본을 토대로 이론을 세우기도 한다. 불교학의 중요한 전적의 교정본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껏 해왔던 것 처럼 불교와 힌두교의 밀교 의식과 도상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준 야수다 스님, 600km 대장정 '반핵 도보 캠페인'

**30여 년간 '핵 에너지와 무기'의 위험성 알리는 데 매진**



준 야수다(Jun Yasuda) 스님과 로렌 칼본(Lauren Carlbon), 알렉스 키코로(Alex CIccolo)가 피터스버그(Petersburgh)에서 출발해 온타리오(Ontario) 호수를 가로질러 버팔로(Baffalo)에 이르는 600㎞ 대장정의 '반핵 도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핵 에너지와 무기의 위험을 알리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계 비구니 준 야수다(Jun Yasuda) 스님이 전개하고 있는 600㎞ 대장정의 '반핵 도보 캠페인'이 화제다.

'노섬벌랜드 뉴스(Northumberland News)'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 코어스카운티에 있는 소도시, 노섬벌랜드의 준 야수다 스님이 7월 12일 피터스버그(Petersburgh)에서 출발, 온타리오(Ontario) 호수 인근 버펄로(Buffalo)까지 600㎞의 반핵 도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재앙과 후쿠시마 원자로 노심 용해 참변을 지켜보며, 핵의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준 야수다 스님은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당면한 문제"라며 "다음 세대에 청정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이번 도보 캠페인을 지켜보며 핵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스님 도보 캠페인 여정에서 우라늄 생산·공급 업체인 카메코(Cameco Fuel Manufacturing)가 있는 포트 호프(Port Hope), 달링톤 핵시설(Darlington Nuclear Power Plant), 픽컬링 핵시설(Pickering Nuclear Power Plant) 등지를 방문, 지역 주민들과 동참하는 거리 캠페인도 전개한다.

스님과 함께 도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로렌 칼본(Lauren Carlbon)과 알렉스 키코로(Alex CIccolo)는 "우리가 온타리오 호수 주변을 반핵 도보 캠페인의 여정으로 삼은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피폭자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30여 년간 핵 에너지와 무기 종식에 앞장 서온 야수다 스님의 서원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태국, 메달리스트 母 출가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약속에 따라 출가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런던올림픽 58kg급 여자 역도선수로 출전, 2위로 입상한 핌시리 시리케위의〈사진〉 어머니 아몰네트 시리케위.

태국 매체에 따르면, 아몰네트 시리케위는 9일간 사원에서 철야기도를 올리며 "만약 자신의 딸이 메달을 받으면 출가하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것.

아몰네트 시리케위는 "부처님께서 가난한 불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며 "이제 맹세를 실천해 부처님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美 금오국제불교선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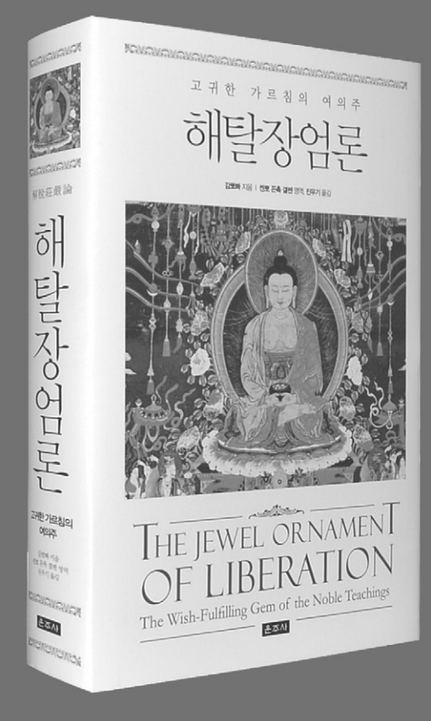

사진제공=불교TV

금오 스님(1896~1968)을 기리기 위한 금오국제불교선원이 미국 LA에 개원됐다. 2004년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후 8년여의 불사 끝에 LA 코리아타운에 문을 연 것.

금오국제불교선원은 7월 8일 개원식과 현판식을 봉행했다. 건평 1만4000㎡(약 4235평 규모), 4층 규모로 건립된 금오국제불교선원에서는 설조 스님 법어, 성타 스님과 현조 스님의 축사, 종상 스님 발원문 순으로 첫 법회가 열렸다. 법회에는 금오국제불교선원장 현철 스님, 법주사운영위원장 설조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개원을 축하했다.

이나은 기자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해탈장엄론
-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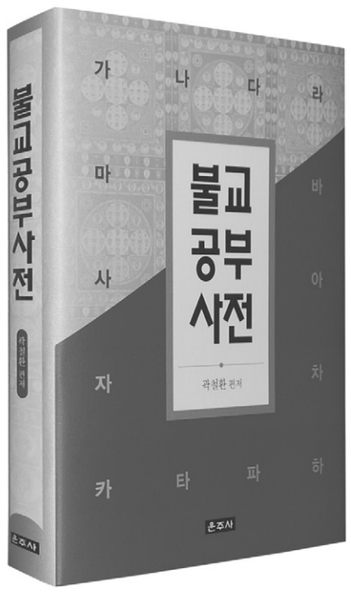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자!

티벳불교의 위대한 스승 감뽀빠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밀라레빠로부터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띠샤로부터 비롯된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였다!

감뽀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값 28,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사전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불교공부의 길잡이!




불교 공부 사전

-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각 표제어들이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찾아 제시함으로서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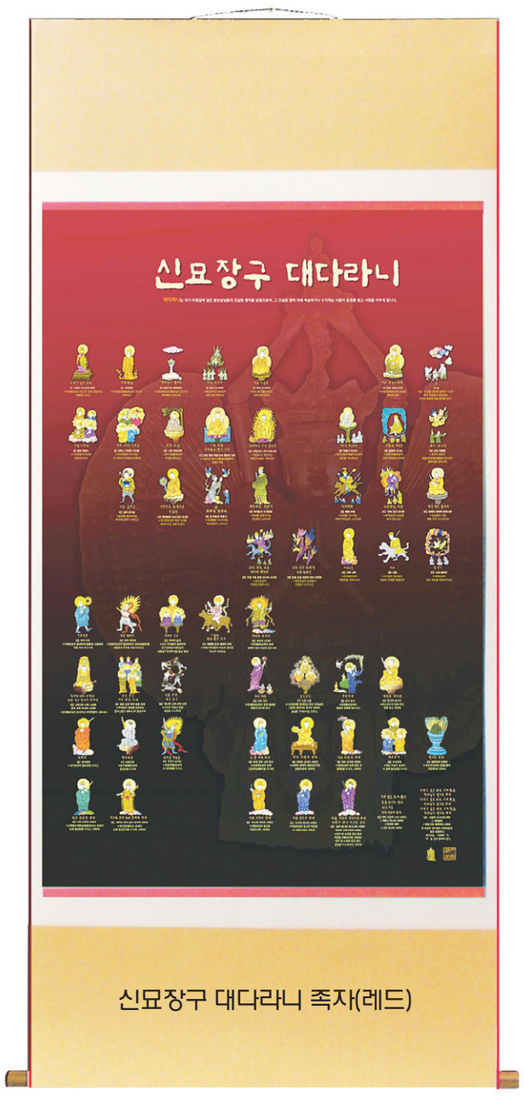
곽철환 편저 | 국판 양장 | 404쪽 | 값 20,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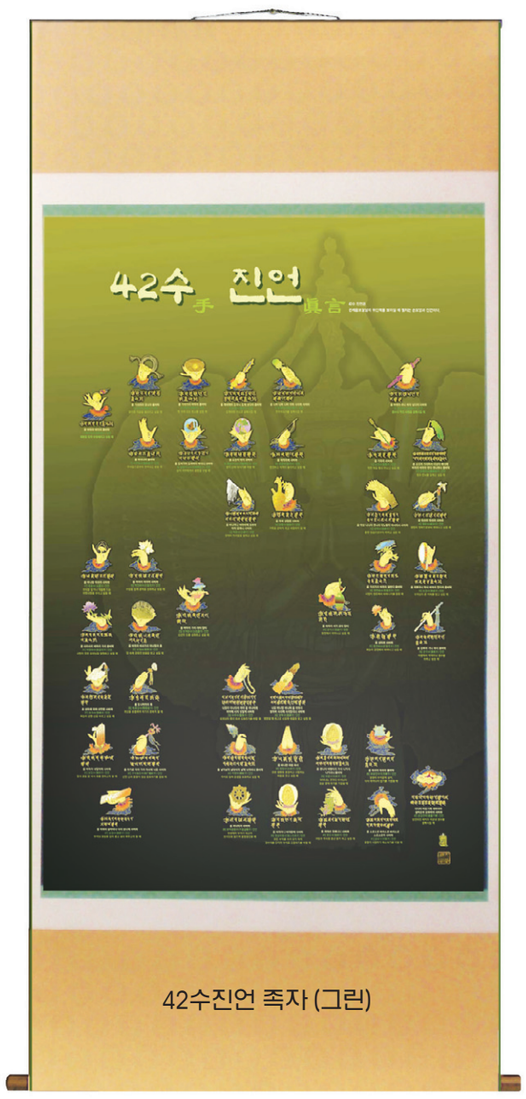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제품명 | 신묘장구대다라니 | 42수진언 |
|---|---|---|
| 크기 및 가격 | 사찰용 100,000원<br>가정용 70,000원 | |
| | 사찰용 65×145㎝<br>가정용 45×110㎝ | |
| 색상 | 그린 · 레드 |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원통보전 원 주인은 따로 있었다

### 낙산사 목조관세음보살 소견


낙산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낙산사는 엄연히 2003년에 보물로 지정된 제 1362호 건칠관세음보살좌상이 있는데, 무슨 목조관음상이냐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1950년에 조선시대에 지어진 낙산사 원통보전이 불타기 전에 사진에 나오는 이 목조불상이 원통보전에 좌정하고 계셨다.

지난 백년간 낙산사 원통보전은 두 번 불타고 두 번 새로 지어졌다. 사찰과 같은 목조건물에 불이 나면 남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밖에 없다. 첫째는 지붕을 이는 기와이다. 수막새, 막새기와, 와당 같은 기와들이 불탄 자리에 남는다.

둘째는 주춧돌이다. 화강암 같은 강한 석질의 돌들이 불을 쉽게 이겨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불이 한 번 돌을 달구면, 나중에 툭툭 터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불에 닿지 않는 전각 밑 주춧돌이 남는다. 통돌로 만든 돌계단도 그냥 터져버린다.

### 6.25 당시 폭격으로 소실
### 자비 미소 사진으로만 남아

전각 속에 있던 어느 것도 다 불타 버린다. 불상이 목조이든 철조이든 석조이든 불붙은 전각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몇 천도까지 올라가는 불이 닿아 버리면 녹아버리고 깨져버리고 터져버린다.

낙산사는 동해안 지역의 독특한 기후 상황으로 여러 번 불에 전소되었다. 앞으로도 불이 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겨울에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은 나뭇잎이 수십 센티에서 1미터 깊이까지 싸이고 바닷가 해풍에 마르고, 거기에다 강한 태양이 어쩌다 굴절현상으로 아주 작은 불꽃을 만들어 내면 누군가 굳이 담뱃불을 던지지 않아도 큰 산불이 난다.

거기에다 강한 해풍(海風)이 불어오면 그 불덩어리는 수십킬로를 거쳐서 이리 저리 날아다닌다. 그 날아다니는 불덩어리에 목조 전각에 불이 붙어버리면 혹시라도 소나무로 지은 건물이면 송진까지 퍽퍽 터지면서 잘 타오를 수 밖에 없다.

바닷가 바람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는 주차시에 알 수 있다. 차 방향을 잘못 잡아 놓으면, 바닷가 해풍이 갑자기 불어닥쳐 자동차 앞면 유리가 곰보처럼 구멍이 난다. 바닷바람으로 전각의 기왓장이 날아 떨어지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다.

사실 이 목조관세음보살 좌상은 조선시대 원통보전에 좌정하고 계셨던 불상이다. 6.25 당시 폭격으로 불타버린 원통보전에 원래 보전돼 있던 불상이다. 후불탱은 사방에 사천왕상이 둘려 서있고, 따스한 미소를 지닌 아미타불 부처님이 묵좌하신 그 앞에 천연스러운 웃음을 띤 관세음보살상은 정겹기만 하다.

그 우측에 보면 목조 선재동자가 살짝 보이는 것을 보면 좌보처에는 동해용왕상이 있었을 것이다. 손에든 정병(군티카)은 언제든지 목마른 중생이 물을 달라하면 바로 내줄 수 있게 양손으로 받치고 들고 있으시다. 머리엔 화관(花冠)을 쓰셨는데, 화관의 중앙에는 화불(化佛)인 아미타불 부처님이 앉아계신다.

화려한 영락은 온 몸을 감싸고 통견의 옷자락은 아름다운 당채 빛깔을 흠뻑 물들이고 있다. 이토록 다정한 관세음보살님은 화마에 불타버리고 지금은 사진으로나마 예전의 원통보전 주인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하겠다.

온국민이 사랑하는 낙산사 원통보전의 원래 주인을 보신 분이 많지 않을 듯하여 이 사진을 공개해본다. 열대야에 시달리는 많은 불자들에게 시원한 버드나무가지에 물을 달아 뿌려서 청량(淸凉,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순백의 燈이 되어 세상 밝힌다

### 곽훈 '시(詩)·다(茶)·선(禪)'展

곽훈 작가의 '시(詩)·다(茶)·선(禪)'展이 8월 14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대구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불교사상과 동양철학이 깃든 시(詩), 다완(Tea bowls), 관조(Contemplations), 겁·소리(Kalpa·Sound) 등 4점의 설치작품이 전시된다.

곽훈 작가는 부정형한 화면구성과 자유롭고 활달한 붓터치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추상표현주의적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를 통해 불교사상과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 국적 재료 흙 종이 나무 도기 등을 활용한 작품으로 추상표현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그의 표현 정신은 이제 회화를 넘어 설치작품을 통해 보여진다.

신작 '시(詩)'는 높이 4.6미터, 가로세로 9미터의 대규모 작품으로 미술관 2층 천장 공간을 활용해 관객들을 찾아간다. 작가의 정서적 상태와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곽훈의 또 다른 예술 활동인 시작(詩作)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곽훈은 "내게서 시는 그림과 동일하다. 추상의 은유적 표현이 여의치 않을 때 시를 써 그림의 내부를 본다. 시 안에는 그림이 가득하다. 모르긴 해도 글을 쓰는 사람이 미술을 모른다는 것은 엄살이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감성이 길러지고, 감각을 고도화하는 기술이 쌓이는 건 양쪽 분야가 마찬가지다"라고 말한다.

작품은 빛, 공기, 습도, 바람 등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얇은 순지와 설치를 위한 가는 실만을 이용해 완성됐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천창에 설치된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는 빛의 변화를 섬세하게 뿜어낸다. 이는 순백의 불교식 등(燈)을 연상케 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시적 명상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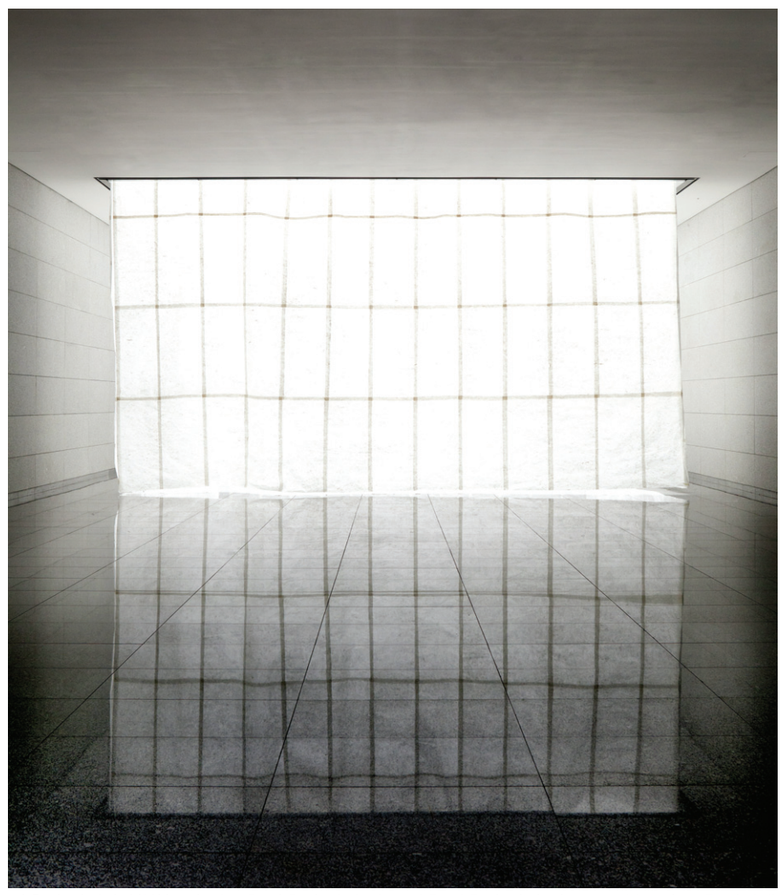
'다완(Tea bowls)'(1998)은 LA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소개된 바 있는 곽훈의 대표적 설치작품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표면이 바래거나 녹슬고 부식된 다완들의 형상은 자연과 교감하며 형성되는 한국의 미의식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개의 다완들이 전시 공간에 적합한 배열과 구성으로 재설치(Reinstallation)돼 관객들을 찾아간다.

**불교사상 동양철학 깃든 설치작품**
**얇은 순지 이용해 '燈' 모양 재현**
**8월 14일부터 대구미술관서 전시**

'관조(Contemplations)'(2000), 겁·소리(Kalpa·Sound)(1995)는 생과 사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과 수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작품 '겁·소리'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인 이래 다양한 형태로 소개돼 왔다.

이번 전시는 시(詩), 다(茶), 선(禪)의 세 가지 주제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사유의 시간을 전해줄 것이다. 또한 대구미술관은 전시기간 중 곽훈의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온 평론가 황인이씨를 초청해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한다.

곽훈 작가는 1941년 경북 달성 출생으로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75년 도미해 1981년 LA시립미술 관장이었던 조신 양코 스타렐스에 의해 발탁돼 신인전을 개최 미국 화단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활동을 재개한 작가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대규모 설치작품 '겁·소리 = 마르코 폴로가 동양에서 가져가지 못한 것'을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곽훈의 신작 '시(詩)'. 이 작품은 얇은 순지와 가는 실을 이용한 설치 작품으로 불교식 등을 연상케 한다. 곽훈 작가의 '시(詩)·다(茶)·선(禪)'展이 8월 14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대구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사진제공=leodigita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불교문화재 제대로 즐겨요"

### 불교중앙박물관 문화 체험 강좌 개설

**문화재 강좌·부채그리기 등**
**8월18일부터 박물관시청각실서**

불교중앙박물관이 여름 방학을 맞아 '불교문화재, 제대로 즐기자'를 실시한다. 8월 18일~9월 22일 불교중앙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2012년 하반기를 맞아 마련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불교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가 능하다. 강좌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재 관련 강의는 물론 부채 채색으로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체험 시간도 마련된다.

불교중앙박물관 김혜원 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유물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 강의는 불교문화재의 이해를 돕기 위해 ppt를 활용해 자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설명한다.

체험프로그램 재료비는 인당 5000원이며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재료비는 인당 3000원이다. 교육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02) 2011-1960


지난해 실시된 부채체험전

정혜숙 기자

# 진관사 사찰음식 특강

### "자연을…" 9월 7일까지

진관사는 9월 7일까지 산사음식 여름특강을 실시한다. '자연을 먹고 마음을 비우다'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강연은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 진관사 산사음악연구소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진관사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사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강의다. 참가자들은 요리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통해 전통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의는 ▷도토리묵냉채 표고버섯장조림 깻잎양념무침 ▷메밀들깨국수 두부장아찌 비름나물무침 ▷목이버섯겨자채 고추장떡 고구마순나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02) 359-8410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연꽃이있는풍경(小/12절) 800원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천진미소(大/6절) 1,100원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300원
• 규격 : 30.5cm×31cm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정가 1,3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여름 산사 추억

# 화폭에 담아온 가람의 숨결



이호신
화가

## 동해 두타산 삼화사에서

장마가 지나고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시원한 계곡의 산사가 생각난다. 십수년전(1999년), 한 여름에 화구를 메고 산사를 찾아 떠났던 곳이 동해의 '두타산 삼화사' 였다. 당시엔 집중적으로 가람의 숨결을 화폭에 담고 있었는데 그때 인연 닿은 곳이 삼화사였다.

사실 절을 그리기엔 여름이 제일 어렵고 힘이 든다. 우거진 숲에 가려 가람배치와 당우가 분명치 않고 전경을 위한 조망도 힘들기 때문이다. 길도 없는 산을 해매며 사생하기란 여간 어려운 사정이 아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가능한 피하는 편인데 당시엔 특별히 폭포와 계곡 낀 절을 찾아 떠났었다.

소위 애국가 배경으로 해돋이 장관이 촛대바위에 걸리는 추암과 더불어 국민관광지 제 1호 무릉계곡이 펼쳐진 곳에 삼화사가 둥지를 틀었다. 가람을 품은 두타산의 '두타(頭陀)'는 범어 'dhuta'를 음역한 것으로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행위의 뜻을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산사의 비경 속에는 겨레의 아픔과 민족의식이 함께 녹아 있다. 거대한 무릉반석 위의 '금란정(金蘭亭)'은 한일합방 때 향교가 폐강된 울분을 삭혀 금란계를 조직, 해방 후 정자를 세우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시회(詩會)를 열고 있는 곳이다.

한편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무릉반석 위엔 선조들의 풍유와 낭만이 그윽하다. 바위에 서각(書刻)된 각종 글씨의 조형과 뜻이 새록새록 하다. 그중 선조 때 강릉부사를 지낸 명필 양사언 (楊士彦, 1517~1584)의 '무릉선원(武陵仙源) 중대천석(中臺泉石) 두타동천(頭陀洞天)' 이라 각인된 초서는 물 흐르듯 유현하고 경쾌하다. 그는 금강산 만폭동 반석에도 명필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삼척부사를 지낸 문장가 유한준(俞漢儁, 1732~ 1811)의 글씨도 물길 속에 꿈틀거리며 여전히 생동한다.

〈삼화사고금사적〉(三和寺古今事蹟)에 의하면 "수령(守令)과 목백(牧伯)들이 이 반석 위에 이름을 새겨 놓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마치 조정 중신들이 늘어선 것 같고, 또한 시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모두 문장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하였다.

> "후삼국 통일 이룬 '삼화' 정신 새기며 비경과 법열속에 붓을 드니 소동파의 오도송 들려오네"

그중 성암(省庵)김효원(金孝元, 1532~1590)선생이 남긴 〈두타산 일기〉(頭陀山 日記)등이 유명하다. 산수비경의 빼어남과 무릉계곡에서의 풍류가 가득하다.

이러구러 눈길은 반석 위를 떠나지 못하나 탁족(濯足)의 시원함이 마침내 돌다리 넘어 삼화사 일주문 까지 이르게 한다. 가람을 둘러보고 객실을 얻어 여장을 푼 후 계곡을 오르니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다. 한 시간여 산길을 오르다 마주한 관음암에서 돌아보니 두타산성과 기암절벽이 장관이다.

또한 절과 무릉계곡이 동해로 빠지는 풍광이 아스라하다. 앞산으로 발길을 옮기자 머리 위로 관음폭포가 쏟아지고 협곡을 가로지르니 쌍폭포가 우렁차다.

계곡을 울리는 한 줄기는 두타산에서, 또 한줄기는 청옥산에서 내려와 무릉계곡으로 흐르는 것이다. 더 산길을 재촉하자 삼단의 용추폭포가 산을 울리고 귓전을 때리는데 가히 보느니 절경이요, 듣자니 절창이라…!

이 웅혼한 산세와 절경을 만끽하고 화첩을 든 길손은 어두워져서야 절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밤새 물소리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이튿날은 두타산성에 올라 굽어보니 국토방위 소명으로 성을 쌓았던 선인들의 노고와 애절함이 짠하게 전해왔다. 이렇듯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오늘의 풍요와 즐김이 있음을 깨달았다.

천년고찰 삼화사는 현재 예전의 위치가 옮겨졌지만 자장율사가 창건(642년)하고 범일국사가 재건한 '삼화(三和)'의 정신만은 여전히 새롭다. 즉 후삼국의 통일을 이룬 뜻이 오늘날 남북통일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길손은 탁족으로 만족하고 부지런히 화첩 위에 붓길을 가니 자연 물길이 화폭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비경과 법열(法悅)에 휩싸인 시간 속에 붓을 드는데 문득 소동파의 오도송(悟道頌)이 들려왔다.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 빛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일세



이호신 作. '두타산 삼화사 무릉계곡' 164×90cm (1999년작)

# 빛과 영상으로 '운주사' 전설 펼쳐내

##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展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전이 8월 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유망 청년작가 발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진 작가는 신작 대형영상작품 '운주사' 를 비롯해 영상작품을 한 순간 캐치한 회화작품 등 총 50여점을 선보인다.

영상 신작 '운주사'는 운주사 천불천탑, 칠성바위 등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미디어영상과 LED로 결합시켰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현대의 삶 속에서 관객들의 감정적인 부분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통일신라 후기 도선 국사의 전설에서 착안했다.

당시 도선국사는 우리 국토의 지형을 배로 파악하고, 배의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호남이 영남보다 산이 적어 배가 기울 것을 염려했다. 따라서 운주사에 1000개의 불상과 불탑을 하룻밤 사이에 조성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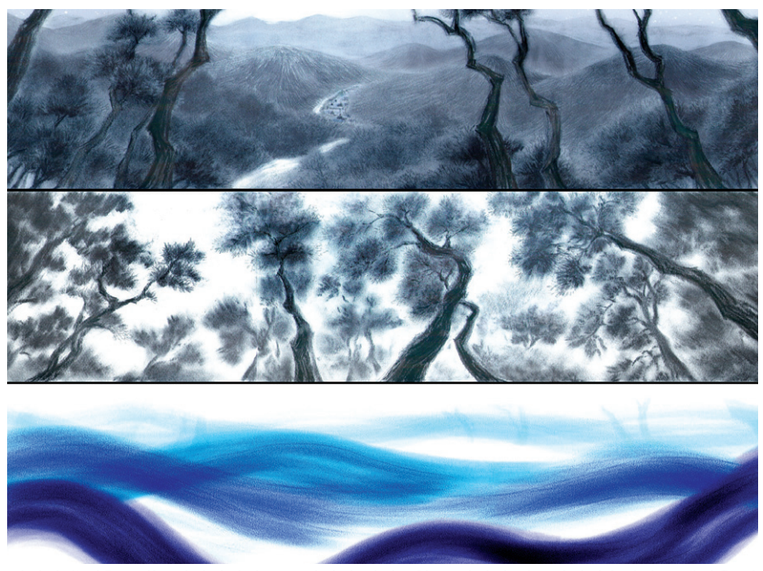
현대인들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자 만들어진 '운주사'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빛과 영상으로 구현한 작가의 새 도전으로 평가 받는다.

진시영은 이번 전시에서 영상 캐치 회화작품 11점과 디아섹(Diasec) 4점, 그리고 회전하는 바다를 영상에 담은 'Tide', 인간미로를 표현하는 영상작품 'Human maze', 태양의 움직임을 LED로 표현한 'Wave', 우리의 전통인 나전칠기와 한국

**흐름_ Flow · 나전칠기 등**
**영상 회화작품 50여점 전시**
**8월 19일 광주시립미술관서**

춤을 소재로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나전칠기 영상작품 5점 등을 선보인다.

특히, '흐름_ Flow'는 빛과 함께 공존하는 인간의 내재된 에너지를 LED와 디지털을 이용해 자체발광 효과로 드러내고 이를 다시 유화로 그려 눈길을 끈다. 이는 전통 회화 기법과 첨단의 디지털 매체 효과를 조합시켜서 독자적인 시각 이미지를 펼쳐낸 연작들이다.



진시영 作 '운주사'.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씨가 8월 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 회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한편, 진시영 작가는 조선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신세계미술제(2007), 하정웅청년작가(2009), 광주미술상(2011)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 2012 윤이상 콘서트…9월 14일 예술의전당

## 작곡가 한스첸더 곡 연주
## 페터 히르쉬가 지휘 맡아

'2012 윤이상 콘서트'가 9월14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윤이상과 그의 여러 작품을 초연한 한스 첸더의 곡이 연주된다. 한스첸더는 세계적인 작곡가로 오페라 〈요정의 사랑〉, 〈Teile Dich Nacht〉, 〈무궁동〉, 〈인상〉, 〈교향곡 5번〉 (베를린필, 피셔-디스카우 협연) 등 윤이상의 걸작들을 다수 초연한 바 있다.

공연에서는 한스 첸더가 직접 추천한 유럽 최고의 현대음악 전문지휘자 페터 히르쉬가 내한하여 서울윤이상앙상블과 함께 정교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또한 윤이상의 '밤이여 나뉘어라'와 실내교향곡 1번, 첸더의 '로슈 Ⅳ',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감상할 수 있다.

또 파가니니 국제콩쿨 1위에 빛나는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현대음악 분야에 탁월한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 소프라노 전유진이 함께 하는 근래 보기 드문 귀중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전에 곡을 집필하는 윤이상 작곡가

한편 작곡가 윤이상(1917~1995) 경남 통영 출생으로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85년에 튀빙겐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리고 1970년에 킬 문화상과 1987년에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 훈장을 받았다.

유럽의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의 중요 작곡가 56인',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1995년에는 독일 자아브뤼겐 방송이 선정한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관람료는 3만~10만 원이며 문의는 (031)445-0364.

정혜숙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 (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선사의
법어와 선문답
최초 해설

백장록 강설
원오스님 역해
신국판 | 흑백 | 528쪽
20,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선교회통(禪敎會通) 이룬 유일한 선어록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 으로 언하대오를!

그동안 혜능, 마조, 임제, 조주선사 등의 선어록은 해설본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백장선사의 어록이 강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 원오스님은 당신의 공부와 깨침을 바탕으로 번뜩이는 지혜와 유머가 가득한 선문답을 원문의 깊은 뜻과 멋을 살려 흥미롭게 도움말(보설)을 주고 있다. 특히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의 마음공부(無爲法)를 독자적으로 드러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전강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의 법융선사심명 법문과 참선수행이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어 깨달아 생사해탈할 정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1일(토) 오전 11시 ~ 8월 15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제정맥선원(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번지)
회 비 : 1인 10만원 / 가족할인 1인당 8만원
준 비 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 (발우 대여)
전 화 : 031)534-3373 / 010-6431-8805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 ‘통도사군자’ 경봉 스님의 설법

〈通 度 寺 君 子〉



**참 생명을 찾는 경봉 스님 가르침**
**김현준 편저**
**효림 펴냄**
**6천원**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사바는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감인세계(堪忍世界), 잡된 것으로 뒤죽박죽 얽혀 있는 회잡(會雜)의 세계로 풀이됩니다. 사바세계에 태어난 이상은 아무리 큰 복을 누릴지라도 인내하며 살아야 하고, 잡된 일로 시달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경봉 스님 탄신 120주년과 열반 30주년을 맞이하여 스님의 법문집이 나왔다. 스님의 법문을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유형별로 정리하고 엮은 다음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설을 붙였다. 열다섯 살의 한 소년은 어머니를 여의고 삶을 궤적을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세계를 잃어버린 소년은 ‘죽음’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의문은 커져만 갔고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직은 따뜻한 세계가 필요했던 한 소년은 1907년 6월 9일 양산 통도사를 찾는다. 그리고 성해화상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께 귀의한다.

스님의 삶도 스님의 말대로였다. 사바는 회잡의 세계이고, 잡된 일로 시달려야 했다. 스님이 강원을 졸업하자 성해화상은 스님에게 통도사의 행정을 맡겼다. 한참 공부에 불을 붙여가고 있었던 스님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스님은 궁리 끝에 말없이 통도사를 떠난다. 내원사를 거쳐 해인사로, 그리고 직지사와 금강산 마하연, 안변 석왕사까지, 스님은 스물다섯 되던 1916년에 통도사로 돌아온다. “네 잘못을 네가 잘 알고 있을 테니, 긴 말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는 이 암자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 그토록 참선이 네 원이라니 여기서 죽도록 해 보거라.” 벌이라고 내린 것이 스님에겐 복이 되었다. 안양암에서 그는 해담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 스님은 반년 뒤인 1917년 정월 통도사 산중회의의 결정에 따라 마산 포교사로 임명된다. 1919년 여름에 내원사 주지를 맡아 마산을 떠날 때까지 스님은 불사와 포교에 매진했다. 스님은 1927년 겨울, 극락암에서 화엄산림법회를 시작한다. 스님이 법회를 시작하며 좌선 수행하던 중이었다. 바람도 없이 촛불이 춤을 췄다. 스님은 촛불 앞에서 확철대오하며 오도송을 읊는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 하하, 이제 만나 의혹이 사라졌으니 우담바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 16세에 출가하여 2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참된 나’를 마침내 찾은 것이다.

책에서 스님은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감인세계 사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법하고 있다. “사바라고 하여 괴로움와 번뇌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계이기에 깨달음의 영역으로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번뇌의 결박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사바세계이기에, 이곳 사람들은 해탈과 깨달음을 갈구하게 됩니다.” 스님은 늘 자기개안(自己開眼)에 의한 자기의 육성으로 설법했다. 대부분의 선사들이 즐겨 인용하는 〈전등록〉이나 〈선문염송〉 등의 조사어록보다는 살아있는 독특한 음성으로 뭇 생명 있는 이의 정신을 일깨웠다. 이러한 스님의 진면목을 보고자 한다면 진리의 세계를 꿰뚫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 진리의 세계는 정법의 눈이 아니면 꿰뚫어 볼 수가 없다. 스님께서는 도(道), 곧 진리에 대해 항상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 그 오묘한 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글로써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목격이도존(目擊而道存)이라. 눈이 마주치는 곳에 도가 있다. 척 보면 알아야지, 설명을 듣고 아는 것은 저 문 밖의 소식이다. 그뿐 아니라 입을 열지 않거나 닫지 않는다고 하여도 진리와는 팔만사천리나 멀어진다. 정법안장은 일체의 이름과 모양이 뚝 떨어진 자리여서, 그 어떤 상대적인 말로 설명하려해도 맞지 않는 것이다.”며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법한다. 이어서 ‘오도 후에 꾼 여덟 번의 꿈’에서는 스님이 오도 후에 꾼 여덟 번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 도인이 꾸는 꿈은 어떤 것인지, 꿈의 실체는 무엇인지 설법한다. 스님은 ‘도는 어디 있는가’, ‘무상과 꿈과 자성’, ‘참 생명을 찾는 공부’, ‘공부를 잘 하려면’, ‘화해롭게 살아라’, ‘일상에서의 깨우침’ 등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법하고 있는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회잡의 사바에서 꼭 필요한 설법들이다.



경봉 스님은 16세에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91세로 입적할 때까지 거의 일생을 통도사에서 보냈다.

**춤추는 촛불 앞에서 20년 만에 견성**
**설명 듣고 아는 것은 문 밖의 소식**

스님은 열여섯에 통도사에서 출가해 91세로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서 입적할 때까지 거의 일생을 통도사에서 살았다. ‘통도사군자(通度寺君子)’라고 불리는 이유다. 스님의 생전 육성이 전해오는 스님의 법문집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관음선이야기

### 빛과 소리

**석암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천8백원**



조계종 관음선원장 석암 스님이 실천하는 마음수행 체험을 엮은 책이다. 책은 석암 스님이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을 통한 마음 수행 중에 느꼈던 수행체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저자에 따르면 관음선은 무념(無念), 무주(無住), 무상(無相)이란 불조의 종지를 잇는 조사의 수행법이자, 지혜와 자비를 완성시키는 고차원의 정통수행법이다. 빛으로 마음의 행복과 열반을 느끼고 소리로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관음선은 빛과 소리를 통해 마음 안의 내면과 마음 밖의 우주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융합의 수행이고, 이근원통을 바탕으로하는, 편하고 성취가 빠른 수행법이다.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빛을 바라보고 입으로 부르는 관세음보살 염불소리를 귀로 들으며 마음이 귀로 모이는 것을 이근원통이라 하는데,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밝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빛과 소리 수행의 요체다. 저자는 “염불공부를 몸과 마음에 사무치게 하는 수행비결이 나의 가풍이다. 한 호흡을 들이쉬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뿜어내고 삼키는 일식탄법(一息呑法)은 번뇌 망상이 생기지 않고 삼매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며 오랜 관음염불수행의 노하우를 소개한다.

**박재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5~7/31

| 순위 | 도서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쌤앤파커스 |
| 2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3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 만덕, 만현 | 현지궁현지사 |
| 4 | 기도 (내려놓기) | 법륜 | 정토출판 |
| 5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 정목 | 공감 |
| 6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7 | 사찰의 상징세계 | 자현 | 불광출판사 |
| 8 | 해탈장엄론 | 감뽀빠 | 운주사 |
| 9 | 천년사찰 천년숲길 | 여태동 | 클리어마인드 |
| 10 |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 주경 | 마음의숲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건강해져라! 행복해져라! 생태공동체가 대안이다”

### 생태공동체 뚝딱 만들기

**시골 한의사 외 지음 | 수선재 펴냄 | 1만3천원**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공동체’가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그 중에서 생태적인 삶과 함께 교육, 문화, 영성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생태공동체선애빌’ 사람들의 이야기와 미국인이 뉴욕에서 한국문화에 기반을 둔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 세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 직장을 떠나 대안적인 교육과 삶을 실천하는 사연, 난데없이 제주 생태마을 가꾸기에 올인한 비즈니스맨의 인생 고백, 어쩌다보니 양치기 소년이 된 환경운동가의 변명 등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우리 이웃들이 진정한 삶을 찾으며 겪는 진솔한 이야기들이다.

“한국의 전통인 선문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다. 현문명의 제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다.” -선(禪)에 빠진 푸른 눈의 한국인 로어 셰퍼드.

“매일 숨 쉰 것밖에 없는데 마법처럼 나의 삶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호흡으로, 꿈꾸던 선인들의 의술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믿는다.” -시골 한의사.

“별 전체가 대단한 학교인 지구에서 공부는 언제나 진행 중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포근포근 엄마가 되어 줄게.

“나의 아이와 그들의 아이가 구분 없이 한 울타리 안에서 형제로 자란다.” -이런 대가족을 보셨나요?

아직은 낯선 단어인 생태공동체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근본 원리로 삼는 공동체이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거와 생업, 놀이와 예술, 육아와 교육 등을 같이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이 책을 통해 생태공동체가 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한 해법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거나, 대도시보다는 푸르른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은 30~40대 직장인이라면 읽어볼 책이다.

**박재완 기자**



땅과 벗하고 대자연에서 배움을 얻으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람들

## 일본의 정원 미학

### 사쿠테이키

**다치바나노 도시쓰나 지음 | 김승윤 옮김**
**연암서가 펴냄 | 2만원**



‘정원 만들기’의 고전이다.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진 〈사이테이키(作庭記)〉. 약 천 년 전 일본 헤이안 시대에 다치바나노 도시쓰나가 썼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책은 헤이안 시대의 사람들이 정원에 엮어 넣었던 의미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자연의 이미지다. 정원은 아름다운 자연풍의 간결한 묘사였다. 두 번재는 풍수사상이다. 정원은 가족들에게 편안함과 복락을 주는 장소로 기획되었다. 세 번째는 불교와 관련된다. 정원의 경물들은 불교적 상징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헤이안 시대에 유행했던 복잡한 금기체계가 정원에서도 나타난다.

책은 일본에서 저술된 책이지만 고대 동양세계의 문화가 축적된 책으로 정원 만들기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지침서이다. **박재완 기자**



# 여행길 사찰서 찾은 인생 키워드 20가지



## 남자의 여행

**글 유명종**
**그림 이종송**
**사진 전성영**
**디스커버리미디어 펴냄**
**1만5천원**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며 여행을 떠난 한 남자의 감성과 사유를 기록한 산문집이다. 문화 잡지부터 여성지까지, 15년 동안 잡지 기자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정신없이 살아온 저자는 불혹의 문턱에서, 자신의 영혼이 점점 폐허로 변해가고 있음을 아프게 깨닫는다.

저자 표현에 따르면 "6월의 숲 같은 내면을 꿈꾸었으나 가슴에 들어찬 것은 숲이 아니라 세한의 마른 들판이었다."고 아쉬워 한다. 저자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말이 아니었다. 비염을 얻었고, 툭하면 감기에 걸렸다. 누적된 피로에도 무신경해진 당시 저자의 삶은 생각할수록 지속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저자는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며 여행을 시작했다. 고성서 해남까지, 산사에서 지방 소도시까지, 주말마다 역맛살을 긍정하며 6년을 돌아다녔다.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사찰이었다. 그의 여행은 일종의 비우기였다. 성공, 소유, 화, 분노, 불화, 피로와 권태까지. 머리와 가슴에 가득 차서 급기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욕망의 찌꺼기를 하나 둘 비워내는 일이 시급했다. 그리고 6년 후, 저자는 욕망의 찌꺼기를 비운 자리에 사랑, 꿈, 공존, 관용, 통섭, 조화, 가치, 소소익선 같은, 평생 품고 살아야 할 인생 주제 20가지를 채워 넣었다. 사유와 성찰로 얻은 너무도 값진 가치의 언어들이었다.

이 책은 여행길에서 길어 올린 인생 주제 20가지를 사진, 그림과 함께 한 권의 책에 담아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인생 키워드는 모두 절에서 얻었다. 그러나 이 책이 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텍스트로서의 절이 아니라 절이 품은 컨텍스트(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20가지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저자의 감성과 생각을 녹여내 산문집으로 엮었다.

**공존, 관용, 통섭 등 삶의 실천 목표**
**인생의 지침 모두 사찰 여행서 얻어내**
**그림 20여점과 사진 70여점 함께 실어**



흙벽화 기법에 천연 안료를 사용해 그린 화엄사 전경. 이종승 교수의 작품이다.

예를 들면 해인사에서는 세 가지 빛깔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강진 백련사에서는 남자의 눈물에 대해 사유한다. 화순 운주사에서는 꿈과 연대를 말하고, 부여 무량사에서는 조화를 주제 삼아 이야기를 풀어낸다. 남양주 수종사에서는 대화와 통섭을, 지리산 구층암에서는 파격과 일탈의 아름다움을, 순천 선암사에서는 공존의 미학을, 김제 망해사에서는 소소익선을 이야기한다. 월출산 무위사에서는 공자와 노자를 끌어들여 '중용과 무위'를 말하고, 안동 봉정사에서는 최고와 권위에 대해 문제적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영주 부석사에서는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자의 눈물'과 '남자의 생각'으로 돼 있다. 느낌이 짙은 글을 '남자의 눈물'로, 사유가 더 담긴 글을 '남자의 생각'(2부)으로 묶었다.

1부 '남자의 눈물'에서는 장소, 자연, 사물, 인물, 역사에 감정을 이입해 사랑, 꿈, 죽음 같은 주제를 서정성 짙은 문체로 풀어낸다. 예를 들어, 저자에 따르면 해인사는 '사랑의 절'이다. 해인사는 겉으로 보면 기표로서의 팔만대장경을 품은 삼보사찰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삼촌을 사랑한 진성여왕의 비련과 신라를 사랑했으나 조국에게 버림받은 최치원의 자기 연민, 그리고 대장경을 만든 고려 백성들의 순결한 집단적 사랑이 알알이 맺힌 우리나라 최고의 '사랑의 절'이다.

2부 '남자의 생각'은 사유와 해석, 그리고 질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 20여 점과 사진 70여 점을 함께 담고 있다. 건국대 회화과 이종승 교수는 작가 특유의 미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유로움이 넘치는 여행지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 천태실상론 적용 반야심경 해설

## 반야심경 강의

**빈종법사 지음 | 이동형 번역**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널리 독송되는 경전을 꼽으라면 단연코 〈반야심경〉이다.

분량이 적어 암송하기 쉬운 반면, 내포돼 있는 뜻은 아주 세밀하고 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전의 내용은 웬만큼 불교를 공부한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깨달음의 경지에서나 파악되는 '진공실상'의 경계를 그대로 설해서다. 다른 경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반야심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경지를 수행을 통해 체득하는 길이 첩경이다. 또한 자세히 설명돼 있는 안내서는 이 경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바로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하는 저술서이다.

이 책은 대만의 대표적 고승 빈종법사가 천태 교학과 지관을 적용해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단순히 공(空)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공묘유(眞空妙有)임을 천명하고, 이것이 중생 모두에게 갖춰져 있음을 천태 실상론에 의거해 세밀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 수행법인 지관, 특히 일심삼관 수행을 통해 제법의 실상을 관함으로써 반야지혜를 증득해 보살도를 행하는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책 말미에는 천태의 경전 해석 방법인 오중현의를 사용해 〈반야심경〉의 의미 및 핵심 종지와 수행법, 그 덕용과 다른 경전과의 관계 등을 교학적으로 정밀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기존 반야심경 해석들과는 확연히 차별된다. 왜냐하면 고도의 천태교학 사상과 지관수행법에 입각해 〈반야심경〉 내용을 이론과 실천의 양 방향에서 동시에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 전체를 강의함에 있어서 천태의 모든 교학과 수행법을 적절하게 응용해 경의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했다. 먼저 경전 제목인 '반야바라밀다심경' 8자를 풀이함에 있어 천태대사가 〈법화경〉 경전 제목을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해 서술하고 전체 경전의 강요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번역자인 현장법사의 약력과 업적을 기술하고 번역한 법사의 공덕과 그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경문을 정식으로 풀이했는데, 크게 '나누어 해석함'과 '종합해 해석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나누어 해석함'에서는 경문에 따른 경의 요지와 의미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해석했다. 이어 '종합해 해석함'에서는 경문 요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초학자들이 경의 대의를 파악하는데 편리하게 했다.

경문을 다 풀이한 다음에는 따로 〈반야심경의 오중현의〉라는 항목을 두어 천태의 오중현의를 자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반야심경〉 내용 전체를 거기에 맞춰 종합 정리했다.

또한 '부록'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뽑아내 도표와 함께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만 고승 빈종법사 강의**
**'진공묘유'의 경지 밝혀**
**교리내용뽑아 도표와함께 수록**

따라서 부록은 본문 전체에 있어 사전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훌륭한 교리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반야심경〉을 '공 사상을 천명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쉽게들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이 품은 뜻은 깊고 넓다. 고도의 수행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서 공사상이 지니는 풍부한 의미와 구체적 실천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싶다. **김주일 기자**

**▲저자 빈종법사(1911~1958)는?**

대만 창화 녹항 출신이다. 14세때 출가해 17세에 띠집을 짓고 6년간 고행한 후에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 명산대찰을 편력, 1943년에 천동사 원영 법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천태산의 정권 노화상에게 천태교관과 〈천태사교의〉를 전공해 천태의 삼관과 심승관법의 오의를 체득했다. 28세에 대만으로 돌아와 홍법하며 천태종을 크게 드날렸다. 1951년에 폐관에 들어가 대장경을 열람하고 54년에 출관했는데, 각지의 요청에 응하여 불철주야로 설법하였다. 저서에 〈반야심경요석〉 〈불설아미타경요석〉 〈능엄경의 등〉 〈아인생사지유래〉 등이 〈빈종법사유집〉으로 편집돼 세상에 유통되고 있다.

# 식품영양소와 질병 관계 설명

## 무엇을 먹을 것인가

**콜린캠벨 · 토마스 캠벨 지음 | 유자화 옮김**
**열린과학 펴냄 | 2만원**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립암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34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37.2퍼센트에 이른다. 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 되어가는 속도와 비례하게 머잖아 이 수치도 미국을 따라잡을 기세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암 진단율과 생존율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영양학은 단백질 영양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단백질을 숭배한다. 몸보신, 영양식 하면 다들 단백질을 떠올리고,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우유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식품들과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암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캠벨이 수행한 연구의 결론은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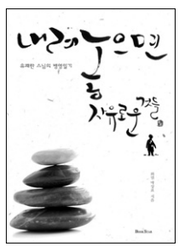
백질이 암 발생을 껐다 켰다 하는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50년 가까이 영양과 건강에 관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이끌어 온 콜린 캠벨은 이 책을 통해 식품의 영양소와 질병 간의 관계를 밝히며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전망과 현실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 욕심 내려놓으면 행복해져

## 내려 놓으면 자유로운 것들

**박상표 지음 | 북스타출판사 펴냄 | 1만2천원**



언젠가 40대 한 거사가 저자를 찾아왔다.

"스님 큰일입니다."

"왜요?"

"아 글쎄, 사랑하는 제 아내가 그만 이혼하자는 겁니다. 많이 배우질 못했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40평대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 안정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거사님, 그러면 거사님은 왜 돈을 벌려고 하셨나요?"

"저요? 그야, 돈 벌면 좋은 집에 살고, 아내랑 저녁이면 영화 보러 다니고, 아이들이랑 놀고 그렇게 살려고요?"

"그래요! 그럼 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 스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화엄 박상표 법사가 출가해 행자생활부터 군 포교를 위해 재직하는 동안 느꼈던 소소한 깨달음을 담담한 필치로 서술한 것이다.

저자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며 "우리 중생들은 욕심과 아둔함으로 그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망각하고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곤 한다. 그래서 불행해지고, 병통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공군 군종 장교로 입대해 현재 공군교육사령부 충국성불사 법사로 있다. **김주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이 오 칼 라 지 붕 공 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자장이 통도사 금강계단을 시설한 까닭은 ?

# 계율이 신라 헌법, 교단 정비 국력 배가



통도사 금강계단. 당시 승려는 학문을 닦고 보름마다 계율을 설법했다. 승려 과실을 경계하고 불경 · 불상 모시는 것을 항례로 삼으니 백성 대부분이 계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 1. '호법'과 '정율'의 정체성

자장(576~655, 590~658, 608~677?)은 신라의 대표적 고승이었다. 그의 입적 직후 적지 않은 전기가 지어졌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 민지(閔漬)가 지은 『오대산월정사사적』에는 「봉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 이하 「第一祖師傳」)가 실려 있는데 그 전거로 「원효소찬(자장)본전」[元曉所撰(慈藏)本傳]을 들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원효가 지었던 『자장조사전』으로 추정되지만 현존하지 않아 확정할 수 없다. 또 일연의 『삼국유사』「탑상」편의 '가섭불연좌석'(迦葉佛宴坐石)에 언급된 「자장전」이 원효 저작인지도 확정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당나라 도선의 『속고승전』(645) 권24의 「당신라국대승통석자장전」(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이하 「당자장전」)과 일연의 『삼국유사』「의해」의 '자장정율'(慈藏定律)조가 있다. 일연의 '자장정율'조는 도선의 '당자장전'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도 자장이 신라로 돌아온 뒤의 말년 행적까지 담고 있어 온전한 전기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전기들을 통해 자장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속고승전』에서 언급한 경율(經律)의 소(疏) 10여권 중 『사분율갈마사기』와 『십송율목차기』, 『아미타경소』, 『아미타경의기』(일본승 良忠의 『法華讚私記』에 신라 靑林寺 慈藏述이라고 인용됨), 『관행법』(1권) 등이 현존하지 않아 그의 인식틀을 알아보기는 어렵다. 자장은 계율과 미타계통의 저술을 남겼고, 당에서 돌아온 뒤 분황사에서 『섭대승론』을 강론하였다, 그리고 황룡사에서 「보살계본」(유가보살계본)을 7일 7야 강의하자 하늘에서 감로가 내렸고, 운무가 강당을 덮었다는 대목을 보면 신라 불교 초전기의 섭론계 및 구역 유식계에 입각한 사상가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당나라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주요 흐름과 궤를 같이 하여 연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불교 섭론계 및 유식계 대 사상가**
**일연은 자장을 계율확정 인물로 규정**

자장은 불교의 전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때문에 도선은 그의 전기를 담은 「당고승전」에서 그의 소속을 '명율'(明律)편이 아니라 '호법'(護法)편에 분속시켰다. 이것은 자장을 '호법보살'(護法菩薩)이라고 총평(總評)한 동시대인 도선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후대의 일연은 자장을 '정율' 즉 계율을 확정한 인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나라 도선과 고려 일연의 자장 인식이 동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연은 "이에 통도사를 창건하고 계단을 쌓아 사방에서 오는 이를 제도하였다. 또 (그가) 태어났던 집을 고쳐지어 원녕사(元寧寺)라고 하였다. 낙성회를 열어 잡화(雜花) 만게(萬偈)를 강의하였더니 52녀(女)가 감응하여 나타나 (그의 강의를) 듣고 증명하였다. 문인들로 하여금 그 숫자대로 나무를 심게 하여 이 이적을 표시하고 지식수(知識樹)라 불렀다"적고 있다.

불교 공인 뒤 신라 불교는 아직 출가자를 위한 기본 위의와 법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으로 건너가 출가한 원광이나 안함과 자장, 혜공과 혜숙, 원효와 의상 등과 같은 신라 초기들의 사승(師僧)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출가 위의나 법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평왕은 진(陳)나라에서 귀국한(602) 지명(智明)의 계행을 존경하여 대덕(大德)으로 삼았다. 지명은 『사분율갈마기』라는 저술을 지었으므로 그 당시 계본과 갈마문이 유통되어 있었음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장은 당에서 돌아오기 이전까지 승려들의 득도(得度)를 위한 계단이 시설과 수계작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연은 바로 이 점에 착목하여 자장의 정체성을 신라불교 승려들의 출가 위의와 법식을 확정한 '정율'(定律)에 두었다.

### 2. 복식의 제정과 교단의 정비

자장의 전기들은 그의 탄생을 붓다에 상응하여 윤색하고 있다. "자장의 아버지는 진골 소판 무림(武林)이었다. 그에게 후사가 없자 천부관음(千部觀音)을 조상(造像)하여 아들 하나 낳기를 바랐다. 꿈에 별이 떨어져[星墜受胎] 어머니의 품안으로 들어오더니 곧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석가세존과 생일이 한 날(4월 8일)이라 이름을 선종랑(善宗郎)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령한 의지가 맑고 지혜로우며 문장력이 풍부해졌으나 속세의 취미에 물들지 않았다. 양친을 일찍 여의고 속세의 시끄러움이 싫어서 처자를 버리고 전원을 희사하여 원녕사(유학 이후 조성?)로 만들었다. 홀로 깊숙한 곳에 지내면서 이리와 호랑이도 피하지 않았다. 고골관(枯骨觀)을 닦으면서 게으른 마음을 좇기 위하여 망을 만들어 주위를 가시덩굴로 둘러치고 그 속에 알몸으로 앉았다. 움직이면 곧 가시에 찔리도록 하고, 머리는 들보에 매달아 혼미한 정신을 없앴다."

자장이 매진했던 고골관은 젊은 시절 치열했던 그의 수행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장이 출가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1) 부모를 일찍 여읜 뒤 출가했다는 설과 2) 꿩의 눈물을 보고 출가했다는 설이 있다. 전자는 당나라에 전해져 기록된 설이다. 후자는 「황룡사찰주본기」의 기록된 설이다. 거기에 따르면 자장이 어렸을 때 살생을 즐겨하였는데, 하루는 매를 놓아 꿩을 잡았는데 꿩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출가하였다고 한다. 때마침 조정에 태보(台輔, 재상)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진골 출신이었던 25세의 자장은 물망에 올라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왕이 교지를 내리기를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하였다. 자장은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행을 지키다 죽을지언정[吾寧一日持戒而死], 계행을 깨뜨리고 백년 동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不願百年破戒而生]."

자장의 말을 전해 들은 선덕여왕은 비로소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다. "여러 바위 틈새에 깊숙이 숨어 살다 보니 아무도 양식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이때 이상한 새가 과실을 물어다가 바쳤으므로 손으로 받아먹었다. 얼마 뒤 꿈에는 천인이 와서 오계를 주므로 그제야 비로소 산에서 내려오니 향읍의 사녀들이 다투어 와서 계를 받았다." 이후 자장은 변방에 태어난 것을 탄식하며 서쪽으로 유학하여 문인 승실 등 10여명과 당나라 청량산(오대산)을 찾았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은 자장에게 범계(梵偈)를 준 뒤, '선덕왕은 찰리종으로서 일찍이 부처님의 수기(授記)를 받은 인연이 있으므로 나라를 화평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태화지변(太和池邊)에서 신인(神人)을 만났는데 신인은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도록 일러주었다. 또 종남산 원향(圓香)선사에게서 '황룡사 구층탑 건탑의 권유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사냥서 '꿩 눈물' 보고 출가 전해져**
**당에서 돌아와 승려 기강 세울 결심**

신라는 자장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승려들의 득도를 위한 계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조정에서 의론하여 말하였다. '불교가 들어온 지 비록 오래 되었으나 불법을 지키고 받드는 규범이나 의례가 없으니 기강을 세워 잘 다스리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 없다.' 왕에게 아뢰자 왕은 칙령으로 자장을 대국통으로 삼고, 승려의 모든 규칙을 승통에 맡겨 주관하게 하였다. (중략) 승니(僧尼) 오부로 하여금 각기 옛 학문을 더 닦고 보름마다 계율을 설법하고, 겨울 봄으로 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지계와 금계를 알게 하며, 사람을 두어 관리하고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순찰하는 사람을 두어 시골의 사찰을 두루 돌아 살피게 하고, 승려의 과실을 경계하고 독려하며, 불경과 불상을 엄숙히 모시는 것을 항례로 삼으니 한 시대의 호법이 이때에 성대하였다." 이렇게 되자 당시 나라 사람들은 10중 8, 9명이 계를 받았으며 머리 깎고 불법을 청하는 이가 해마다 늘었다.

### 3. 황룡사탑 조성과 금강계단 시설

신라는 일찍부터 중국의 법식을 배워 승관제(僧官制)를 두었다. 진흥왕 11년에 안장(安藏)법사를 대서성(大書省)으로 삼고 이듬해에는 고구려의 혜량(惠亮)을 국통(僧統)으로 삼았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국통이란 왕이 승려를 우대하기 위한 영전적(榮典的) 칭호였으며, 승관제 역시 형식적인 데 지나지 않았다. 반면 자장이 귀국하면서부터는 승관제가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 내용적으로 정비되었다. 신라 중고기 말엽인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보다 유연한 대외 관계가 요청되었다. 이때의 분위기를 도선은 "왕은 자장이 대국에서 경앙(景仰)받고 정교(正教)를 널리 유지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강리(綱理)가 아니고서는 숙청(肅淸)할 수 없다고 하여 자장을 대국통으로 명하고 왕분사(王芬寺, 芬皇寺)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적고 있다.

신라 왕실은 자장의 건의에 힘입어 진덕왕 3년(649)에 중국의 의관(衣冠)을 입고, 이듬해에는 당나라 연호(年號)인 영휘(永輝)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나라는 중국에 조빙(朝聘)할 때 마다 그 반열이 번국(蕃國)의 윗자리에 있게 했다. 이것은 자장이 당시 국제간의 외교적 상례인 '조공'(朝貢)과 '책봉'(册封)의 관계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외교노선을 취했던 결과로 이해된다. 그는 왕의 부름을 받아 대국통이 되었다. 당시 대국통은 단순한 승관적 지위인 '영전적' 칭호를 넘어서 '비상직'(非常職)으로서 자리매김되었다. 비록 비상직이기는 했지만 불교계의 전권을 부여받음으로써 불교 교단을 정비할 수 있었다. 자장은 통도사에 계단을 구축하여 출가자 및 일반 백성의 수계까지 이루어 내었다. 자장은 안함의 불연국토설을 계승하여 이 땅을 부처와 인연이 있던 나라로 설정하였다. 「황룡사탑찰주기」이렇게 적고 있다.

"(선덕)왕 12년 계묘세에 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여 (종)남산 원향선사에게 인사하였다. 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마음속으로 그대 나라의 황룡사를 보았는데, 구층 솔도파(率堵波)를 세우면 해동의 제국(諸國)이 모두 그대 나라에 항복할 것이다'고 하였다. 자장은 이 말을 간직하고 돌아와 보고하였다." 결국 조정의 결정에 의해 그는 황룡사 구층탑을 조성하고 안함 이래의 신라 불국토사상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불사들은 진종설과 골품제의 확립과 함께 왕족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진평왕 이후 신라 중고기말엽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출현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라 불교의 본유(本有)적 자긍심과 종교적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자장은 통도사를 창건하였고 그곳에 금강계단을 조성하였다. 『속고승전』「당자장전」은 이렇게 적고 있다.

"(그는) '사탑 십여 개'를 지었다. 하나씩 세울 때마다 온 나라가 함께 숭앙하였다. 자장이 '만일 사탑을 조성함에 신령함이 있을진대 기이한 상서를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발원하니 문득 건발(巾鉢) 속의 사리를 감득하였다.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여, 시주를 바친 것이 산처럼 쌓였다. (대중들은) 즉시 계를 받고, 선을 행함이 더욱 많았다." 이들 중 대표적인 사찰이 통도사이며 금강계단이다. 금강계단을 세운 시기와 형태는 도선이 남산 율종을 창종하고 『계단도경』을 간행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금강계단은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하면 도선의 『계단도경』이 제시한 양식과 구조에 의하여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장의 경세적 노력은 선덕여왕이 승하할 때까지 이어져 신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자장의 정신적 지원자였던 선덕여왕이 타계하고 난 뒤부터 그는 정치계 및 불교계의 주류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장은 중앙 정치와 종교계로부터 벗어나 태백산과 오대산을 순례하면서 문수신앙의 보급과 실천에 힘쓴 것으로 이해된다.

**금강계단에서 백성 수계 거행**
**금강계단은 신라 규범의 상징**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김영태, 『삼국유소소전의 신라불교사상연구』(1979).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일조각, 1989).
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민족사, 1992).
고영섭, 『한국불학사』(연기사, 2005).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 무거운 바위를 바람이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지혜로운 이는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 법 구 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무상1년, 유상10년 A/S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작명 개명상담**
동양최초로 한글 한문이름을
오행, 수리, 주역으로 밝혀 좋은이름으로
불운을 행운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
* 실패, 고통, 고민 이름을 풀어 보세요
주역성명학 개인지도함
(명리통변 및 평생 아름다운 직업임)
효도이름감명소 02)416-2537
010-4007-9057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불교 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계룡산 천황사 기도도량**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곡성 태안사)
(보시금 상담 후 절충)
010-8617-6368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육임은 神視입니다. 신을
잘못 받아서 헤매이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십시오.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주)
017-206-0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심 와 기 도**
● 전생과 이승과 저승을 아우르는 영통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전
스님
모십니다
(개원사)
010-2515-0664

비구니 기도스님,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721-0449
010-3579-6444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분
청정도량 기도와 함께
자연과 자연식으로
건강을 회복하세요
010-6370-6769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010-3450-1147

**모 집**
예비 승려를 모집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 여권용 사진 2매 (60세 이하)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60세이하, 숙식가능한 보살님 (부부도 가능함) 급여 상담 후 결정
(용인시 수지구)
031)262-0606 / 010-8930-157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초능력 개발
초능력 개발 비법 전수
– 초능력 개발사업 하실 분에 한함
– 신내림에 실패하신 분에 한함
오십견 치료 (1~5회 완치)
치료비법전수
010-5822-0766

신심있는
女 사무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대는 40이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님
월급 관련은 면접 후 결정
월 4회 휴무.근무 6개월때
월급의 100% 보너스
사성암 종무소
061-781-4544
010-4709-4343

**불교전문 교정인을 찾습니다**
불교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교정, 윤문 전문인을 모십니다. – 재택근무 –
간단한 테스트 후 교정료 결정
전문가로서 경험있는 분만 전화 요망
한국불교대학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0-3618-6061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배우자 구함 (男 56세)**
공인중개사 운영
도심 속에서 벗어나
시골 생활을 찾아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여성 인연바람
011-717-5316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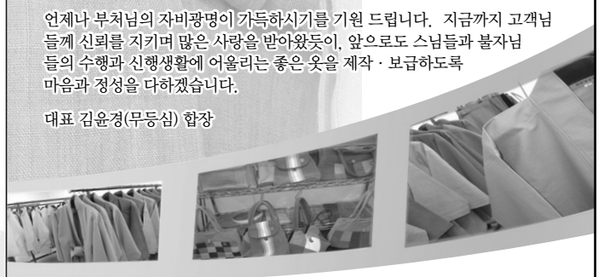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6평
- 요사 : 190평
- 부지 : 51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60평
- 요사
- 부지 : 500평
- 가액 : 2억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대금 : 3억 5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불로동
- 대지 : 70평
- 2층 총 60평 건물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사찰주변공원 경관수려
- 공원주차장 사용가능
- 지역에 잘 알려진 사찰
- 가액: 2억 7천만원

010-4534-6697

## 포교원운영 건물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공단동
- 7층 건물중 7층(53평)
- 옥상마당 전체사용가능
- 구미 순천향병원 맞은편
- 아파트밀집 상가지역
- 주변 환경과 경관이 좋아
- 포교원 운영하기 적합함
- 가액 : 7천5백만원

010-3356-4869

## 포교원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선사APT정문앞
- 지하철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70평
- 전세 800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2)481-3635
010-3714-3635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 평수 40평(사찰등록)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 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700만원(비품일체)

055)252-3172

##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6천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천강리
- 50평, 단독주택
- 법당, 방3, 화장실 3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협의

010-9320-546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7평, 지하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 (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000만원포함)

010-3194-3738

##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차장,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 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 부지: 650평, 법당 30평
- 요사 50평
- 차량진입
- 산과 호수가 있는곳
- 가액: 7억 7천만원

010-4586-4525

## 포교원안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이먀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011-809-7434 주인직접

## 암 자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도로변 위치
- 대지 120평, 건물 20평
- 황토 벽돌, 한옥, 임법당
- 관세음보살, 신중탱화, 산신
- 즉시 입주 가능 • 전세 6천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조용히 수행하실 분

010-6579-2303
010-2787-4148

##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 평수: 104평, 건물 법당 25평
- 산신각, 단청 필
- 포대화상, 석탑, 사자1쌍, 요사채 2동, 주차장 넓음
- 가액: 3억 2천만원

019-550-9725

##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11억 예산

( 서울 – 안양 – **의왕** )

010-3678-2567

## 부산 금강공원내 기와집

- 방2, 현대식 부엌
- 임법당 6평
- 스님들 기도처 및 토굴 최적지
- 조용한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
- 전세 1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600만원

011-550-5448

##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시장앞
- 평수 : 45평
- 2층 독채
- 보증금 4000만원 월 50만원

010-3595-9856

##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홍천읍에서 5분거리
- 425평, 건물 45평
- 토굴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500만원

010-8983-5257

##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화성군 동봉면
- 대지: 1500평
- 요사채 20평 법당 15평
- 건물2007년 조립식건물
- 가액:평당 15만원 시설비: 7,000만원
- 가액 2억3천만원

010-2603-6967

## 사 찰 안 내

- 지리산자락 35년역사, 아름다운곳
- 부지: 약 2,000평
- 계곡내 마르지않는 석간수
- 법당25평,수선당18평,
- 산신각6평, 독성각 2평,요사채60평
- 시설: 심야전기보일러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싫은 너무나 포근한곳)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코자함
- 가액: 2억 9천 5백만원

010-4708-1533

##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 5층 80평, 엘리베이터 有
- 천안역 3분거리 • 관음, 칠성, 산신, 용궁 모셔져있음,후불탱화,신중탱화
- 법당, 큰방1, 에어컨2대, 냉장고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조정가능)

010-4781-8658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역 역세권
- 3층 건물 중 2층, 평수: 33평
- 법당1, 스님방1, 공양간1, 실내화장실1, 샤워실1
- 보증금1천만원, 월세 77만원
- 부과세 포함, 시설비 3300만원
- 상담 후 절충, 즉시 법회 가능

011-778-667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 평수 226평, 법당 15평
- 요사채 20평
- 가액: 7500만원

010-4536-8175

##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3층 건물
- 평수 : 3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 30만원

010-3595-9856

## 강남포교원안내

- 위치: 논현역 1번출구 1분거리
- 2층 35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5만원
- 관리비 5만원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780-3580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1-8725-3196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시내
- 부지 : 70평
- 법당 : 30평(목조기와)
- 요사 : 70개
- 가액 : 7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 도심암자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삼랑진읍
- 삼랑진 기차역에서 200미터거리의 도심암자
- 평수:대지 : 63평
- 법당:11평, 요사채: 25평 현대식
- 30대이상 주차장시설 완벽
- 가액: 8,500만원 (스님,법사,영철학자,보살님 참 좋음)

010-2055-3366 (스님 직접)

## 사 찰 ( 급 )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내 • 총평수 : 1천평, 대지 300평
- 자연석 바위로 기초하여 법당, 신중단, 영가단을 법당 내에 설치하고 법당 내벽은 푸른대나무를 사용하여 신성함을 더했고, 옆면, 뒷면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쌓여있다.
- 절마당에 작은 연못, 앞은 계곡의 물이 사계절 흐르고 사찰로 진입하는 단독 길은 산밑의 도로와 일반국도에서 50M 걸어오면 계천을 걷는 원형다리. 밑에는 맑은 물속에 물고기가 놀고있는 천해의 경관이다.
- 법당, 주지실, 산신각, 요사채. 건물 4동. 가액 : 3억 5천

055)224-3385 주지 합장

## 암 자 ( 토 굴 ) 안 내

- 위치 :경기 김포시 하성면
- 대지 100평(단독주택1층)
- 법당 25평, 2층 컨테이너 1동
- 모든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만사형통
- 가액: 2억(절충가)전세도 가능

010-9413-9026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
- 법당(종교 집회장 25평, 요사 한옥1동 )25평
- 산신각 5평, 공양간 20평(조립식)
- 용궁있음, 법당, 요사 등기필 (공시지가 2천 8백)
- 사용대지 약 3천평 (연 임대료 60만원)
- 가액: 4천 5백만원

010-9707-5512

##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방2, 주방,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1천만원, 주방기구 일체

010-2208-7749

##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 3층 30평
- 삼존불(동불) 법당, 에어컨 완비
- 즉시 법회 가능
- 전세금 천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 천오백만원 합계 이천오백만원

010-8650-0014

##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논공
- 3층건물중 2층(48평)
- 삼존불, 지장보살
- 시설 방2, 화장실등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주차시설 별도완비
- 주변시장, 아파트밀집지역
- 보증금 3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1200만원(절충가)

010-4056-5677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 지 사 명 | 지사장명 | 연 락 처 |
|---|---|---|
| 부 산 지 사 | 이 재 진 | 051)632-0064 / 011-488-7745 |
| 대 구 지 사 | 손 문 철 | 053)768-8008 / 010-2813-8008 |
| 광주전남지사 | 양 행 선 | 062)384-3009 / 010-2629-1508 |
| 전 북 지 사 | 조 동 제 | 063)910-8977 / 011-9642-7733 |
| 영 주 지 국 | 박 영 애 | 054)634-3429 / 010-9373-3778 |
| 경남 남부지사 | 청운스님 | 055)746-9778 / 011-870-0021 |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러 퍼진다. – 법구경 –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 병석 명상법 -

〈6〉 고요한 마음 지켜보기

# 놓아버리는 공부 익으면 번뇌 영원히 종식

**끝을 볼 때까지 관찰하세요**

따라서 마음은 더이상 사물을 가로채려 들지 않을 것이며, 더이상 좋다 싫다 하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가운데, 부단히 그 내면을 빈틈없이 살펴 알아차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공부가 이 단계에만 이르더라도 당신을 벌써 사물을 복잡해지도록 방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익을, 다시 말해 마음이나 촉 등이 번뇌와 갈애, 집착의 힘을 빌려서 사물을 만들어내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 데서 오는 이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많은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 감각적 접촉을 통해서 알고 있는 모든 현상들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집중력을 더욱 더 심화시키게 되면 거기에는 단순히 맨 감각만 있을 뿐이며 그밖에 달리 집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正念正知]으로 통찰하게 되면 빔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사물로 가득 차 있어도 말입니다. 눈은 많은 형상을 보고 귀는 많은 소리를 듣지만 마음은 이제 이런 것들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물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띠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밖으로 나가 사물에다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이 마음에서 발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집착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정신적 억압을 빚게 되며, 그 억압을 다시 스스로 되받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관찰할 때는 끝을 볼 때까지 줄곧 지켜보아야 합니다. 밖을 내다보려거든 죄다 통찰해낼 때까지 줄곧 지켜보십시오. 안을 들여다보려거든 속속들이 다 볼 때까지 줄곧 지켜보십시오. 무상 · 고 · 무아를 통찰할 수 있을 때까지 줄곧 말입니다. 집착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본연의 사물을, 그 성품에 수순(隨順)하여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하면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그저 맑고 밝게 비어있을 것이며 당신이 그것에 대해 따로이 해줄 일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음에는 무지라든가 또 갈애라는 병균들이 있어서 사물을 쉽사리 생겨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당신을 사물을 조심스럽게 감시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촉이 생기는 순간, 다시 말해 고통스런 느낌이 있을 때, 곧바로 갈애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되십시오. 만약 그 느낌에다 '나의 아픔'이란 뜻의 꼬리표를 붙여주지 않으면 갈애는 그다지 기승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의미를 부여해 주기만 하면 이내 그 고통을 밀어내버리려는 욕망이, 또는 고통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즐거움을 대신 채우고 싶은 욕망 즉 갈애의 표출이 생길 것입니다.

모두가 이 모양입니다. 언제 한번이라도 욕망 끝에 믿을 수 있는 참된 그 무언가를 얻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욕망에서 얻는 쾌락치고 지속되는 것이 있습디까. 한결같이 우리를 농락하고는 금방 다른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이고는 다른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설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지요. 온갖 것들에 의해 간섭받고 조건지어지다보니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현혹되고, 어두워지고, 엉켜들게 되어 버리지요.

**세상은 사물로 가득차 있어도**
**많은 형상보고 많은 소리 들어도**
**알아차림 통찰하면 '빔' 보게 돼**

**마음 고요해도 방심하면**
**곧바로 갈애 · 집착 튀어나와**

**작은 '순간적 깨어남' 공부 향상**
**번뇌 발붙이지 못할 때**
**윤회의 굴레 벗어난 열반경지**



그림 · 성륜스님

그렇게 해서 갖가지 것이 여기 이 마음속에 엉켜들고 있습니다. 알음알이 놀음을 놓아버리는 알아차림의 원리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알음알이만 놓아버릴 줄 알면 다 해결됩니다. 만사형통이지요. 만약 그 알아차림을 놓치면 바로 그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기만 하십시오. 이런 알아차림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치우침 없이 빈 채 유지시켜 주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확인력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이것저것들로 뒤섞여 혼탁하지 않고 기본적 수준의 정상 상태, 다시 말해 비었다고 할까 고요하다고 할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세심하게 지켜보십시오. 고요해 졌다 해서 무관심하며 멍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만일 그랬다간 고요한 상태는 평형을 유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마음이 멍하니 넋을 잃고 있으면 육처(六處) 중 어느 감관에서 촉이 생겨나기만 하면 곧바로 느낌이 일어나고, 그래서 갈애 · 집착이 생겨나 사건이나 사물을 빚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순간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양을 지켜보는 데다 정신을 모으십시오. 이러한 마음챙김을 깜빡 놓칠 때마다 그 즉시 알아차리는 공부를 다시 챙기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누구 없이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직도 찌꺼기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찌꺼기인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무명이 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관찰적 자세를, 체계적 분석을, 초점을 맞춘 알아차림 공부를 지속해서 그것들이 더욱 더 분명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념정지 공부에 당신의 마음이 푹 익도록 만드십시오. 중단함이 없이.

**연기현상 보는 통찰력이 번뇌 해체**

그래서 사물[緣起現象]을 아주 능란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챙김과 통찰력이 익으면 당신은 번뇌가 나타나는 순간이를 해체시켜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싫다의 느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느낌이 쌓여 다른 무엇으로 발전하기 전에 즉각 그것을 처리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느낌을 애초에 다잡지 못하고 마음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짜증내거나 우울해 하거나 흥분하는 등 언행으로 드러날 지경까지 방치해 둔다면 당신을 죽기도 전에, 살아생전에, 지옥 같은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수행하자면 우리는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 빈틈없이 용의주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번뇌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며 호감을 사려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능숙하게 감지 못하고, 마음을 주의 깊은 감시 하에 둘 줄 모른다면 우리는 번뇌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나무나 많은 번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감시하고 있다면 번뇌는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챙김과 통찰력을, 우리의 알아차림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 관찰하십시오.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일없이, 한 점도 허술함이 없이 두루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번뇌는 애당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마음챙김을 놓게 되면 번뇌는 당장 튀어나옵니다. 그래요. 당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튀어나오자마자 바로 그 정체를 확인해버리면 번뇌는 그 자리에서 해체되어 버립니다. 마음챙김을 지니고 있을만한 참으로 유용한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용한 능력을 쓰지 않고 번뇌가 시간을 벌이도록 놓아둔다면 그땐 그것들을 해체하기가 졸연치 않을 것입니다. 그땐 끈기있게 싸워나가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선은 참고 볼 일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견뎌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잘 관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속임수를 꿰뚫어볼 수 있도록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물이 생겨서 지속되다가 제풀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속임수를 분명히 알면서 지켜보는 도중에 번뇌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번뇌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서 비의존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꿰뚫어보는 방법, 자기만의 작은 순간적인 깨어남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당신의 알아차림은 더욱 더 밝아지고 힘있게 될 것이며 날이 갈수록 폭넓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작은 순간적인 깨어남의 방법을 익히도록 공부를 지어 나가십시오. 그러다가 공부가 적절하게 향상되면 번뇌와 오염물이 생겨나는 순간 이내 끊어져 버려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계속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으십시오. 무디어진 무기로는 속시원히 잘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잘라 들어가십시오.

요컨대 당신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속을 골고루 점검하고 이해하기를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의 모든 것이 다 소소영영하게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오온에는 '나' '내것'이 없다는 깨달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계속 놓아버리기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곳 병원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살펴주고 있으니 당신은 병치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모두 하십시오. 그러나 육신의 치료와는 별도로 오로지 마음을 알아차리는 특별한 공부, 그저 놓아 보낼 뿐인 이 지혜의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영원히 종식될 것입니다. 확인된 바로 그 자리에서. 〈끝〉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
(1901~1978 태국여성법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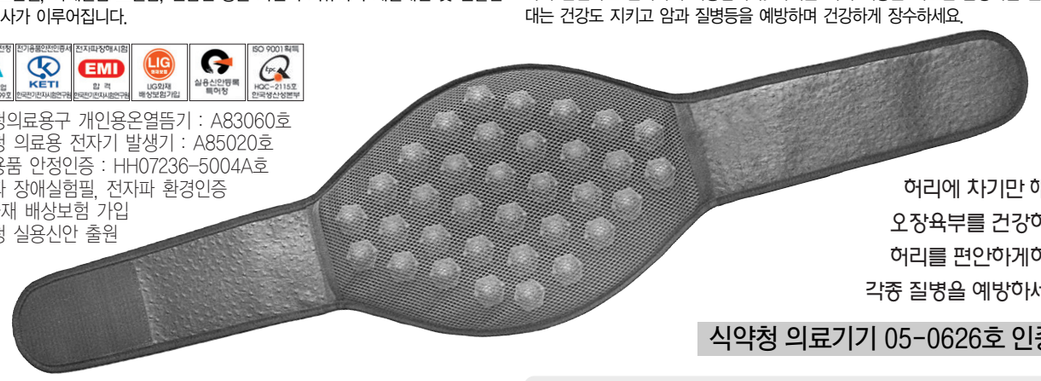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우경' 이야기 (32)

더러운 연못에 사는 물고기

# "제게 맡겼으니 보석은 다 제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큰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오물을 버려 매우 더러웠다. 연못에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연못을 지나치고 있었다. 부처님은 갑자기 뒤를 따르던 제자들을 보곤 말씀하셨다.

"저기 저 연못에 사는 물고기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어째서 저 물고기는 저렇게 더러운 연못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에 대해 설명했다.

"잘 듣거라. 저 물고기가 지은 업에 대해 말해주겠다."

아주 먼 옛날 숲속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숲속은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들이 무성했으며 매우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스님들은 그런 숲속에서 수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곳의 스님들은 어느 누구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도를 닦았다. 그래서 깨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들이 스님들을 찾아와 공양을 청했다. 상인들은 스님들께 매일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스님들은 한사코 상인들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자 한 상인이 말했다.

"며칠 뒤, 저희들이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 갑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꼭 다시 찾아뵙고 공양을 올리겠으니 그때는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들도 상인들의 청을 허락했다. 몇 달이 지나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온 상인들은 다시 스님들을 찾았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찾아뵈었습니다."



삽화 · 강병호

상인들은 보석이 가득 담긴 한 상자를 들고 왔다.

"우연히 광산을 발견해 좋은 보석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 보석들을 스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보석들만 가지고 온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 주십시오. 이 보석들을 스님들 마음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상인들은 보석을 하나씩 꺼내 모든 스님들에게 보시했다. 그들의 정성을 안 스님들은 보석을 소중히 받기로 했다. 그리고 스님들은 모든 보석을 모아 마마제 스님이 관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며칠이 지나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스님들은 음식을 구하고자 마마제 스님에게 말했다.

"지금 모든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맡겼던 보석을 팔아 음식을 사려 하니 몇 개만 내어주십시오."

그러자 마마제 스님이 크게 화내며 말했다.

"아니, 왜 제게 준 보석을 다시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까? 이 보석들은 이제 다 제 것입니다."

"어찌 보석이 모두 마마제 스님 것이란 말입니까. 상인들이 모든 스님들에게 시주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마마제 스님에게 관리를 부탁한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보석을 돌려주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게 보석들을 맡긴 이상 보석은 모두 제 것입니다."

스님들이 말했다.

"어쩔 도리가 없군. 저 스님은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결국 마마제 스님의 태도에 화가 나 숲을 떠나고 말았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마마제는 스님들의 재물을 탐해 지금 저 물고기로 태어난 것이다. 마마제는 당시 죽은 후에 아비지옥에 떨어져 펄펄 끓는 오물 속에서 뒹굴며 살았다. 그 후로도 마마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지옥에서 살아야 했다. 거기서 목숨이 다하면 다시 이곳으로 와서 저렇게 온갖 오물이 가득한 연못에서 살았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다.

"어째서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쉬킨 부처님, 비슈바부 부처님, 크라쿠찬다 부처님, 카나카무니 부처님, 카샤파 부처님 등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이 이곳에 와서 제자들을 위해 마마제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래서 나 또한 지금 너희들에게 마마제의 업에 대해 일러주는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몸과 말, 행동을 조심하자고 서로 다짐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발심할 수 있도록 한마디…**

**문)** 받기 어려운 인간 몸 받았을 때 이 마음 도리를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발심할 수 있도록 한마디 일러 주십시오.

**답)**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고생은 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짐승의 몸으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 습이 붙어 가지고 짐승의 그 무명을 벗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천 년 만에 한 번 벗거나 말거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도 이 인간 몸에서 벗어나야 인간을 굴리죠. 자기를 굴리죠. 그 많은 중생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의식들을 다 한마음으로 몰고 가려면 그래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쯤은 그 속에다 넣을 줄 알아야 되죠. 하인을 부려도 똑똑히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처라면 바로 부처는 한생각을 내서 법신으로서, 보살로서, 이 중생들을 보살을 만들려면 그렇게 한마음으로 굴리고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화해서, 즉 말하자면 입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그 보살이 돼서 수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털구멍을 드나들면서 사람을 전부 삼십이응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순식간에 그냥 한 찰나에 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모두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 있는 그 중생들을 바로 딴 나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그 과정을 모르걸랑 '네 속을 봐라, 네 속.' 그러는 겁니다.  네 속에 다 들어 있다. 그러니 그 내가 있는 데서 그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없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 큰 거부터 알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알면 모두 물리가 터지게끔 돼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문)** 눈앞에 당장 어떤 시급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관하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림 · 최주현

**답)** 이 세상에는 어느 집 어느 집 쳐 놓고 문제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수천에 달해요. 자기가 한 거만큼 그것이 그냥 일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당대에 나올 수도 있고 2대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될 만하면 안되고, 될 만하면 안되고,  '야, 이건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런 문제, 또는 유전성, 인과응보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인연, 그 인연줄을 끊지 못하고 얽히고설켜서 앨 쓰는 걸 많이 봅니다. 이건 다 누구의 짓입니까. 다 자기가 한 거만큼입니다.

모든 어려운 거, 가난한 거,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어떤 우환 가환, 또 병도 그래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병들이 인간으로서는, 의학으로써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까닭에 그런 걸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끊어 주는 게 급하기 때문에 자기 근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끊어지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은 모르고 "나는 지금 급해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어서 왔는데 주인공 찾으래." "저이는 저 남의 급한 걸 모르니깐 그렇지. 그래, 저 말이 나와?"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당신네들이 모르니깐 그럽니다. 모든 일체 만법은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게 되면 바로 우환, 가환, 병 이런 모든 것을 거기 용광로에다가 놓는 셈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새로 생산될 건 생산되고 바로 녹여 버릴 건 녹여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환을 면하고 우환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내 마음의 지혜를 넓히고, 넓히면 넓힌 그 마음이 무기가 돼서 일체 만법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때에 내 근본의 인간이 거기에서 뚜렷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급한 거 있으면, 물론 나부터라도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공부할 새가 뭐 어딨냐고. 아니, 그게 바로 공부라는 이름이 아닌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나로부터 거기에다가 모든 거, 그런 저런 것을 다 맡겨 놔야 그것이 녹아 버리지, 만약에 나로부터 생긴 건데 거기다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면해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육년 동안 앉아서 고행하실 때 그 모두 항복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항복 받은 것은 왜냐. 내 몸의 중생들, 모든 것이 자기가 공부하려니까 그게 모습을 바꿔서 자꾸 앞에 탁탁,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다. 그런 걸 부처님께선 아시고선  '아,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항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억겁을 통해서 살던 그 습의 모습을 다 항복 받은 거라 이겁니다. 이 원점 한 점에다가, 입자 하나에다가 그냥 모두 몰아친 거죠. 그러니 항복을 받았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항복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살아나가는 데 지탄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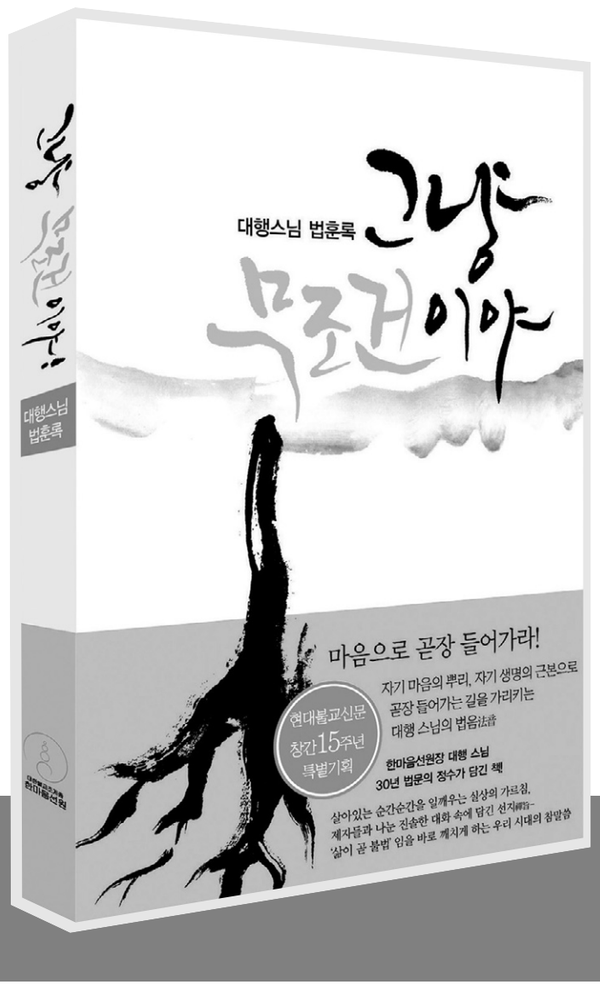
그런데 모두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온 거고, 무슨 이유가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났다 그러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내놔야 그것이 아주 철두철미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철두철미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으로부터 철두철미해야 바깥으로도 철두철미한 겁니다. 내가 안으로 눈이 밝고 청림해서 오고 감이 없이 그 오관을 다 내가 부릴 줄 알고 소소영영하게 철두철미하게 찰나찰나 응용을 할 때 그것이 아주 참인간의 모습이죠. 그 모습도 허망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건 자기 이 자원에 있다. 모든 건 거기에다가, 거기서 한 일이니까 거기에 놔라. 그런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나온 어떠한 잘못,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거니깐 거기다 놓는 거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악을 녹이려면, 인과를 녹이려면, 유전을 녹이려면, 업보를 녹이려면 바로 내가 한 거마저도, 내가 잘했다는 거마저도 놔야 그것이 놔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몽땅 믿고 놓을

☞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 제가끔 움켜쥔 것을 그냥 모두 놓고 살아 보세요

☞ 29면에서 계속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낱낱이 생각해서 참 주저주저하고 '야, 이렇게 된 도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요거 조금 좀 낫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걸린 겁니다.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급한 겁니다. 이게 놓는 거부터, 맡겨 놓는 거부터, 믿는 거부터, 물러서지 않는 거부터 이걸 배워야 그것이 다 홀랑, 나중에는 다 점차적으로 '아이구, 이런 게 언제 이렇게 없어졌지?' 하고 어느 때 보니까 항상 봄처럼 웃고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지탄과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진짜로 주인공이 모든 업보와 그 인과응보와 유전을 다 녹여 주고 삶을 보람 있고 생동력 있게 끌고 가는 바로 길잡이라고 생각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 사람이 살아나가다 보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잘 판단이 되질 않아서 머뭇거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답)** 사실 결정짓는다는 건 인생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렵지 않게 살면서도 한번 뒤집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뒤집는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건 잘못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건 잘 될 거다' 하고 뒤집는 거 말입니다. 번연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될 거다 하고 뒤집는 거, 무조건.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자기는 과거 정신계하고 자기 현실 물질계하고 포함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된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쓰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무슨 일들을 어떻게 갈망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짓고 일을 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모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자기란 살아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일을 하고 결정적으로 결정을 짓고, 모든 거를 화해서 바꿔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뿌리, 나무의 뿌리와 같이 자기가 있다고 꼭 생각하세요. 있으니깐 지금 움죽거리고 말을 하고 모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지금 살아나가는 건 살아나가는 거로되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잘된 거다, 이렇게 똑똑하게 따지는 것을 사회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똑똑하게 못 보고 그런다면 참 사회인이 똑똑하게 못 살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 사회인도 이렇게 똑똑히 보되 저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아주 위기에 걸려 있다, 저건 망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거, 저 회사 또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왜냐하면 피바다를 일으키고 싸우는 싸움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냐하면 회사 하나에 사람 살아나가는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붙어서 삽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애들까지도 그냥 살 수가 없이 가정에서 울고 기가 막히게 가슴에 멍이 들어서 앨 쓰는 사람이 허다 많아요. 받을 돈은 많지만 그게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받을 돈도 아주 영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무슨 이게 옳고 그게 옳고 이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생각이 어떠세요?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자성불이 통신을 해서 모두 아래의, 즉 말하자면 하늘과 땅, 이 풍신 바람신, 이 물, 즉 말하자면 용신 그런 분들이 모두 한데 합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뭐가 좀 살게끔 돈 못 받던 사람도 받게끔 일이 퍼지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해야 회사뿐이 아니라 가정도 모두 살게 되죠. 그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자리를 잡아야 저 불국사의 다보탑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내면에 다보탑이 되어 있다. 아주 맥반석처럼 튼튼하게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그걸 한자리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그거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결정을 지어야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이백이 아니라, 가정도 일이백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결정을 지어야죠. 군소리도 필요 없죠. '너는 이렇게 되어야 살게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그 생각이 천지를 진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그냥 부실하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바람을 통하고, 즉 말하자면 용신을 통하고 전부 통해서 이게 통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순간이죠. 한 찰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차사고가 크게 났는데 돈을 줘야 할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해라. 무조건 된다고 한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 쪽의 마음도 달라지고 네 마음도 달라지고 결정적인 일이 성사가 된다." 아니나 달라요? 그쪽에서는 그 형세를 다 조사해 보고선 저거 하니깐 "보시한 셈 치지." 하고선 받질 않았답니다. 그래, 그거를 무조건 받지 않는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가 결정을 지으면 그쪽 마음도 달라지고 이쪽 결정도 모두가 달라진단 얘깁니다.

이 결정적인 문제를 단호히 뒤집을 줄 알아야 합니다. 뒤집으면 안될 거를 뒤집는다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돼요. 왜냐? 상대방도 달라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믿고 참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말로는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리만큼 귀해요.

가정에서도 뭐가 이게 돈을 받지 못했다든가 밥을 굶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건 굶지 않고 꼭 먹어야 돼.' 하고 먹게끔 아예 결정을 지어 버린다면 꼭 먹게 되죠. 근데 못 먹게 결정을 지어버린다면 못 먹게 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자유스럽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 어쩌지 못해서 어찔어찔하고 피곤하게 산다면 그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길을 살려서 공용으로다가 씀씀이를 쓰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깐 무조건 어떠한 악한 일이 상대방에 있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할 텐데 한다면 이건 해결을 선하게, 그냥 주인공에다가 놓고 해결을 하도록 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믿어야 되겠죠.

이 소리가 우습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세세생생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력을 얻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식구들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어떠한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건지는데도 그 능력이 주어져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생각하세요. 차근차근히 하나서부터 그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사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자기 앞에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맡겨 놓되 그냥 잘되게끔 결정을 지으시란 말입니다. 무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결정을 좋게, 살 수 있게 결정을 지으세요. 모든 거를 다. 내가 이런 되지 않을 거를 이렇게 결정을 짓고 살 수가 있나 그러지만 상대방에서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 마시고 그렇게 안되든 되든 무조건 해 보세요. 무조건 해 나가면 몸에 마음에 배요. 그러면 '참 감사하구나. 이런 법이 있었던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울다가 땅을 내려다보곤 웃을 일이 생길 겁니다.

###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문)** 살다 보니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고생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배신감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이 많은데 살기가 싫을 정도로 정말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살림 형편이 어려워 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깨닫는가. 그런데 깨닫기 이전에 모두 살아나가면서 극하게 욕심을 부리고 극하게 집착을 가지고 아주 극히 그 모든 사물에도 그냥 많은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 사는 게 많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극히 그 욕심 안 내는 것만치 다 갈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집안이 안되고 사는 게 힘들고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지가지죠, 뭐. 어떻게 고것뿐이겠습니까.

새록새록 너무 천차만별로 많은 그 뜻을 제가끔들 이렇게 움켜쥐고 사시는데 그 움켜쥔 것을 그냥 놓고 사세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일 죽는다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거를 겁내지 않는다면, 죽는 거를 겁내지 않고 나를 버린다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죽을까 봐 겁을 내니까 이게 그 겁내는 반면에 모든 게 틀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겁을 내지 않고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한다면 뭐가 안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 앉아서도 마음을 그렇게 태연하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고 물도 건널 수 있고 어떠한 마구니 틈에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가면 가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 다 하는 이 길은 대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좁고 아주 엉망으로 된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어떠한 것이 닥치더라도 다 치우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살림을 하고 모두 살고 계신데 그 살림을 하면서 이 공부 한다고 앞에 닥치는 거를 등한시하고 살면 결국 나중에 그걸 또 해야 되니까 내 앞에 닥친 거는 누구한테 밀지 말고 꼭 여러분 자신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그 길이 어지반 어지반 다 당도해서 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날 가지고 붙들어매 가지고 그걸 집착을 하고 그런다면 그거 어느 때에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애를 쓰지 마시고 그냥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냥 사신다면, 모두 나와 더불어 몽땅몽땅 놓는다면 바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인간공장에서 인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들 가는 거니까 그저 내 앞에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그냥 여여하게 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알고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자유스럽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 그런 자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 그런데 자기 하나 어쩌지 못해서 어찔어찔하고 피곤하게 산다면
> 그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 그러니까 어떠한 악한 일이 있다거나 그래도
> 그냥 주인공에다가 놓고 해결을 하세요.
> 그렇게 하려면 믿어야 됩니다.
> 그것이 여러분을 세세생생에 이끌어 갈 수 있는
> 자력을 얻는 길입니다.



부엉이걸이

#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 핸드폰걸이

옴자 차걸이는 불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옴자 모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옴자를 지니고 있으면 나쁜일을 물리쳐주고 늘 수행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엉이 걸이는 항상 밤에 눈을 뜨고 있어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고 안녕을 기원해주는 새 입니다. 집안이나, 핸드폰 걸이로 사용하시면, 당신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목어 걸이는 불교의 4가지 보물 중 한가지로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물속의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눈을 뜨고 있다하여 수행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어를 옆에 두시면, 수행하는 마음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옴자차걸이 4종류

| 종 류 | 가 격 | 제 조 | 용 도 | 기 타 |
|---|---|---|---|---|
| 옴자차걸이 | 33,000원 | 국내제작 |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노리개 | 빨강,노랑,파랑,녹색 |
| 부엉이걸이(大)<br>부엉이걸이(中)<br>부엉이걸이(小) | 20,000원<br>15,000원<br>10,000원 | 국내제작<br>국내제작<br>국내제작 |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 |
| 목어걸이 | 15,000원 | 국내제작 |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 |
| 부엉이 향낭 | 15,000원 | 국내제작 | 차걸이,가방악세서리,방향제 | 페퍼민트 자연향 |


목어걸이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 아동성범죄 예방에 우리 모두 나서자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평소 잘 아는 동네 아저씨에게 등교길 차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이 소녀는 물론, 동네 어른들도 몰랐다.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살해. 유기하고, 범행 후 태연하게 목격자로 방송취재진에 인터뷰까지 응하고 수색에도 동참했던 이웃집 아저씨. 현실이 공포영화보다 더욱 무섭게 다가온다.

최근 수년 사이에 아동성범죄는 때와 장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그 수법조차 살인에 이를 정도로 흉폭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현실 진단이나 대책 마련 등으로 요란했고, 최근에는 아동성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에서 화학적 거세도 가능하게 법제화하였다. 이 사건 이후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성부의 '성범죄알림e'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 때는 이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한다. '성범죄자 알림e'는 2010년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들의 주거지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관련법 개정 전인 2005년에 6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처럼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2011년 이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거나, 이 싸이트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피해자가 방과 후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 홀로 집에 남겨지는 취약 계층 아동이었기 때문이다. 아동은 우리 사회 미래의 자산이자, 아동의 성장은 성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보살핌은 개별 부모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다.

불교에서 부처님 재세시 만들어진 계율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씩 제정되었다. 그런데 승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계율이 불사음(不邪淫)이며, 승가의 계율에서 바라이 제1조는 비구와 비구니 모두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계율이다. 성적 욕구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성적 욕구가 살생, 투도, 망어, 음주로 연결되어 오계를 지키거나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토록 불사음(不邪淫)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처럼 감각적 쾌락은 갖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가자는 '성적 욕구'의 극복을, 재가자는 남녀 상호존중에 기반한 청정한 성관계를 강조한다.

**취약계층 보살핌 사회책임**
**승가 첫 계율도 불사음(不邪淫)**
**범죄 예방 사회차원 확대해야**

한 사회의 성폭력지수는 그 사회의 안전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지혜를 모아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가족단위가 이나라 '가족'을 '지역사회'로 확장해서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아동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은 물론, 지역사회내 시민사회단체나 기관이 앞장서서 어른들에게 아동성폭력 등 각종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미국의 'Men Stop the Rape Program'(남성들이 성폭력을 멈추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Bystander Intervention'(주변 사람들이 개입하기)처럼 어른들이 아동대상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고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불교는 공사상이나 연기사상으로 모든 사물이나 생명을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 연계적으로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면서 존재의 근거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 수능 기도는 자녀와의 행복한 동행



성진 스님
조계사 행정국장

"엄마, 나 이제 대학이고 뭐고 안갈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재수를 하는 아들이 대입시험을 망치고 와서 어머니 앞에서 술병을 움켜지고 통곡을 하며 울부짖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2년 동안 팔공산, 봉정암, 보문사 등 좋다는 도량에는 다 기도를 올리고 매일 새벽예불과 1080배, 일주일 마다 철야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들의 목불인견(目不忍見)의 투정이 이어지자 그 어머니는 아주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실망이다 나는 내 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려하기에 늦게라도 꿈을 이루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한낱 대학이라는 것에 부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줄 몰랐구나. 넌 대학가지 말아야 겠다."

그 말씀을 하는 동안 그 아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오로지 자신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기도 하신 줄 알았는데 '한낱 대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기도하신 이유가 단지 대학을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게 됐다.

그 어머니는 인생의 첫 관문인 입시라는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아들 옆에서 함께 걷기 위해서 세상이 비록 몰라줘도 당신만은 사랑으로 지켜주며 신뢰와 용기를 주기위해서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의지하는 부처님께 기도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속의 아들은 이십여 년 전의 나이고, 나의 어머니이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머니가 태산처럼 커보였다. 출가해 스님이 돼 지난 2년 동안 조계사에 머물면서 수많은 어머니들과 수능기도를 함께 해오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매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이런 연유로 기도 제목 또한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이라고 지었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함께 "누구누구야 할 수 있다"를 목 놓아 외치며 함께 박수를 치게 했다.

수능생을 둔 불자 어머니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이지만 공부와 시험은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단지 그 옆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비록 자녀들이 흔들리고 좌절하려 할 때라도 부모님은 신뢰와 자비심의 눈빛으로 그 옆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고목 같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려 할 때 단단히 받치고 있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뢰와 용기주는 기도돼야**
**부모는 자녀 인생 버팀목**
**두려움 성냄 앞서 참회 기회로**

수능기도는 성취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인생의 난관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함께 길을 걸으며 직접 보여주는 시간이다. 만일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화를 낸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겠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가 불안해서 "공부를 했니, 안했니. 옆집 누구는 어디 학교를 갔다는데" 등 조금만 자녀가 공부를 안한다고 채근한다면 아마 가족 전체는 너무나 힘든 입시철을 보내야만 할 것이 분명하다.

부처님은 중생을 항상 자비심으로 제도하셨다고 한다.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외롭고 두려워 고개를 돌렸을 때 묵묵히 옆에서 함께 걸어주고 있는 엄마, 아빠이다.

수능기도는 목적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아들딸에게 관세음보살, 화엄성중이 되고 부모 자신도 참회와 정진의 기회인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세상의 잣대가 아들을 재고 흔들 때 아들의 관세음보살이 돼주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다.

수능을 100일 남짓 앞둔 이 시간, 부모로서 자녀 때문에 힘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발원해 본다.

社說

# 자기 종교 티내는 꼴불견 인기인들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2012 런던올림픽 유도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김재범 선수가 소감을 피력한 말이다. 이 광경을 보며 꼭 우승 소감에 자신의 종교를 피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비단 이런 모습은 스포츠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연말에 주로 열리는 연예인 대상의 각종 시상식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인기인이라는 점에서 작은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기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밤늦게 TV 앞에 앉아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만 있다면 굳이 이런 행동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인 만큼 응원하는 국민들 입장도 분명 배려해 줘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올림픽 경기에 나선 운동선수들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들이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뛰는 선수들이 조국보다 자신의 종교를 우선으로 인식하고 공식석상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눈을 돌려 외국인 선수들을 살펴보자. 올림픽에서나 월드컵에서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다. 이들은 스포츠는 스포츠로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TV나 영화를 보는 국민들에게 공적인 상을 받으면서 자기 종교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인기인들이 지녀야할 배려의 덕목인 것이다.

# 조계사에 보이는 불교 변화의 물결

서울 종로 한복판의 위치한 조계사는 최근 1~2년 사이 많은 변화를 보여줘 왔다. 도심 속에 국화축제를 여는가 하면, 지방 도시와 결연을 맺어 다양한 장터를 열기도 했다. 여기에 톡톡 튀는 행사명까지 도심 사찰이 가져야 할 감성들을 불자를 넘어 대중에게 선보였다.

이런 조계사가 또 다른 변화의 준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심에는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있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최근 종로구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설립을 위한 별도의 자체 기구인 '조계사 연꽃마을팀'도 꾸려졌다.

여기에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조계사를 시대의 트랜드인 '마음 치유'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역할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프로그램 협력과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은 모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점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 같은 결과는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2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들이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은 9월부터 계획했던 전문 지도사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모두 마음치유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들이다. 여기에 주제와 계층을 나눠 진행하는 다양한 힐링캠프들도 개최할 계획이다. 사실 이런 과정들은 불교계의 새로운 도전들이고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

'간화선을, 불교 사상을 어떻게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해답 중 일부는 조계사의 행보에 있다.

이런 작은 변화의 물결들이 결국 큰 파도를 만들어 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새로운 滴天髓풀이
[제❸권]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징의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 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쉽고 매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징의에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징의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전 3권 완간!
제❸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56쪽 / 정가 5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사찰이미지 200% UP! 法 법과 果

##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